I. 조직 및 행정
II. 교육
III. 연구
IV. 협력
V. 학생활동
VI. 협의기구
VII. 후원기구
VIII. 캠퍼스 및 시설 변천

I

조직 및 행정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1. 이사회
2. 본부 조직의 변천
3. 부설기관
4. 문화 및 후생복지
5. 행정발전교육센터

1. 이사회

이사회는 KAIST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8조 1항 "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는 근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총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되 연임이 가능하다. 이사는 선임직과 당연직 이사가 있으며, 당연직 이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KAIST 총장이고, 선임직은 학계 및 과학기술계, 산업계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어지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과 12월에 개최한다.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임원의 선임과 해임, 중요재산의 처분, 분원 및 부설 연구소 설치, 중요규정의 제정 및 변경 등으로,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해 의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현재 KAIST 이사회는 김우식 이사장 외 14인의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이사회 임원 명단과 역대 이사장 및 기관장(총장·원장)의 명단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사회(2020년 9월 현재)

구분	직위	성명	현직
선임직	이사장	김우식	(사)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
	이사	강학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원장
		김선욱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
		김이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박상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성욱	SK수펙스추구협의회 ICT위원회 위원장
		엄지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교수
		최지선	Law & Science 대표이사/변호사
		한문희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당연직		강상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한훈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감사	감사	김선화	한국과학기술원 감사

제16대 김우식 이사장 방문 2020.04.16.

역대 이사장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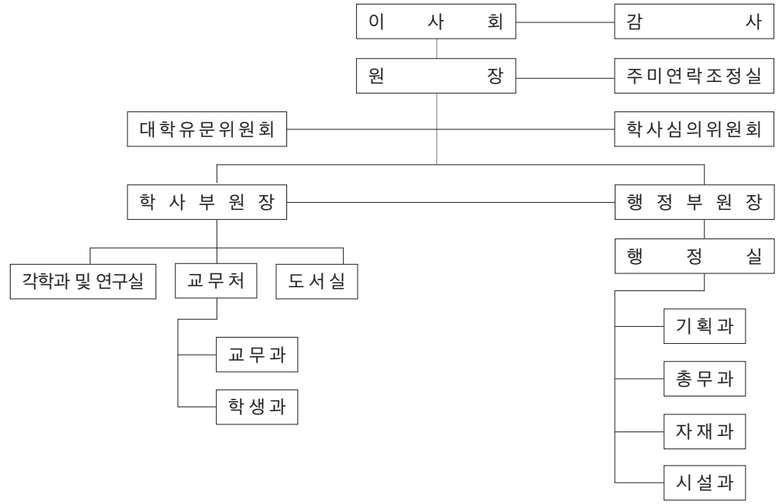
구분		성명	재임기간
한국과학원	초대	안동혁	'71. 02. 16~'74. 02. 15
	2대	정인욱	'74. 02. 16~'78. 07. 30
	3대	박충훈	'78. 07. 31~'80. 12. 31
한국과학기술원	초대	이한빈	'81. 01. 05~'83. 03. 18
	2대	성좌경	'83. 03. 19~'85. 03. 28
	3~4대	최종완	'85. 03. 29~'90. 03. 28
	5~6대	김기형	'90. 04. 17~'96. 08. 22
	7~8대	박태형	'96. 10. 31~'02. 12. 26
	9~10대	임 관	'03. 03. 28~ '06. 12. 20
	11대	조정남	'07. 01. 23~ '09. 03. 20
	12대	정문술	'09. 03. 21~ '10. 09. 02
	13대	오 명	'10. 09. 06~ '13. 11. 20
	14~15대	이장무	'13. 11. 29~ '20. 03. 26
	16대	김우식	'20. 04. 02.~ 현재

2. 본부 조직의 변천

한국과학원 설립과 직제

1971년 2월 16일 한국과학원 설립 등기가 완료되어 이틀 후인 2월 18일 과기처에서 한국과학원 창립이사회가 열렸다. 이후 당시 한국과학원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와룡동 국립과학관 4층에 자리 잡았다. 같은 해 12월 31일 '한국과학원 학사 규정'이 공포되어 교원의 자격 기준과 학생의 입학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학과·교과 및 학생정원 등은 따로 학칙에서 정했다. 한국과학원은 1972년 4월 학사부원장 외에 행정부원장을 추가로 두는 복수 부원장제도를 택했지만 1972년 11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다시 단일 부원장제도로 변경했다.

최초 조직도(1972년 4월)



이후 조직은 이사장-원장-학사·행정부원장 체계로 개편되었으며, 원장 직속기구로 주미연락조정관·대학자문위원회·학사심의위원회가, 학사부원장 아래 각 학과 및 연구실, 교무처, 도서관이, 행정부원장 아래 행정실이 편제되었다.

1977년 6월 1일 한국과학원은 원장 아래 학사담당과 개발담당의 두 부원장을 새로 두고, 학사담당 부원장(교무처장 겸임)은 교무처와 학생처를, 개발담당 부원장(개발실장 겸임)은 기획실·개발실·도서실을 각각 관장하도록 했다.

2년 후인 1979년 6월 1일에는 개발담당 부원장직을 폐지하고 다시 단일 부원장제를 택했으며, 이로써 부원장은 학생처·교무처·연구지원실을, 기존 개발담당 부원장이 관장하던 기획실·개발실·도서실은 원장 직속으로 두었다.

KIST 통합·발족과 조직개편

1981년 1월 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통합·발족한 후 한국과학원 명칭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바뀌었다.

통합 초기에는 원장 아래 학사담당 부원장과 연구담당 부원장을 두었다가, 1982년 2월 11일에는 다시 단일 부원장으로 축소하고 학사기능은 이학부와 공학부로, 연구부는 연구본부로 1차 조직개편을 했다.

또 학사심의위원회와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학사·연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학사행정과 연구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학부장·본부장·처장에게 대폭 위임했으며, 직종 및 직급별 정원제와 함께 식당·인쇄·목공 등 특수사업의 독립채산제도 도입했다. 아울러 연구원학생 및 연구원보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82년부터 연학부를 신설했다.

KIST와의 통합 초기 일련의 조치는 설립 배경과 문화가 다른 두 조직을 유합시키기 위한 조직개편이었으나, 이후에도 학사부와 연구부 간의 거리는 의도한 만큼 좁아지지 않았다.

KAIST는 이러한 두터운 벽을 깨뜨리고 교육과 연구 분야 인력과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른바 매트릭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1983년 7월 1일자로 또 한 차례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학과의 전공과 유사한 연구부 내 연구실을 8개 학부로 통합했으며, 교무처와 학생처를 통합하여 교학처로 명명하고 연구조정부 및 과학도서관을 신설했다. 이로써 교육과 연구기능이 원장 직속의 각 학부에 통합되었고, 교육 지원은 교학처가, 연구 지원은 연구조정부가 각각 맡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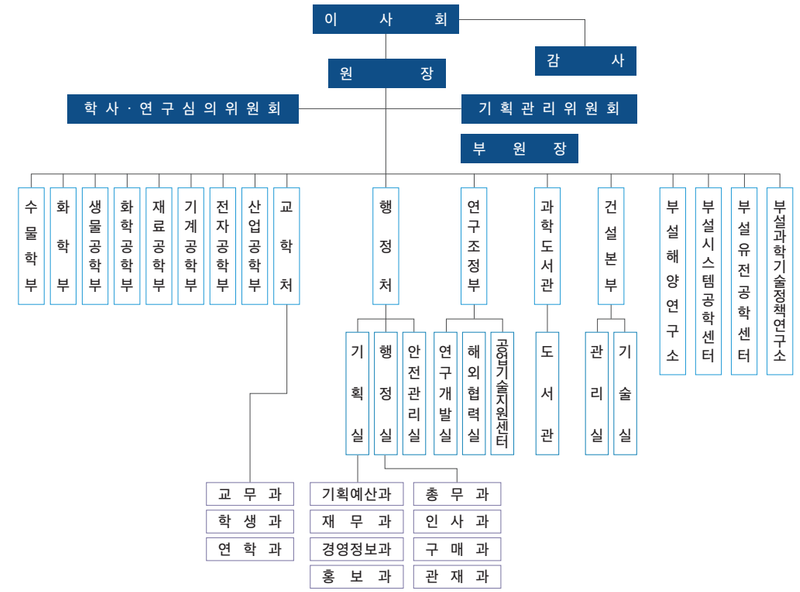
매트릭스 체제 도입과 조직개편에 따라 겸임·겸직제도 및 겸무순환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학사부와 연구부 사이의 교류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수직의 연구 활동 범위는 확대된 데 비해 연구 부문의 활동에는 오히려 제약과 감독이 강화되고, 교수직의 수평적 조직과 연구직의 수직적 조직 간의 운영 차이 등 갈등 요소들로 매트릭스 시스템은 그 한계를 드러냈다.

1986년 8월 1일에는 KAIST와의 통합 초기와 마찬가지로 학사부와 연구부로 기능을 분리하고, 학사부에는 14개 학과와 1개 전공을, 연구부에는 4개 연구부와 그 산하에 40개 연구실을 두었다.

KAIST는 1987년 9월 25일 연구조정부를 연구본부로 개편하고, 연구부를 연구본부 산하에 두게 하며 연구본부는 연구본부소장이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학사와 연구 기능을 완전히 분리했다.

KAIST는 1988년 5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 부원장으로 하여금 교무처장을 겸임하도록 하여 학사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Matrix System 에 따른 8개 학부 체제



연구조정부를 연구본부로 개편했으며, 연구부를 연구본부 산하에 두게 하는 등 학사와 연구 기능을 완전히 분리했다.

이어 1988년 10월에는 원장 산하의 과학도서관과 홍보·협력실을 폐쇄하고 연구본부소장 아래 도서실과 홍보·협력실을, 학사담당 부원장 아래 과학도서관과 섭외과를 각각 분리 신설했다. 그리고 마침내 1988년 6월 1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법인이 정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으면서 1981년 1월 통합·발족 이후 7년 5개월 만에 KAIST와 KIST는 다시 분리·독립했다.

KIT 통합과 조직 변천

1985년 6월, 한국과학기술대학(과기대, KIT)이 대덕연구단지 내에 설립되었으며, 학사과정 설치를 위한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과 KIT 설립을 통해 KAIST는 석·박사 인력뿐 아니라 학사 인력까지 폭넓은 인재를 양성하게 되었다. KIT가 설립되면서 KAIST 또한 장기적 차원에서 고급과학기술 두뇌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양성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혁신적인 학생 선발 및 교육체계를 도입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1989년 7월 4일, KAIST와 KIT 조직과 운영이 통합되었으며, 과기대는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으로 변경되었다. 통합에 따라 기존 과기대 소속 교직원은 KAIST 정관에 의해 KAIST 교직원으로 임명되었다.

KAIST는 기존 과기대의 학과와 유사한 전공을 단일 학과로 통합 편성하고, 과기대에 없던 KAIST 학과와 KAIST에 없던 과기대 전공을 그대로 존속시켰다.

1990년 4월 1일 KAIST 직제는 이사회, 원장, 감사, 부원장, 대학원, 대학, 분원, 연구소, 16개 학과, 1교양과정부, 5처 1건설본부, 1도서관, 1계산소, 6실 1센터, 28개 과(課)로 구성되었다.

이때 석·박사과정 교학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대학원, 학사과정 교학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대학을 각각 설치했다. 또 본부의 대덕캠퍼스 이전에 따른 서울분원, 연구 업무를 담당할 연구소, 교육·연구의 전산 지원 업무를 담당할 전자계산소 등을 신설했다.

대덕 이전과 원장 공모 및 총장 시대

대덕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KAIST는 1991년 3월 학부제 설치와 운영을 통해 학부장들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함으로써 '학부장 책임 하의 학부 운영'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어 1993년 8월에는 부원장직과 기획처를 폐지하고 종합기획본부를 설치했다.

1998년에는 설립 후 처음으로 원장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가 원장후보선임위원회 심의·추천 등을 거쳐 최종후보 2인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같은 해 6월 제10대 최덕인 원장을 선임했다. 이어 2001년 6월 취임한 제11대 홍창선 원장 재임 중이던 2003년 7월 1일에는 '원장'이라는 명칭 때문에 연구소로 종종 오인되는 점, 세계적인 KAIST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학기술원법을 개정, '원장' 명칭이 '총장'으로 변경되었으며, 2004년 7월 최초의 외국인 총장이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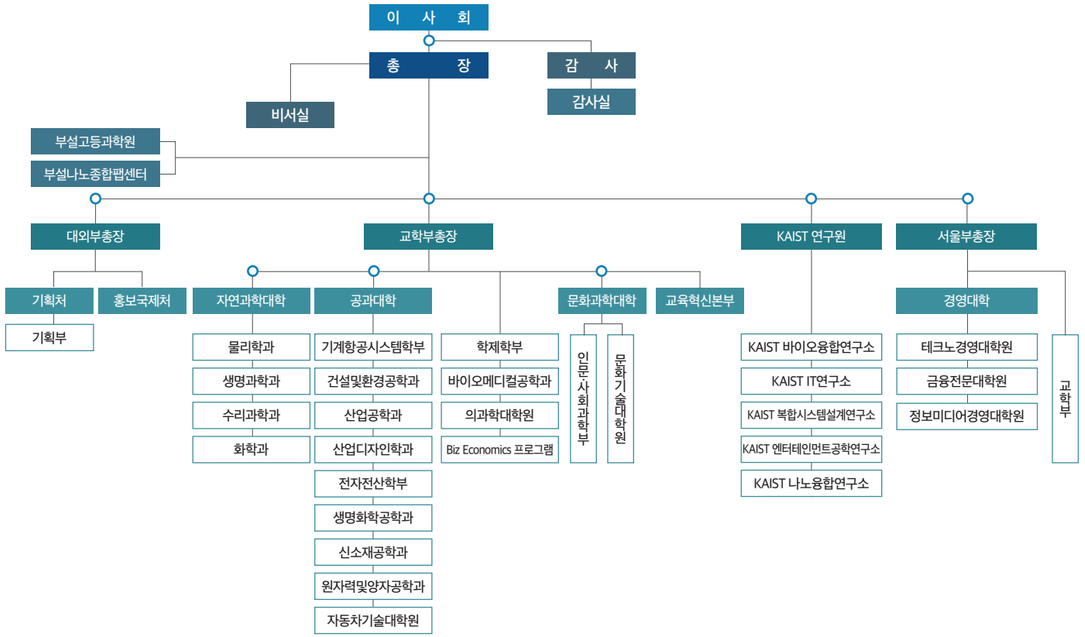
KAIST는 재정 강화와 더불어 학제 융합과 맞춤형 교육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05년 10월 24일 부총장 권한을 재정과 교무로 세분화하고 서울부총장도 두어 3인 부총장 체제 도입을 입안했다. 하지만 국내 대학 최초의 이 구상은 내부 구성원 간의 의견 조율 등 여러 문제로 즉시 시행되지는 못했다. KAIST는 2006년 8월 16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해온 30여 개 학과를 4개 단과대학으로 재편하고 예산과 인사권 등 학과 운영 전권을 부여할 학과장 시스템 도입, 예산을 집중 투자할 학제적 3~4개 연구소 및 이를 관할할 'KAIST 연구원' 신설, 교육혁신본부 설립 등을 시행했다.

ICU 통합과 현재

2009년 3월 1일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가 KAIST에 통합되었으며, 통합 이후 KAIST는 교내에 IT 융합캠퍼스를 설치해 ICU의 학교 조직을 이관하고, ICU 교직원, 학생의 권리·의무도 그대로 포괄 승계했다. ICU 통합에 따라 KAIST는 대외부총장·교학부총장·서울부총장과 더불어 기존 ICU 산하 조직을 관리하는 ICC부총장을 신설했으며, ICC부총장 산하에 정보과학기술대학과 ICC운영부를 두었다.

2006년 8월 KAIST 연구원을 설립하여 총장 직속 기구로 편제했던 KAIST는 연구 부문 강화와 연구 효율성을 위해 2010년 7월 연구부총장제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KAIST 연구원과 연구처, 산학협력단을 두었다. 또 서울부총장을 폐지하고 그 산하에 있던 경영대학을 교학부총장 산하로, IT융합연구소 등 각종 연구소를 KAIST 연구원 산하로 이관했으며, KAIST의 자금 부분 전체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인 CFO를 총장 산하에 신설했다.

조직도(200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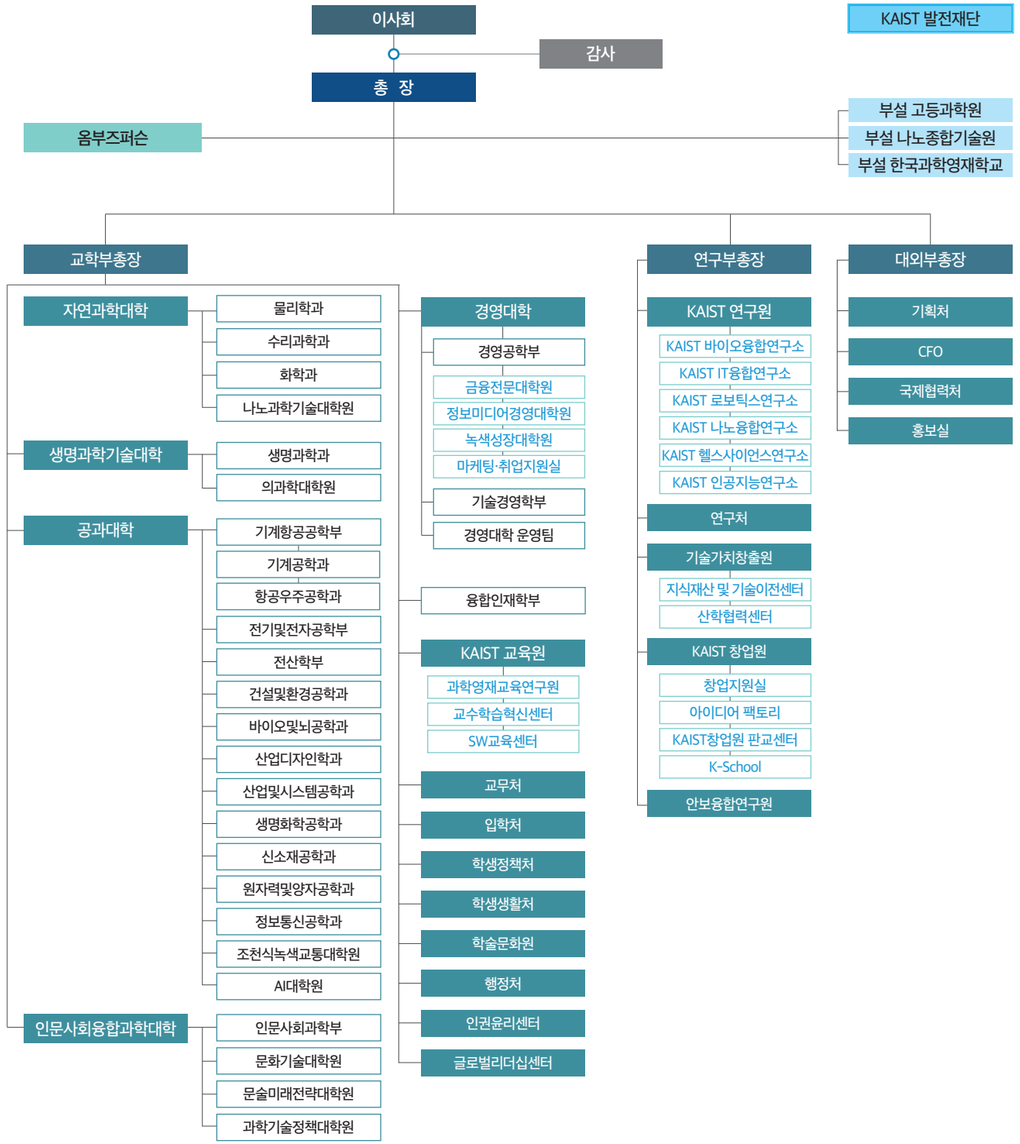
2013년 12월에는 ICC부총장을 폐지하고 그 산하에 있던 정보과학기술대학을 교학부총장 산하로 이관했다.

2020년 9월 1일 현재 KAIST 조직은 총장 아래 교학부총장·연구부총장·대외부총장이 있으며, 각 부총장 아래 7개 단과대학, 36개 학과, 15개 처가 각 업무 분야별로 개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교학부총장 산하에 대학, 단과대학, 학부, 학과, 전공, 대학원, KAIST 교육원, 교무처, 입학처, 학생정책처, 학생생활처, 학술문화원, 행정처, 인권윤리센터, 글로벌리더십센터, 연구소를 두고 있다.

대외부총장 산하에는 기획처·CFO·국제협력처를 두고 있으며, 연구부총장 아래는 KAIST 연구원, 연구처, 기술가치창출원, 안보융합연구원, KAIST 창업원을 두고 있다.

현 조직도 (2020년 11월 기준)



3. 부설기관

고등과학원

Korea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1996~2021

세계적 수준의 이론기초과학 연구기관

KAIST 부설 고등과학원은 1996년 10월 1일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취지로 개원했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수행, 미래 유망과학인력 양성, 국내 기초과학 연구 선도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이론기초과학 연구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6년 수학부와 물리학부 2개 학부에서 석학교수 1명, 교수 2명, 연구원 3명 등 총 6명의 연구진으로 시작한 고등과학원은 1997년 14명, 1998년 36명으로 연구원을 늘리면서 연구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98년에는 Associate Member 제도를 도입,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수 및 연구원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세계적인 석학들과 교류하면서 연구 능력을 높이고 재충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2000년에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소들을 네트워크 하는 Millennium Science

고등과학원 개원

Initiative 사업의 일환으로 결성된 과학단체인 Science Initiative Group 창립 멤버로 발탁되었다. 2003년에는 기관의 과학적 역량을 확장시키기 위해 계산과학부를 증설했으며, 2005년 해외 석학들이 연이어 고등과학원의 연구 인프라가 국제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기초과학 분야에서 중심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해마다 뛰어난 과학적 역량의 박사후 연구원을 유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와 필즈메달 수상자를 비롯해 1,500명이 넘는 국내외 유수 과학자들이 고등과학원을 찾고 있다. 2020년 9월 현재 계산과학부를 포함한 3개 학부와 4개 센터(Open KIAS센터, 수학난제연구센터, 거대수치계산연구센터, 양자우주연구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석학교수 2명, 교수 25명, 연구원 86명, 지원인력 42명 총 159명의 인력이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등과학원은 설립 이후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이론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했으며, 매년 300편 이상의 SCI 논문(2019년 SCI 논문 371편, 인당 2.3편)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수학부는 대수기하학 및 기하학 분야 등에서 10~40년 이상의 미해결 난제를 해결했고, 물리학부는 초끈이론·통계물리·우주론 등 이론물리 전 분야에서 최상위 연구 성과를 창출했으며, 계산과학부 또한 머신러닝 및 대규모 수치계산 방법론 활용하여 계산생명과학·이산수학·신물질연구 등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 성과를 창출했다. 이를 통해 고등과학원과 10년 이상 공동연구에 참여한 해외 석학교수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한국과학상·호암상 등 국내 주요 기초과학 분야 학술상의 대부분은 고등과학원의 연구진이 석권(최고과학기술인상 2명, 한국과학상 3명, 호암상 3명, 젊은과학자상 4명)했다.

최근 해외 우수 연구기관장 등 세계적 석학들을 평가위원으로 진행한 국제평가(2018~2019년)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국제우수연구기관인 고등과학원은 한국 수학계의 발전과 연구 교류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한국기초과학의 수준을 높인 기관으로, 지난 20년간 아시아 이론 물리학계의 선두주자로 도약", "계산과학부 교수진 모두 국내외 학계로부터 학문적 우수성을 발휘" 등의 평가를 받았다.

고등과학원은 1997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론기초과학 분야 Post-Doc 인력을 양성하여 468명(국내대학 56%, 해외 대학 22%, 해외 연구소 등 8%, 국내연구소 등 14%)에 이르는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의 교수·연구원을 배출했다.

20년 이상 쌓아온 국제적 인지도 및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 교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지식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해외에 기반을 둔 석학 및 저명한 과학자를 KIAS Scholar로 유치하여 국내 연구진과 공동연구 및 학술 교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과학자의 연구연가 및 방문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소규모 세미나부터, 국제적 규모의 심포지엄까지 하루 3건 이상의 다양한 학술 교류 활동을 통해 매년 전 세계 7,000명 이상의 연구자가 방문하는 국제 학술 교류 중심지로 성장했다.

최재경 고등과학원장 임명장 수여식 2020.01.03.

킵손(Kip S. Thorne) 교수 고등과학원 대중강연 2015.05.21.

나노종합기술원

National NanoFab Center 2004~2021

세계 산·학·연 연구자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설·장비 인프라 기관으로

KAIST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은 2002년 KAIST가 나노종합팹시설 구축사업을 유치하면서 2004년 5월 4일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고가의 첨단 나노기술 시설·장비에 대한 공동 활용, 연구 성과 실용화 및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설립 목적이다.

2005년 3월 준공식을 갖고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06년 3월 KAIST와 함께 세계 최소형 3nm FinFET 소자를 공동 개발했다. 2007년 5월에는 180nm CMOS 일괄공정을 구축하고, 2010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 지정을 받았으며, 2010년 12월 팹서비스 수입 100억 원을 달성했다.

이어 2012년 11월 ISO 9001/14001 인증을 받았으며, 2013년 1월 나노종합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4년 1월 미래부 직할 출연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014년 8월 대전나노R&BD센터를 증축하고, 2015년 11월 한미나노기술공동연구센터를 설립했으며, 2016년 지멤스 장비 및 첨단센서 장비를 구축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2016년 12월 국가연구시설 미래부 장관 표창, 2017년 3월 해외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사업 최우수 평가, 2018년 10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등을 받았다. 2017년 11월 스마트 센서 Fab 구축에 이어 2018년 8월 나노바이오 센서칩 기술 상용화 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2019년 12월 국가연구시설(N-Facility) 지정을 받았다.

KAIST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약 3,000억 원을 투입하여 나노기술종합팹시설 장비를 구축했다. 나노종합기술원은 나노기술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정플랫폼 기술개발, 산·학·연과의 공동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나노기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신성장 기술을 혁신하는 세계적 수준의 나노기술 종합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나노기술 기반의 CMOS, MEMS, 나노소재/바이오, 분석 및 특성평가 분야 첨단장비(341대, 2,374억 원)를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연구개발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반도체부·융합센서부·분석평가부·인력양성센터를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과 개방형 협력을 통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반도체, 나노메디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사회적 이슈 해결과 연구개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나노기술 종합인프라 기관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수요 발굴 노력으로 팹공정 서비스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선제적인 장비 성능 유지, 공정·플랫폼 구축, 기술개발사업 공동참여 등으로 2019년까지 2만 7,909명(이용기관 6,187개) 연구자를 대상으로 14만 1,727건의 연구 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장비 이용 26만 4,687건)를 제공하여 연구개발, 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술개발 성과가 제품화로 연결될 수 있는 상용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2019년까지 451건의 상용화 지원, 공정(양산)기술 27건을 이전함으로써 신속한 상용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 서비스 제공 이후 서비스 건수, 이용기관 수 등이 10배 가까이 증가함으로써 인프라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시설 장비 현장실습 중심의 인력양성을 통해 2019년까지 산업체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을 2,589명을 배출함으로써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함께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나노종합기술원은 끊임없는 서비스 마인드와 기술개발을 통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연구성과 실용화, 전문인력양성 등에 기여하며 국내 최고의 나노 인프라 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대응, 시스템반도체 산업육성, 반도체 공정기반 나노메디컬산업 육성 등 정부 연구개발정책과 산업체 수요를 적극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노종합기술원은 세계 산·학·연 연구자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설·장비 인프라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팹공정 서비스 고도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등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 확대, 기초·원천연구의 결과를 사업화까지 성공시키는 나노기술 R&DB 거점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Korea Science Academy 1990~2021

인류사회에 공헌할 창의적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세계 최고의 과학영재교육기관으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능력과 소질에 따라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인류사회에 공헌할 창의적 글로벌 리더 양성의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국내 과학영재 교육을 선도해오고 있으며, KAIST와의 연계 속에서 창의·열정·봉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도모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과학영재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0년 9월 부산시교육청 산하의 부산과학고등학교로 설립된 후 1998년 3월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02년 미국·러시아·이스라엘·태국 영재학교와의 연이어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시행에 의해 2003년 3월 국내 최초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 7월 교명을 현재의 한국과학영재학교로 변경했다. 이후 국가 수준의 전주기(全週期) 과학영재 교육 체제 구축 및 KAIST와의 교육·진학 연계성 강화, 과학영재 교육 수준 제고 등의 차원에서 2009년 2월 KAIST 부설 학교로 전환되었다.

2010년 영국 Camborne Science and International Academy, 말레이시아 Alam Shah Science School과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교류를 확대했으며, 이후 싱가포르·중국 등으로 협력을 확대했다.

현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4개의 학부(수리정보과학부·물리지구과학부·화학생물학부·인문예술학부)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4개의 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130명(교원 66명, 직원 64명) 및 재학생 400명 내외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최초의 과학영재학교로서 학습자 중심의 선도적 과학영재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타 영재학교 보급을 통해 과학영재 교육 기반 강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무학년 졸업학점제, 대학 수준의 속진·심화 교과, 단계별·수준별 교육연계 창의연구활동, 학생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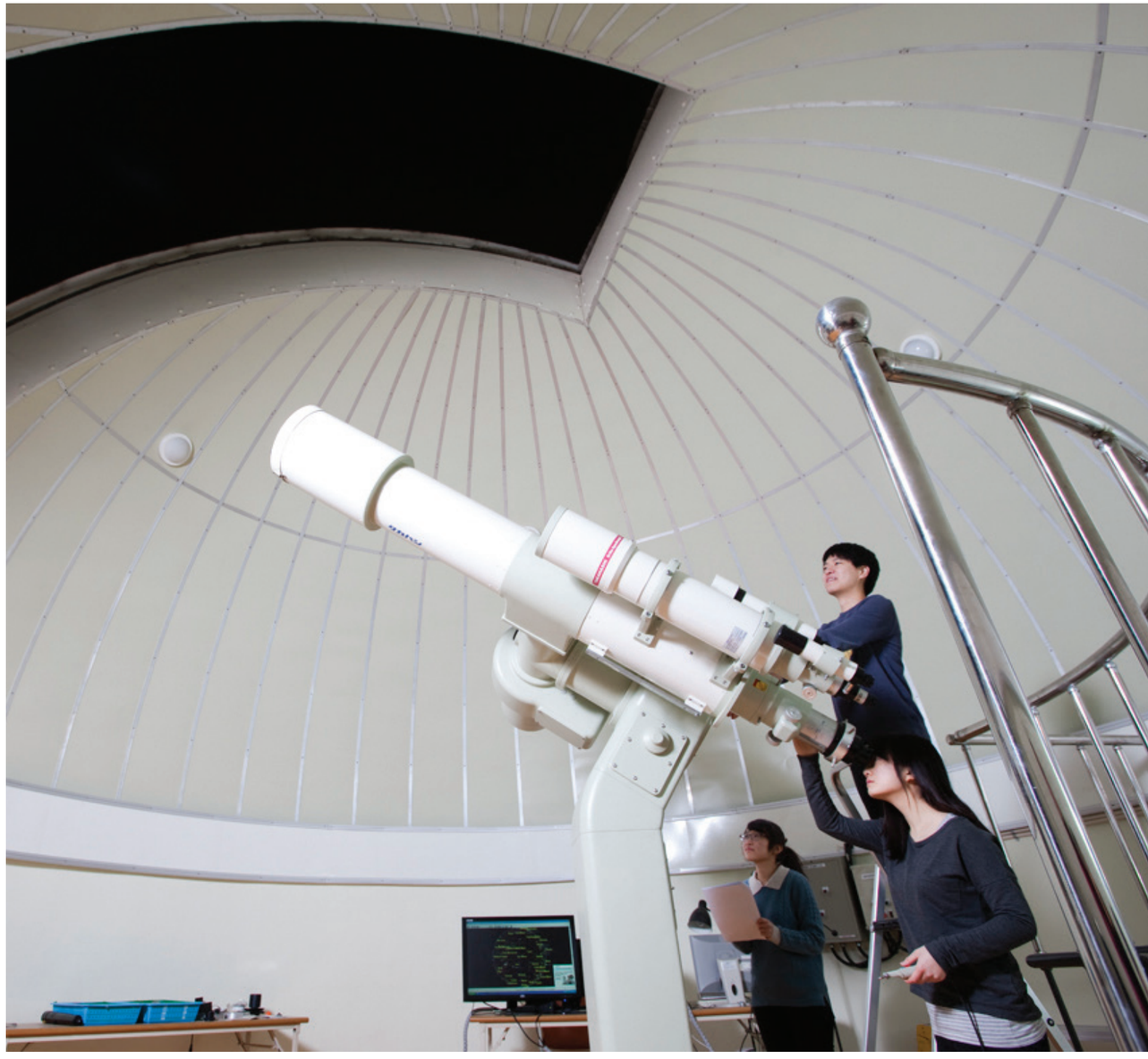
한국과학영재학교

중심의 리더십 프로그램, 드림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Maker 교육 등 학습자 중심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학영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공교육 내에서의 과학영재 교육 역할모델이 되었고, 복수의 영재학교 체제 형성에 기여했다.

특히 KAIST 부설화를 통해 전주기적 과학영재교육 모델 구축 및 KAIST와의 다양한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교-대학의 선도적 연계 사례를 제시했다. KAIST 부설화는 고교 수준 과학영재 교육과 과기특성화 대학의 연계를 강화한 국내 최초의 시도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사례로서, 이를 기반으로 KAIST 교수의 강의 지원 및 학생 창의연구활동(R&E, 졸업연구 등) 지도, KAIST 캠퍼스를 활용한 Honors' Program 운영, 교원 연수 등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 및 국제적 안목 고양과 더불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화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외국인 학생 선발 및 교육 제도를 통해 현재 12개국 3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10년간 졸업생(누적 11개국 69명)의 상당수가 KAIST와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 국내대학으로 진학함으로써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조기 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수·과학 전문교과를 포함하여 8명의 외국인 교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영어로 강의를 운영하고 내·외국인 학생과 교원이 소통 및 동화되는 캠퍼스 국제화를 실현했다. 또 11개국 21개의 해외 영재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교류 및 학술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 과학영재학교협의체(ISSN)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선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과학영재학교의 설립목적 및 국가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이공계열 대학 진학 장려를 위한 적극적 지도 및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영재학교 전환 이후 현재까지의 졸업생(누적 2,103명) 중 대학 진학 학생의 99.5%가 이공계열로 진학함으로써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재학생 생활모습

4. 문화 및 후생복지

학술문화관

KAIST Library 1971~2021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과
과학기술지식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서관

KAIST 도서관은 1971년 서울 홍릉캠퍼스에서 한국과학원(KAIS) 도서실로 출발하여, 1983년 과학도서관, 2013년 중앙도서관, 2018년 학술문화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다. 1990년 KAIST가 대전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과학도서관도 함께 신축 이전했으며, 2018년 4월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문화공간을 신축 연결하여 현재의 학술문화관으로 개관했다. KAIST 도서관은 도서관과 문화관, KAIST비전관으로 구성된 학술문화관과 학부생을 위한 교양분관, 문지캠퍼스의 문지도서관, 서울 경영대학도서관 등 총 4개의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3년 8월 30일 한국과학원 준공 당시 도서관은 강당·학생회관·식당 등과 함께 제1호관 4층에 1,157m²(350평) 규모로 개관했으며, 약 10년 후인 1983년 7월에 과학도서관으로 격상되었다.

1986년 3월 대전 대덕캠퍼스에 6,840m²(2,069평)의 단독 건물로 개관한 학부도서관은 국내 대학도서관 최초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했으며, 개관 시부터 완전 개가식 도서관 체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 활용능력 초창기 시절인 1986년부터 약 2년 동안 국내 최초의 도서관업무자동화시스템(KITLAS)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했다. 과학기술 전문도서관에 적합한 이 시스템은 1988년 11월 '도서관정보협력망의 발전 방향과 운영'이라는 주제로 전국의 도서관 관계자 663명이 참석한 가운데 KAIST 강당에서 개최된 제26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공개되었다.

KAIST 도서관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도서관 소장자료 종합목록 구축사업인 '과학기술종합목록(UNION DB)' 구축사업을 수행했다. 온라인 종합목록 구축 및 서비스, 온라인 공동편목시스템 개발 및 연계서비스 등을 통해 1998년에는 책자형 과학기술도서종합목록을 발간했다. 이 사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종합목록시스템 구축 벤치마킹 대상이 된 동시에 연구소 간 상호대차, 정보교환 등 우리나라 정보 공동활용의 초석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을 지향하는 가운데,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 동안 과

학술문화관

학기술도서종합목록 구축을 위한 인프라인 온라인 분담목록시스템(UNIX 버전)을 개발했다. 또 1994년에는 호스트 중심의 UNIX 시스템인 도서관업무자동화시스템을 교체(OR2000)했고, 1997년에는 국내 최초의 산·학·연 공동 개발시스템인 한국형표준도서관리시스템(Maestro)을 개발하여 오픈했다. 국내 도서관 정보화를 선도해 오던 KAIST 도서관은 1997년에 전산소와 통합하여 종합정보본부를 발족했으며, 본부 내 소속 직원은 100여 명에 이르렀다.

도서관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정보통신부 연구기반조성사업인 '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구축-과학기술전자도서관 구축 중심' 과제를 수행했으며, 그 수행 결과물이 2001년 5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과 전자저널국가컨소시엄(KESLI)이었다. 국내 최초의 학술정보 포털 서비스인 NDSL 시스템을 통해 국내 520여 개 교육·연구기관들에 분산 소장되어 있던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서비스를 자동화하여 정보자원 활용을 극대화했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NDSL과 KESLI 주관기관이 KAIST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으로 이관되었다.

한편 1998년 3월 ICU 개교와 함께 오픈한 ICU 도서관은 화암동 캠퍼스를 거쳐 2004년 신축된 문지동 캠퍼스로 이전했다. 이후 2009년 KAIST와의 통합으로 지금의 문지캠퍼스 도서관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장서 약 36만 권 수용 가능한 문지 보존서고를 구축했다. 2000년대 들어와 2000년 1월 종합정보본부가 과학기술전자도서관으로, 2003년 9월 과학기술전자도서관이

1995년 중앙도서관

다시 학술정보처로 변경되었다. 2003년 7월에는 교수 및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학술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Web 기반의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개발하여 오픈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Client-Server 기반 시스템에 비해 다양한 학술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지원했으며, 특히 개인 이용자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강화하고 대전 본원과 서울캠퍼스에 분산 소장된 정보의 통합관리 및 서비스를 지원했다.

2005년 6월에는 민자유치비를 투입하여 국내 대학 최초로 정보 휴식문화 복합공간인 인터넷 북카페를 개관했다. 총 496m²(150평) 규모의 이 인터넷 북카페는 서점·카페·인터넷 등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시설을 자유롭게 개방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정보문화공간'으로 활용되었다. 2007년 12월에는 교양분관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기록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던 2000년대에 들어 KAIST에도 기록관리 업무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2006년에 기록보존실을 구축했고, 2007년 기록관 구축 ISP 사업을 거쳐 2008년 6월에 도서관 내에 기록관리팀을 신설했다. 2013년 조직 슬림화로 학술정보개발팀에 통합될 때까지 KAIST의 기록관리 업무 기반을 다졌으며 2010년에는 기록관리업무 우수기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기록관리 업무 전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자문서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사료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연구 분야에 대한 기록관리로 확장하여 전자연구노트시스템과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까지 개발·운영하게 되었다.

2007년 7월에는 KAIST가 국내 최초로 MIT DSpace 시스템을 채택하여 구축한 Open Access Self-Archiving 기반의 기관 레포지터리인 KOASAS(KAIST Open Access Self-Archiving System)를 개발 오픈했다. KOASAS는 KAIST 연구 결과물에 대한 연구성과 확산(인용 횟수 증가)과 KAIST의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KAIST에서 생산되는 학술논문·학술활동·학위논문·특허 등을 수집·보존·공개하고 있다.

2010년에는 국내 최초의 개인화전자도서관시스템(iLibrary)을, 2011년에는 국내 최초의 주제별 리소스 가이드 LibGuides를, 2012년에는 모바일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2019년에는 최신 IT 기술과 디자인 트렌드를 적용하여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니코드와 표준개발프레임워크 기반의 신규 전자도서관시스템을 각각 개발하여 오픈했다. 2012년 6월에 오픈한 KAIST 연구성과관리시스템(RIMS)은 KAIST의 연구성과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등록·관리하여 대학정보공시, 기관 내·외의 각종 평가 및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었다.

이후 2014년 연구성과분석서비스(RIMS Analysis) 개발에 이어 2018년에 개발한 연구자 및 연구성과 통합검색시스템(RIMS Discovery)는 교내 분야별 전문가를 찾기 위해 각 학과 홈페이지 또는 개별 연구실을 방문할 필요 없이 키워드 한 번으로 연구자와 연구실, 연구성과 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서관 업무 영역을 연구성과 관리까지 확대한 사례로, 국내 주요 대학의 연구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KAIST 발전재단이 주관하고 총동문회가 후원하여 2011년 10월 시작한 '디딤돌 캠페인'은 문화와 소통을 위한 학술정보문화관 건립 및 운영 기금 모금 캠페인으로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을 지원했다. 2018년 4월 도서관과 문화관, KAIST비전관으로 구성된 학술문화관이 정식 오픈함에 따라 2019년 9월 종료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465명이 참여했고 모금액이 약 8억 7,000만 원에 달했다.

KAIST 도서관은 2010년대 이후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했다. 2011년 11월 제1회 도서관 문화기획 시리즈를 시작으로 인문학 강좌,

실내악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성원의 인문학적 소양과 정서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해외 출판사 에디터를 초청하여 학술저널 작성 및 투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도서관 학술기획 시리즈도 진행했다. 2018년 11월에는 문화·휴식·소통 공간으로써의 역할 확대를 위해 제1회 학술문화관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전시·강연·영화상영·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실시했다. 도서관이 주최한 문화행사는 2018년 12회, 2019년 17회에 달했으며 각 4,235명, 5,809명이 참여했다. 2020년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하여 유튜브를 활용한 요리강좌, 온라인 독서토론 등 비대면 이벤트에 주력하고 있다.

2013년 9월에는 조직 변경을 통해 학술정보처가 학술문화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14년에 들어와 도서관 소장 장서 수 50만 권을 달성했다. 2015년 2월에는 제1회 도서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인쇄도서 전시 및 전자도서 이용방법을 안내했고, 이후 연간 행사로 자리 잡으면서 책 필사(筆寫) 이벤트, 북 토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가하여 개최하고 있다.

대외 협력사업도 강화하여 2014년 4월 KAIST·GIST·DGIST 3개 기관 간 MOU를 체결하여 과기특성화대학 학술·연구성과 유통 및 공유 협력에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했다. 2015년 12월에 3개 기관 소장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BIC STAR Library 포털을 개발 오픈했으며, 2017년에는 참여기관을 UNIST까지 4개 기관으로 확장했고, 연구성과 공유를 위해 KAIST RIMS를 표준화하여 참여기관 모두에 확산 구축했다. 2019년에는 참여기관의 연구자와 연구논문 정보를, 2020년에는 연구실 정보까지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협력 연구를 원하는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2015년 4월 충남대학교와 도서관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하여 학술정보자료를 공동 이용했다.

2015년 9월부터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및 신축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을 진행했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 RFID 부착, 보존서고 구축, 건축공사, 가구와 IT 기기 구입, 교양분관 내 임시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이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2018년 4월에 오픈했다. 기존 중앙도서관이 정적인 학술연구공간 도서관과 KAIST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역사와 비전을 공유하는 KAIST비전관으로 리모델링되었고, 신축공간은 동적인 문화창조공간 문화관으로 건립되었다. KAIST비전관은 INTRO ZONE, HISTORY ZONE, INNOVATION ZONE, VISION ZONE 등 4개 존으로 구성되었고, 문화관은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정근모홀과 스카이라운지, 양승택오디토리움, 소통과 협업을 지원하는 사색창조실, 콜라보레이션룸, 글로벌라운지, 멀티미디어콤플렉스와 커뮤니티홀, 해커톤랩, 아이디어팩토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2020년 10월 도서관 소장 장서 수 86만 권을 돌파한 학술문화관은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과 과학기술지식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서관'이라는 미션 아래 '최상의 학술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활관

KAIST Dormitory System
1972~2021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제공으로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하다

KAIST는 국가 발전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의해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 이공계 특수대학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설립취지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이를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이 필요했는데, 예를 들면 병역특례, 경제적 혜택(폭넓은 장학금 수혜) 그리고 학생 전원에 대한 생활관 제공 등이 그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 홍릉캠퍼스의 한국과학원 시절인 1972년 학생생활관 3호관을 시작으로 1975년 6호관 준공, 1979년 3, 6호관 증축 등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생활관을 건설했으며, 대덕에는 과기대 학생을 위해 1985년 2개 동(가, 나동), 1986년 2개 동(다, 라동), 1987년 2개 동(마, 바동)의 학사생활관을 각각 준공하여 활용했다.

이후 1989년 홍릉본원의 대덕 이전을 계기로 대전에 현재의 생활관을 완비했다.

특히 1993년에는 기혼자 학생의 편의를 위해 인근 지역인 궁동에 기혼자아파트 1개 동을 준공하여 30세대가 입주했으며, 1995년에 1개 동을 추가 건설, 46세대가 추가 입주할 수 있게 했으나 현재는 2개 동에 110세대가 입주할 수 있다.

이공계대학에 여학생 지원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학사과정 여학생 전용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7년에는 최신시설을 갖춘 '아름관'을 준공하고 470명의 여학생이 입사했다. 한편 일부 생활관에 학부모실을 마련하여 원거리에서 찾아온 학부모들이 묵을 수 있도록 했다.

초기의 생활관 운영방식은 서울 생활관이 독립채산제로, 대전생활관은 대학 직영체제로 각각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서울생활관의 적자가 심화 됨에 따라, 1990년 8월 1일부터는 적자 해소의 일환으로 관리 인원 감축, 생활관비 인상과 함께 관리운영체제가 직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최대한 입사생의 자율적 운영을 권장하면서, 동시에 공동시설인 생활관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2년에 '생활관 생활수칙'을 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1993년 3월 1일부터는 대덕본원의 모든 생활관에 대해 기존 정규직 사감이 직영 관리하던 체제에서 관리위탁용역 및 청소용역의 계약에 의한 위탁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생활관 비용은 1996년까지 학사과정 학생에게는 전액 면제하던 것을, 생활관 유지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충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석·박사과정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부과했으며 단계별로 수차례 인상되었다.

생활관 배정 방식은 입사신청자가 열을 지어 이른바 '제비뽑기'를 하는 추첨방식을 채택하다가, 2000년도에 '재학

나들관, 여울관

생 생활관 운영프로그램 개발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선정된 EDPS(Electronic Dormitory Processing Syste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01년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추첨, 배정하는 선진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2005년에 원룸 형태의 현대적 시설을 갖춘 신축기숙사인 다솜관(여학생 전용)이 준공되었고, 이듬해인 2006년도에 희망관이 준공되었다. 학생 수가 증가하여 생활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11년도에 미르관과 나래관(여학생 전용), 2014년도에 나들관, 여울관(여학생 전용)이 준공되었다. 신축 기숙사는 화장실이 포함된 원룸 타입 1인실 및 2인실이 있고, 일반형 2인실이 있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요금도 다양하게 책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2009년도에 KAIST와 ICU와의 통합으로 문지관과 화암관이 편입되었다. 2014년도 가을학기부터 생활관 배정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KDS(KAIST Dormitory Sytem)을 새롭게 구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생활관 현황 (2020년 가을학기 기준)

생활관 건물명	건설년도	총면적(㎡)	수용인원	입사대상
사랑관	1985	5,460	408	학사과정 남학생
소망관	1985	5,192	274	학사과정 남학생
성실관	1986	3,839	274	학사과정 남학생
진리관	1986	3,794	274	학사과정 남학생
신뢰관	1987	4,476	272	학사과정 남학생
지혜관	1987	3,801	272	학사과정 남학생
아름관	1997	7,563	472	학사과정 여학생
동측 7개동 (세종관)	1989	17,419	1,161	전체
서측6개동 (갈릴레이관)	1989	12,472	842	대학원 남학생
나눔관	1989	3,166	40	남학생
원내@ 1개동	1989	1,214	73	대학원생 남/여
희망관(신축)	2006	19,075	684	남학생
다솜관(신축)	2005		316	여학생
미르관(신축)	2011	12,359	352	남학생
나래관(신축)	2011		248	여학생
나들관(신축)	2014	11,508	350	대학원 남학생
여울관(신축)	2014		250	대학원 여학생
문지관 (문지캠퍼스)	2004	10,591	496	전체
화암관 (화암동)	2002	9,144	504	남학생
궁동@ 2개동	1993	5,622	110	기혼 대학원생
총 계		**136,695**	**7,672**	

기숙사

문지관

회암관

체육시설

1990년대 이전까지 KAIST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체육관이었다.

대강당 지하 1, 2층에 자리 잡은 수영장은 1986년 과학기술대학 개교 당시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 활동, KAIST 가족의 수영 저변 확대 및 체력증진에 밑거름이 되어 왔다.

수영장은 개장 때부터 KAIST 구성원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했으나 1998년 10월부터 유료로 전환하여 매년 교직원과 학생 약 5만여 명이 사용했다.

또 지하 1층에 자리한 304㎡(92평) 규모의 체력단련실에는 30점의 체력기구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남녀 샤워실을 겸비하여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영장은 체육동아리인 '가오리'(흰 수영 동아리)가 국내외에서 열린 각종 대회에서 수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데 큰 몫을 차지하는 장이 되었다. 1991년 아시아선수권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대한민국 체육훈장을 수상한 김진수 선수(2000년 박사 졸)를 배출하기도 했으며, 이를 계기로 '가오리'가 주관하는 '과기원 수영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대학체육관은 1985년에 완공하여 운영하던 중 1992년에 각종 시설물을 교체하여 새롭게 단장했다. 학부 학생의 교과 활동(교양체육 수업)과 체육동아리의 활동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부대시설로 농구장·배구장·배드민턴장과 300석의 스탠드를 비롯하여 탁구장 2개소, 체력단련실 및 샤워실, 탈의실이 있었다. 이곳은 원내의 크고 작은 체육행사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매년 열리는 산·학·연 협동 전시회인 SEE-KAIST 행사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서측 학생회관 건물 내 지하에 자리 잡은 원체육관은 1990년에 완공하여 2000년에 일부 시설물을 교체했으며, 주로 석 · 박사 과정 재학생들이 이용하는 동시에 원생동아리 '카이저'(농구 동아리), 택견, 교직원 배드민턴회 등에서도 훈련장소로 사용했다. 부대시설로는 1층에 탁구장, 지하에 농구·배구·배드민턴장 및 라켓볼장 그리고 370석의 스탠드가 마련되었다. 원체육관은 각 실험실·동문·동향(同鄕)별로 체육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1990년대 이후 KAIST 체육시설은 매우 다양화되었으며,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류근철 스포츠 컴플렉스

2010년 7월 6일 개관한 류근철 스포츠 컴플렉스는 교내 구성원의 건강 증진과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서, 연면적 1만 4,668㎡(4,435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3,000명을 수용하는 관람석, 구기 종목을 위한 주경기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스포츠컴플렉스

| 류근철 스포츠컴플렉스 내부시설 |

주경기장 및 부대시설(지상 1층)
연면적 5,015m²(1,517평): 체조실·무예실·라커실·샤워실·체육행정실 포함

시설 및 장비: 중앙무대, 농구코트 2면, 배구코트 1면, 배드민턴코트 6면, 전자식 농구대 3조, 배구지주 1조 등

관람석 3,000석

김동원 피트니스센터(지상 3층)
연면적 529m²(160평)

시설 및 장비: 트레드밀(20대), 유산소 운동기구 및 체력기구 70여 종

골프학습장(지상 3층)
연면적 595m²(180평)

시설 및 장비: 6m 거리의 일반타석 18타석, 스크린골프 2개소, 퍼팅연습장 등

운동처방실(지상 2, 3층)
연면적 298m²(90평, 운동처방실 포함)

시설 및 장비: 기초체력 측정 장비 9대 및 체성분 측정기 외 8종

무예실·체조실(지상 1층)
연면적 800m²(242평, 무예실, 체조실, 동아리방 포함)

시설 및 장비: 무예실(태권도·유도) 1실, 체조실 3실, 동아리방 3실

조깅트랙(지상 3층)
시설 및 장비: 고무우레탄 200m 조깅트랙 2레인

탁구장(지상 1층)
시설 및 장비: 탁구대 2대

동측 운동장
동측 운동장의 주 용도는 축구장으로서, 연면적 5만 6,198m²(1만 7,000평)에 인조잔디 축구장 및 본부석(350관람석),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축구장 주변의 트랙에는 우레탄 400m 육상경기 트렉 4레인 및 인라인 스케이트 1레인이 갖추어져 있다.

북측 운동장
북측 운동장의 용도는 축구장과 야구장, 풋살 경기장이다. 인조잔디 축구장은 연면적 1만 3,223m²(4,000평), 정규 규격의 인조잔디 야구장은 연면적 1만 3,223m²(4,000평), 풋살 경기장은 연면적 1,587m²(480평) 규모이며, 풋살 경기장에는 카드-키 출입 풋살 경기장 2개소(펜스 설치, 족구장 1개소 별도)가 있다.

서측 체육관
서측 체육관 주경기장은 연면적 1,091m²(330평)의 실내체육관으로서, 실내 농구·배구·배드민턴 코트장 및 관람석 370석을 갖추고 있다. 라켓볼장은 연면적 76m²(23평) 규모로 지하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162m²(49평)으로 지상 2층에 위치한 탁구장에는 탁구대 5대가 비치되어 있다.

수영장
연면적 860m²(260평) 규모로 지하 2층에 위치한 수영장에는 25m * 4레인의 풀장, 부대시설, 남녀 사우나실 및 샤워실이 있으며, 연면적 304m²(92평)로 지하 1층에 있는 별도의 체력단련실에는 유산소운동기구 및 체력단련 기기 장비 30여 종, 남녀 샤워실 및 락커실이 있다.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용도별로 3군데에 마련되어있다. 연면적 2,975m²(900평) 규모의 교직원 테니스장에는 5면의 클레이코트, 야간조명 시설, 샤워실, 락커실이 있으며, 연면적 3,061m²(926평) 규모의 서측 테니스장에는 5면의 케미컬 코트 및 야간조명 시설이 있다. 연면적 3,306m²(1,000평) 규모의 동측 테니스장에는 5면의 클레이코트, 야간조명 시설 외에 1면의 별도 연습코트가 있다.

산책로 야외 운동기구장
유성구청 지원으로 마련한 야외 운동기구장은 오리연못 옆 어은동산에 있으며, 크로스컨트리, 트윈트위스트, 스텝사이클, 롤링웨이스트, 워밍암 등을 갖추고 있다.

문지캠퍼스 체육시설

문지캠퍼스에는 연면적 5만 5,180m²(1만 6,692평) 규모의 옥외 체육시설이 있으며, 일반축구장·잔디축구장·농구장·테니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시설은 클레이 축구·야구장, 잔디축구장, 농구코트장, 4면의 테니스장(야간조명 시설) 등이다.

연면적 1,904m²(576평) 규모의 옥내시설로는 농구장, 인공암벽 등반장, 체력단련실, 골프연습장이 있으며, 인공암벽 등반장은 가로 18m * 높이 9m이며, 체력단련실에는 체력단련기구 15종, 골프연습장(12타석) 등이 있다.

홍릉캠퍼스 체육시설

홍릉캠퍼스에는 3면의 테니스장, 농구·배구·족구를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 옥외탁구장(2대), 골프연습장(5타석), 두 개의 피트니스(24종, 14종) 등이 있다.

피트니스센터

학생의료상조회

1985~2021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영위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다

학생의료상조회는 재학생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1985년 9월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설립 당시 진료비 일부 지원 목적으로 운영된 학생의료상조회는 현재 재학생의 진료비뿐만 아니라 학내 감염병 예방과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일반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연구활동 중 감염될 수 있는 유해물 관련 특수 건강진단까지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각종 상해보험에 가입, 재학생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재학생의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영위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설립 당시 학생의료상조회 회원은 약 1,200명으로 출발, 2020년 가을학기 현재 약 8,300명(약 90% 가입)의 재학생이 가입되어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당시 의무가입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선택가입으로 전환되었지만 가입률은 90%대를 유지하고 있어 재학생들에게 높은 호평을 받고 있다.

학생의료상조회 재원은 학생이 납부하는 회비(40,000원/학기당), 대학본부 지원, 기타 의료지원 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재학생 진료 및 치료비 지원, 건강진단 실시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현황은 다음 같다.

회원 가입 현황

(단위: 명)

구 분	1985년도	2000년도	2020년도	비고
학 사	-	2,417	3,026	2020년 가입률 약 90%
대학원	1,200	2,153	5,269	
계	1,200	4,570	8,295	

재학생 진료 및 치료비 지급기준

구 분	1985년도	2000년도	2020년도	비고
급여치료비	60%	70%	70~100%	부상치료비 100% 지원
비급여치료비	-	일부 항목 30%	30~50%	

※ 70~100%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재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재학생 무료 건강진단 실시

구 분	2000년도	2020년도
일반건강진단 (연 1회)	• 검사항목 : 약 50여종 • 수검률 : 약 60%	• 검사항목 : 약 60여종 • 수검률 : 70%
특수건강진단 (연 2회)	• 미실시	• 검사항목 : 유해물질관련 검사 • 수검률 : 약 91%

건강관리실 현황

구 분	1985년도	비고
시설규모	• 약 10평	• 약 50평 / 시설 및 환경을 현대화로 개선
근무인원	• 주간 2인	• 주간 2인, 야간 1인, 주말 1인
기능	• 응급처치 • 일반의약품 제공 • 의료상담	• 응급처치 • 일반의약품 제공 • 의료상담 및 건강관리 교육 등 • 체지방 측정(비만관리 및 상담 등) • 다양한 의료관련 캠페인 진행
방문자/1일	약 20명	약 80~100명

KAIST 클리닉

KAIST Clinic 2010~2021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고품질 진료 및 건강 서비스

KAIST 클리닉 파팔라도 센터는 2007년 2월 닐 파팔라도 MEDITEC사 회장이 메디컬센터 설립을 위해 기부한 발전기금 250만 달러를 토대로 설립되었다.

2010년 5월 메디컬센터 건물을 준공하여 같은 해 9월 'KAIST 부속의원'으로 개설 인가를 받아 개원하였으며, 10월부터 학생 건강검진을, 11월부터 외래 진료를 시작했다. 2011년 4월에는 건강증진센터를 신설했으며, 2011년부터 유성선병원 · 을지대학병원 · 건양대학교병원·충남대학병원 등과 연이어 협력 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KAIST 클리닉 파팔라도 센터

KAIST 클리닉은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근거하여 학생·교직원 및 가족 등 교내 구성원의 육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개원했다. 현재 10개 진료과목(가정의학과, 내과, 소화기내과, 치과, 스트레스 클리닉, 안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신경과, 여성건강의학과 등)을 운영 중이며, 아울러 건강증진센터·보건관리실·내시경실·물리치료실·진단검사실·영상촬영실을 설치·운영해 질병의 예방, 치료 및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KAIST 클리닉은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연간 6만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KAIST 가족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다. 클리닉은 좋은 진료서비스 제공 외에도 질병 예방 및 보건교육, 구성원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건강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신건강 검진, 마음건강 증진 강연, 집단 및 개인상담 프로그램, SBC(Stop by Chat, 무료 심리상담) 및 응급상황 시 위기개입 등 다양한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HAPPY CAMPUS' 환경 조성과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업과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고품질 진료 및 건강 관련 서비스 운용을 통해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2011년부터 기획재정부가 매년 주관·시행 중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7년 연속 교내 1위를 달성했다.

또한 2015년 KAIST 건강정책위원회에서 감염병 예방 등의 건강관리 업무를 위해 KAIST 클리닉 내 '보건관리실'을 신설하고 전담 의료진과 보건관리자를 신규 선임했다. 이후 교내 주요 감염병에 대해 자체 역학조사, 접촉자 모니터링, 추적진료, 관련 검사 의무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담하면서, 신속한 감염병 관련 정보 제공 등 교내 보건 관리의 허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며 교직원 및 재학생의 건강한 삶과 미래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5. 행정발전교육센터

'세계적 수준의 전문 행정인력 양성'의 미션과 행정발전교육센터 설치

KAIST는 2013년 6월 행정아카데미 설립·운영 초안을 마련하고 2014년 4월 1일 KAST 교육원 내에 행정발전교육센터를 설치했으며, 2018년 10월 8일 행정처 행정부 내로 소속을 변경했다.

행정발전교육센터는 행정 역량 강화·발전 계획 수립, 행정 종합 교육훈련 계획 수립·운영, 행정 분야별 전문 강사 선발·지원, 행정 교육과정 수립·운영 및 세미나·간담회 개최·운영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적 수준의 전문 행정인력 양성'이라는 미션과 'KAIST의 경쟁력 향상 및 직원의 역량 발현 고도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와 인재상을 지향하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목표 • 윤리행정·고객만족을 위한 책임감 함양 • 전문성을 갖춘 핵심 행정인력 육성 • 통합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인재상 • KAIST 비전 공유·높은 윤리의식·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책임감 있는 인재

•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능동적으로 습득하여 혁신을 주도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

• 열린 생각으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며, 통합적 사고력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창의적 인재

아울러 KAIST인으로서 가져야 할 공통가치 및 공직윤리와 요구되는 역량 함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가치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 **리더십 교육체계** : 해당 직급의 역할에 따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체계
- **계층 교육체계** : 직급별 직원상(像)을 기준으로 가치·직무·리더십 교육 등의 모든 형태로 구성된 교육과정 체계
- **공통직무 교육체계** : 직무 전반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체계
- **전문직무 교육체계** : 교무·인사·예산·회계·연구·시설·정보통신 등 전문 직무영역별 교육과정 체계
- **교양 교육체계** : 지식인으로서 함양해야 할 소양을 위한 교육과정 체계

행정 발전 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KAIST는 2010년, 2017년, 2018년 이후를 목표 시한으로 행정발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2015년까지의 기반 구축 및 학습문화 확산 단계에서는 체계적·지속적 교육을 통해 최고를 추구하는 전문행정가를 양성하기 위해 강의실 2실을 구축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수강신청, 강의평가 및 교육결과를 인사관리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해 행정교육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했다. 또 연간 5학점 이수제를 권장하여 직원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우수학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학습문화를 확산했으며,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간 25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동시에 외부 전문기관의 온라인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부족한 교육과정을 보완했다. 이밖에도 업무에 정통한 직원을 원내강사로 양성하여 모범적 실무경험을 공유하며 선후배 세대 간 행정 노하우의 축적·전수 활성화하고, 공통 · 필수 업무에 대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비(非) 전임직원을 포함한 다수의 행정인력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동시에 업무의 표준화를 도모했다.

2017년까지의 행정교육 체계 확립 단계에서는 단계적 합의를 거쳐 연간 5학점 이수제를 의무화하여 교양·기초부터 전문·리더역량까지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부서평가, 승진평가 및 해외연수 심사 등에 반영하여 참여도를 제고했으며, 주도적 경력개발을 유도하고자 했다. 또 역량별·직무별 15개 내외의 교육과정을 추가 개발하여 학점이수제 의무 시행에 따르는 교육과정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 단계에서 양성된 원내강사 및 업무별 전문가 등 학습 리더를 주축으로 CoP(Community of Practice), 직무 워크숍 등 실천적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조직을 활성화했다.

KAIST 행정교육 확산 · 보급 단계인 2018년 이후에는 KAIST가 운영하는 교육과정 수강정원의 10%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공유하여 행정인력의 동반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절대적 수요는 있으나 기관별 수강인원이 소수인 직무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기획·개발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또 우수한 KAIST 행정교육시스템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전파·확산시켜 공동의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행정도 과학이다 - 행정 선진화

KAIST는 2018년 3월 22일 '대학발전을 위한 행정의 역할과 혁신사례'를 주제로 글로벌 대학행정포럼을 개최했다. 행정처 주최로 열린 이 포럼은 KAIST 구성원을 비롯해 전국 대학의 행정인력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세계적 선진대학의 행정전문가 3인을 초청해 각 대학의 행정 선진화 사례를 공유하고 대학 행정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행정처장이 'KAIST 행정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덴마크공과대학 앤더스 자콥센(Anders Jacobsen) 인사팀장이 '덴마크 공대에서의 인사관리 선진화 사례', 미국 조지아공대 폴쿤(Paul Kohn) 입학처장이 '학생들의 성공을 위한 직원의 리더십 역할', 일본 교토대학 마사노부 모리타(Masanobu Morita) 부총장이 '교토대학에서의 직원 인사관리' 등의 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 미래전략실장 주도로 주요 행정팀장(**연구지원팀장·입학전형팀장·기술사업화센터장**)이 패널로 나서 각 대학들의 행정전문가와 함께 대학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 선진화 추진은 'KAIST 비전 2031' 선포를 맞이해 KAIST가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행정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과정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KAIST는 2019년 4월 16일 'KAIST 행정 선진화 발표회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KAIST 행정 선진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 발표와 함께, 행정선진화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활동 결과 보고 및 위원회에서 집필한 「행정도 과학이다」와 직원 기자단이 집필한 「교직원 K의 이중생활」 출판기념회를 겸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신성철 총장은 "행정직원들이 주체의식을 갖고 대학 행정에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도모하려는 모습은 우리 대학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KAIST의 세계적 명성에 걸맞은 대학 행정 역량을 갖추기 위한 다음과 같은 행정 선진화 4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1. 행정직원들이 기관 발전을 위한 당당한 일원으로서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갖는 '행정선진화 1.0'을 달성한다.
2. 주어진 업무 수행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정성을 다하며,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장인정신을 갖춘 '행정선진화 2.0'을 추구한다.
3. 매너리즘과 타성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에 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는 프로정신을 발휘하는 '행정선진화 3.0'을 구현한다.
4. 국제적 인식과 포용성을 갖고 세계인과 언어적·문화적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와 역량을 통해 '행정선진화 4.0'을 완성한다.

행정발전교육센터 개소식 2014.07.04.

Ⅱ

교육

EDUCATION

1. 학사조직의 변천

2. 학생 선발 정책 및 제도의 변천

3. 장학제도 및 병역특례

4. 교육지원 조직

1. 학사조직의 변천

한국과학원 설립 초기 개설 학과는 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생물공학과·수학및물리학과·재료공학과·전기및전자공학과·화학및화학공학과 7개였으며, 각 학과에는 석사 및 전문석사와 박사학위 과정을 두었다. 1973년 첫 신입생은 해외 유치 교수진의 귀국이 늦어진 생명공학과를 제외하고 6개 학과 총 106명이었다.

1978년 3월에는 수학및물리학과를 수학및물리학과와 전산학과로 분리·독립시키고, 화학및화학공학과를 화학과와 화학공학과로 분리하여 독립 학과로 개편했으며, 1979년 3월에는 항공공학과를 신설했다. 이어 1980년 3월에는 산업공학 분야에서 경영과학 분야를 분리, 경영과학전공으로 독립시켰다. 이로써 한국과학원은 10개 학과와 3개 전문석사과정을 둔 대규모 이공계 대학원으로 발전했다.

연도별 학사 조직

1972년 (7개 학과)	1979년 (10개 학과)	1982년 (14개 학과)	1983년 (8개 학부)	1986 (14학과, 1전공)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물리학과(이학부)	기계공학부	기계공학과 (항공공학전공 포함)
산업공학과	항공공학과	응용수학과(이학부)	산업공학부	산업공학과
생물공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과(이학부)	생물공학부	생물공학과
수학및물리학과	생물공학과	기계공학과(공학부)	수물학부	물리학과
재료공학과	수학및물리학과	항공공학과(공학부)	재료공학부	응용수학과
전기및전자공학과	재료공학과	산업공학과(공학부)	전자공학부	재료공학과
화학및화학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과	생물공학과(공학부)	화학부	전기및전자공학과
	화학과	재료공학과(공학부)	화학공학부	화학과
	화학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과 (공학부)		화학공학과
	전산학과	화학공학과(공학부)		전산학과
		전산학과(공학부)		핵공학과
		핵공학과(공학부)		경영학과
		경영과학과(공학부)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공학부)		생산공학과
				교양과정실

1981년 KIST와 통합 이후 1차 조직개편으로 이학부와 공학부로 구분한 총 14개 학과가 있었고, 1983년에는 학사와 연구를 통합하는 매트릭스시스템을 도입하여 8개의 학부를 구성하고 학부 안에 유사 연구 분야의 학사와 연구가 함께 운영되게 했다. 하지만 3년여 만에 매트릭스시스템을 폐지하고 KIST와 분리, KIT와 통합되는 1989년까지 학사부와 연구부로 기능을 분리하고, 학사부 내에 총 14개 학과, 1개 전공을 두었다.

1985년 6월, 한국과학기술대학(KIT) 설립 당시 학사조직은 자연과학부와 산업기술공학부로 구성되었으며, 그 아래 반도체 및 컴퓨터, 메커트로닉스, 유전공학, 신소재 등의 전공 분야가 있었다. 1989년 7월 KAIST와 KIT가 통합하면서 두 기관의 조직과 운영이 통합되었으며, 통합 이후 15개 학과, 1개 부로 학사조직을 구축했다. 이후 1991년 5개의 학부 체제로 개편하고 학부 아래 20개의 학과와 1개 부를 두었다. 자연과학부에 물리학과·생명과학과·생물공학과·수학과·화학과·교육과정부를 편제하고, 기계공학부에 기계공학과·원자력공학과·정밀공학과·항공우주학과를, 응용공학부에는 무기재료공학과·재료공학과·전자재료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를, 정보전자공학부에는 전기및전자공학과·전산학과를, 산업경영학부에는 경영과학과·경영정책학과·산업공학과·산업디자인학과를 편제했다.

학부 체제는 도입 이후 1996년 인문사회과학부과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신설, 1997년 기계공학부·산업경영학부·응용공학부·정보전자공학부가 공학부로 통합되는 등의 변화를 겪고, 2007년에는 단과대학 체제를 도입하여 4개의 단과대학(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경영대학·문화과학대학)을 구성했다. 이어 2008년에는 생명과학기술대학을 신설하여 5개 단과대학과 26개 학과를 구성하게 되었다.

2008년 학사조직 (5개 단과대학, 25개 학과/전공)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 수리과학과 / 화학과
생명과학기술대학	바이오및뇌공학과 / 의과학대학원 / 생명과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전공 / 해양시스템공학전공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 산업디자인학과 / 원자력및양자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과 / 전산학과 / 건설및환경공학과 / 항공우주공학전공 / 생명화학공학과
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 /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 테크노경영대학원
문화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과 / 과학기술정책대학원 / 문화기술대학원 /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경영과학과

2009년 3월 KAIST와 ICU가 통합됨에 따라 학사조직도 6개 단과대 28개 학과로 통합 편제되었고 이후 KAIST는 2008년 6월 나노과학기술대학원, 2010년 7월 과학기술정책대학원, 2010년 10월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설립에 이어 2013년 9월 미래전략대학원을 설립한 후 2015년 3월 문술미래전략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4년 바이오및뇌공학과는 생명과학대학 소속에서 공과대학으로 단과대가 변경되었으며 2015년 정보과학기술대학은 공과대학으로 단과대가 통합되었다. 같은 해 정보보호대학원은 전산학부로 통합되었으며 2016년 지식서비스공학과는 산업및시스템공학과로 통합되었다. 또한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소속의 기술

2020년 12월 기준 학사조직 (5개 단과대학, 27학과/학부/대학원)	
단과대학	학 과 명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수리과학과
	화학과
	나노과학기술대학원(2009신설)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과
	의과학대학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 기계공학과 | 항공우주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산학부
	건설및환경공학과
	바이오및뇌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2011 신설)
	AI대학원(2019 신설)
	EEWS대학원(2009 신설, 2020. 4. 폐지)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부
	문화기술대학원
	문술미래전략대학원(2015 신설)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경영대학	경영공학부
	기술경영학부
융합인재학부	융합인재학부(2019 신설)

경영학부는 서울 경영대학으로 단과대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9년 3월과 4월 융합보안대학원·AI대학원을 각각 설립,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WCU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던 EEWS대학원은 2020년 4월 폐지했다.

2. 학생 선발 정책 및 제도의 변천

학사과정 선발정책 주요 변화

KAIST 학사과정 선발의 큰 특징은 필기시험 외에 창의성 검사, 심층면접 등을 도입해온 혁신적인 전형절차에 있다. 또 무시험 전형과 무학과 모집 등은 학생들이 입학 후 자유롭게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이다.

1986년 9월 초 처음 학부별 모집에 들어가 9월 말 실시한 1차 전형 필기시험은 국어·영어·수학을 공통으로 실시하되, 학부별로 과학 과목과 공학 과목에 배점을 달리하는 형식이었고, 2차 전형에서는 IQ 검사, 창의성 검사, 면접을 실시했다.

1991년부터는 국내 최초로 신입생 전원을 무학과 모집(산업디자인학과 별도)으로 선발했다. 또 1992학년도에 처음으로 특별전형(무시험 전형)을 도입하고, 매년 선발 규모를 확대하여 1998학년도에는 전원을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했다.

이 제도는 필기시험을 통해 선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전인평가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계기로 평가되었다.

1997학년도에는 3단계 전형 방식을 도입하여 1차 전형에서 성적표·학교생활기록부 외에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우수성 입증자료(모의고사 성적표, 상장) 등을 토대로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모집정원 60% 이내 인원은 2차 전형(필기시험)을 면제했다. 2차 전형은 필기시험(국어·영어·수학·과학)으로 시행했으며, 이어 3차 면접을 실시했다.

1998년부터 전형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공인영어시험성적을 서류평가점수에 포함했다. 1998학년도에는 정시를 도입했으며, 2007학년도에는 외국인 전형(정원 외 모집)을 도입했다. 2008학년도에는 2단계 면접방식(전문성, 인성면접)을 3단계 종합역량평가방식(그룹토의, 개별면접, 개인 과제 발표)으로 변경했다.

이어 국내 대학 최초로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선발방식을 도입했으며, 2010학년도부터는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했다. 현재까지 정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입생을 이 방식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또 2019학년도부터 동문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동문명예입학사정관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동문의 시각을 학생 선발 과정에 도입하는 동시에 모교에 대한 동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에는 소수 정예의 최우수 과학인재를 KPF(KAIST Presidential Fellowship, 총장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함으로써 이공계 최상위권 고등학생들의 진학을 유도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로 육성했다. 처음 16명 선발을 시작으로 현재는 매년 30명 내외를 선발하고 있다.

• 학사과정 입학전형(2021학년도 기준)

선발 방향 | C3(도전·창의· 배려) 정신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

인 재 상
-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식탐구가 즐거운 학생
-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열정과 도전 의지를 가진 학생
- 높은 주인의식과 협력정신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려는 학생
- 윤리의식을 지니고, 인류를 위해 환경을 깊이 생각하는 학생

주요 특징
- 특별법대학: 특별법인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어 선발 정책 수립에 있어 자율성이 높음, 수시·정시 지원 기회 제한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타 대학의 지원·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무학과 모집: 모든 신입생을 학과의 구분 없이(단일계열) 모집하며, 학생들은 입학 후 1학년 말에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고교 2학년 지원 가능: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교 2학년 학생에게 지원 기회 부여(영재학교 제외)

대학원과정 선발 정책 주요 변화

KAIST 대학원 입시의 변천은 '우수 인재 양성'과 '시대 선도'라는 두 가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국내 최초 연구중심 이공계 특수대학원으로 설립된 KAIST 학생 선발의 시작은 1973년 석사과정 장학생 106명 선발이었다(당시 한국과학원). 이후 1975년에 박사과정 장학생 21명을 선발하여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KAIST의 대학원 입시제도의 변천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발전'이라는 설립 이념과 궤를 같이한다. 필기시험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 입시전형을 무시험전형으로 차츰 확대했고, 박사과정은 1994년, 석사과정은 1998년부터 각각 무시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무시험제도는 수학능력 중심의 평가에서 넘어 전인적 평가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기틀이 되었다. KAIST의 무시험제도 전면 도입은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가 2002학년도부터 무시험전형으로 변경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8년에는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석사과정 취득까지 소요되는 수업연한을 단축했으며, 2010년에는 석사과정 진학 시 학부과정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여 학문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원하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인 융합자유선택 프로그램 전형제도를 도입했다. 2013년에는 학·석사 학위연계과정을, 2015년에는 융합자유선택 프로그램 전형을 폐지했다. 학생 선발 전형 기틀 수준의 변화 외에도 KAIST는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AI 대학원 설치·운영 등 국가 발전과 도약에 요구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해왔다. 또 입시지원 요건 중 청각장애를 가진 지원자의 영어요건을 완화하여 신체적 장애가 학문추구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입시제도에서 있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아낌없는 노력은 KAIST가 '지적으로 우수한 제한된 인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특수한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와 가치'에 적극 부응하며, '시대의 가치'를 선도하고 '국가적 성장'에 기여한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대학원과정 입학전형(2021학년도 기준)

인 재 상
- 사회적 가치 창출 창의리더 양성
- 창의적 잠재력을 갖춘 인재 선발
-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체제 혁신
- 창의적 융합 인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방식 혁신

주요 특징
- 전문석사: 기업가정신과 창업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중심 교육이 아닌 실습을 통한 문제해결형 교육을 중심으로 KAIST의 20개 학과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1년 기간의 전문석사과정
- AI대학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인공지능(AI)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2019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최대 10년간 19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융합연구: 학제 간 연구의 결합을 넘어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과학과 기술, 과학과 문화 등의 융합연구

3. 장학제도 및 병역특례

교내·외 장학금

과학기술 우수 인재 양성은 든든한 장학제도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KAIST는 그 시작부터 학생들의 전액등록금 면제 및 생활비 지원제도를 두었으며, 현재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학사 및 대학원 과정 장학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학금은 크게 등록금지원장학금과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나뉜다.

먼저 등록금지원장학금은 학사과정의 경우 납입금 전액을 전학생에게 장학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도록 직전 학기 평점 기준 2.7 이하인 경우에는 일부 등록금에 대해서 자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학생 구분에 따라 국비장학금(납입금의 92%), KAIST 장학금(납입금의 55%, 교수부담금 불포함) 및 일반장학금(납입금의 58%)을 지원하여, 재학 학기 이내에는 등록금 납부에 대한 어려움을 경감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등록금지원장학금(2020년 가을학기 기준)

구분	장학금 종류	학기당 장학금액	지급 요건
학사과정	교비장학금	3,433,000원	전체 재학생 대상 (평점 2.7 이하 일부 자비납)
대학원과정	국비	8,809,000원	학생 구분에 따른 장학금 지원
	KAIST	5,211,000원	
	일반	5,5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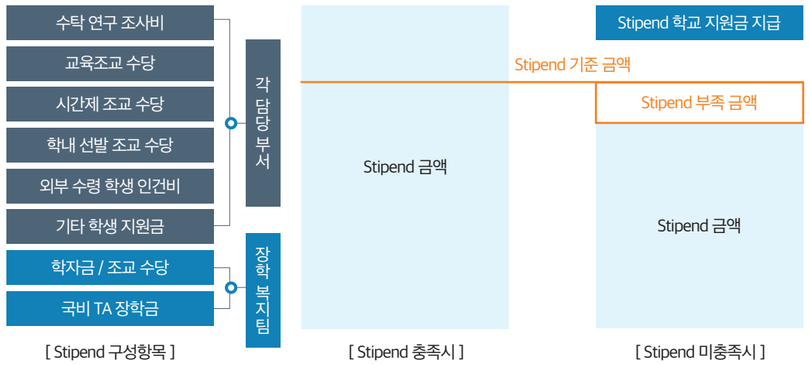
생활비지원장학금은 학사학자금, 석사학자금, 학과우등장학금, 인성장학금, 외국인학생 장학금, 근로장학금, 교직원유가족장학금, 학생자치단체간부장학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이외에도 기본 생활비 지원 목적의 장학금, 학업성취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장학금, 글로벌 캠퍼스 구축을 위한 우수외국인학생 지원 장학금, 출산·육아로 휴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생활비지원 장학금 등 캠퍼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적재적소에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를 통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캠퍼스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 등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심어주는 교육적 계기가 되고 있다.

생활비지원장학금(2020년 가을학기 기준)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학사 학자금	135,000원/월	• 학사과정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1 신청자
석사 학자금	265,000원/월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석사) 1년차 국비학 생 전원
학과우등장학금 (학사과정)	(학기당) 수석 : 1,000,000원 차석 : 800,000원 성적우수(2명) : 800,000원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 학과 수석, 차석 및 성적우수자
인성장학금	1,000,000원/1인/연	• 타의 모범이 되는 학사과정 학생 • 20명 이내, 매년도 8월 선발
외국인장학금 (KAIST지원)	학사: 350,000원/월	• 입학후 2년 경과시점 장학등급 재확정 • 국민건강보험료 실비 환급 지원
	석사: 400,000원/월	• 지도교수가 미배정된 외국인 석사과정, 석 박사통합과정 입학생 • 지도교수 배정시까지 최대 1학기 지원
	박사: 300,000원/월	• 단과대학별 장학생 추천 • 지도교수 10만원/월 별도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실비 환급지원
일반근로장학금	최대 225,000원/월	• 월 최대 25시간 근로, 9,000원/시간당 • 각종 교내행사 및 업무보조 등 근로
특별근로장학금	최대 275,000원/월	• 월 최대 25시간 근로, 11,000원/시간당 - 학사과정 : 활용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방학기간에도 근로 가능
생활지원 근로장학금 (학사과정)	320,000원/월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자 •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분위가 3분위 이내 인 재학생
교직원유가족 장학금	300,000원/월	• KAIST의 교직원으로 재직 중 사망한 자의 자녀
학생자치단체 간부장학금	(학기당) 회장 1,500,000원 부회장 1,000,000원	•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부회장으로 활 동 중인 학생
대학원생 출산·육아지원금	박사 : 450,000원/월 석사 : 265,000원/월	• 대상 : 출산·육아로 인해 휴학하는 여대 학원생(일반장학생 제외) • 지급기간 : 휴학기간(최대 1년)

더불어 KAIST는 대학원 과정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 및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대학 최초로 6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9월 국내 대학 학연장려금(Stipend)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종전의 조교수당, TA장학금, 수탁연구조사비, 기타 학생지원금을 포괄하여 석사과정 월 70만 원, 박사과정 월 100만 원의 안정적인 생활지원금을 매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급금액이 Stipend 기준금액(석사 70만 원, 박사 100만 원)보다 적은 경우 학교 차원에서 'Stipend 학교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학생 개별 지급액을 보존해주고 있다.

학연장려금(Stipend) 제도



이외에도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을 비롯하여 정부초청외국인장학금을 지원하는 국립국제교육원, 현대차정몽구재단, 양영재단, 정수재단, 김영한 글로벌리더장학기금 등 수많은 외부장학재단에서 다양한 취지의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KAIST의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KAIST 학생들은 한 해 평균 약 60억 원 규모의 교외장학금을 수혜받고 있다.

KAIST 다양한 교내외 장학제도에 대해서 국내 유수기관인 대학정보공시센터는 대학알리미 평가에서 KAIST 장학금 부문을 5점 만점 중 5점으로 전국대학 중 Top of Top Class 수준의 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병역특례

한국과학원 개교 이듬해인 1973년 2월 23일 당시 비상국무회의는 군수업체와 연구기관의 기술자 및 학술·예술·예능 특기자 등 특수기술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병역의무자들이 병역 특혜를 받도록 의결했다. 이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안'에 담긴 네 가지 항목의 대상자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한국과학원의 학생'이었다.

1973년 3월 3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한국과학원 학생들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 부여가 가능해졌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병역특례제도의 시초이기도 했다. 1983년 12월 31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병역법에 통합된 이후에도 KAIST 학생에 대한 병역특례는 지속되었으나, 1989년 12월 30일 병역법 개정으로 KAIST 학생 병역특례제도가 삭제되었다.

이후 1989년 12월 30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다시 제정·공포되었고, KAIST는 1992년 11월 10일 그 대상이 되는 5개 부설연구소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KAIST 학생은 박사과정 입학 후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는 지금까지 이어져, 병역 미필의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박사 수료 조건(수료를 위한 모든 수업 이수)차부터 전문연구요원으로 3년간의 병역의무를 시작하는 특례를 받게 된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경우, 박사 수료 조건을 위한 모든 수업을 이수했다면, 최소 박사과정 2년차부터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며, 대부분이 2년차부터 전문연구요원이 된다. 이러한 경우 박사과정 4년차가 끝날 때 전문연구요원 복무도 끝나게 된다.

석사과정 입학 후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전환한 경우, 박사 수료 조건을 위한 모든 수업을 이수했다면, 석사과정 입학 이후 최소 3년차부터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다. 석사과정 입학 후 5년차가 끝날 때 전문연구요원 복무도 끝나게 되며, 이 경우는 위의 경우보다 1년 먼저 병역특례가 시작되고 종료된다.

의과학대학원에서는 2004년부터 4년간의 여러 차례 병역법 개정 심의를 거쳐 2006년도에 병역법이 개정되어 전문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병역특례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병역의무를 가진 대부분의 의학계열 대학 졸업자는 군의관 혹은 공중보건의사만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었으나 의과학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아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병역법 개정으로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연령이 35세에서 37세로 상향조정되어,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전문의는 의과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될 수 있다.

지금 병역특례 제도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에게 부여해온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KAIST를 포함한 4개 과학기술원에 배정된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에 대한 병역특례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병역특례 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단절 없이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경쟁력 향상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들어, 전문연구원 제도의 폐지·축소 논의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의견을 개진해오고 있다.

4. 교육지원 조직

KAIST 교육원

KAIST Academy 2014~2021

교내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학문적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다

KAIST 교육원은 교육역량 강화 및 확산 추진을 목적으로 2014년 4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기존의 과학영재교육연구원·교수학습혁신센터·정보기술아카데미의 3개 부서를 모태로 했고, 행정직원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발전교육센터와 교육원 전체 운영 관리를 위한 KAIST 교육원 운영팀을 신설하여 출범했다. 이후 2014년 7월 17일 차세대이차전지인력양성센터와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를 KAIST 교육원 산하로 이관했으며, 2015년 4월 15일 KAIST 교육기부센터를 신설했다.

2016년 7월 8일에는 SW교육센터를 신설했으며, 2018년 8월 1일 정보기술아카데미를 폐쇄하여 SW교육센터와 통합한 후 행정발전교육센터를 행정처 산하로 이관했다. 2019년 3월 11일에는 차세대이차전지인력양성센터를 응용과학연구소 산하로,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를 기계기술연구소 산하로 각각 이관하고 KAIST 교육기부센터를 폐쇄했다.

현재 교육원 산하에 교육원장 직속 행정 조직인 KAIST 교육원 운영팀 이외, 교수학습혁신센터·과학영재교육연구원·SW교육센터 3개 기관을 두고 교내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학문적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고자 각 부서별로 아래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혁신적 교수학습모델 개발 및 보급
- 과학영재 발굴 및 영재교육 기반 구축
-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선도할 소프트웨어 창의 인재 양성
- 선진적 비학위 연수과정 운영

현 조직도(2020년 12월 기준)

과학영재교육연구원

Global Institute For Talented Education
1993~2021

과학영재 발굴 육성 및 과학영재교육 기반 구축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 1993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 과학영재교육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금도 국가를 이끌 창의적 글로벌 과학인재의 발굴·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1993년 과학영재교육연구소를 설치하여 과학영재 기초 연구를 시작한 이후, 1998년 과기부 지정 영재교육센터를 설치했으며, 1999년부터 사이버 영재교육을 실시했다.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2002년 미래부로부터 과학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된 후 최초의 영재학교인 한국과학영재학교(KSA) 교육을 지원했다.

2008년에는 KSA에 대한 KAIST 부설화 추진 연구에 들어갔으며, 2009년에는 교육부 지정 교사연수기관, 특허청 지정 IP 영재기업인 교육원, 대전시 지정 KAIST 글로벌 영재교육원에 연이어 선정되었다. 2011년에 STEAM 교사연수 센터를, 2014년 교육부 및 미래부 요청에 따라 AP 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했으며, 2015년 KAIST Science Outreach 프로그램 운영, 2016 교육부 자유학기제 운영 및 도서벽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산하 교육 및 지원기관으로 영재교육센터, 과학영재 교사연수원, AP 지원센터, 글로벌 영재교육원, IP 영재기업인 교육원을 두고 있다.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로 우수 과학기술 인재육성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었다.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는 영재교육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기관인 KAIST의 책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 '과학영재 발굴 및 영재교육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에 역점을 두고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1.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기초·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고, 국가의 과학영재교육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첨단과학기술의 이해와 창의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교원 연수를 통해 과학영재교육의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사이버 영재교육을 통해 원하는 학생 및 소외지역의 영재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학영재교육의 확산에 힘쓴다.
4. 정기적인 영재교육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여 많은 영재교육기관의 관계자들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국제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과학영재교육연구원자문위원회 2018.08.24.

KAIST 대학 진로탐색캠프 2019.07.12.

교수학습혁신센터

Center for Excellence in Learning and Teaching

2009~2021

과학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창의적 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혁신

KAIST 교수학습혁신센터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창의적 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3월 KAIST와 ICU가 통합하면서 ICU의 글로벌e러닝센터 조직이 KAIST로 이관되었으며, 같은 해 5월 글로벌e러닝센터 소속이 ICC 학술정보처에서 ICC 부총장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2011년 Education3.0추진단을 설치하고 2012년 3월 Education 3.0 Program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2013년 5월 'KAI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Education 3.0'을 개최했다.

2013년 9월 Education 3.0 추진단이 교수학습혁신센터로 변경되면서 그 기존 ICC 부총장 소속에서 교학부총장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글로벌e러닝센터 때부터 운영되고 있던 교육연구팀·행정운영팀이 교수학습혁신센터 소속 교수학습혁신팀·교수학습기술팀으로 변경되었다.

2014년 4월 교수학습혁신센터 소속이 교학부총장에서 KAIST 교육원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 8월 교수학습혁신팀과 교수학습기술팀을 교수학습지원팀으로 통합했다.

KAIST 교수학습혁신센터는 일방향 강의 비중을 낮추고 상호작용, 학생 참여, 팀 협력학습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방식을 실천하는 KAIST의 혁신적인 교수학습모델인 Education 3.0 Program을 개발·운영하였고, 2018년 이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액티브러닝을 강화한 Education 4.0 Program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수업혁신을 위한 교수법 교육, 수업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교수-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학사 예비 신입생들이 입학 전 기초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Bridge Program, 실시간 공동화상강의 운영, 사회적 가치지향 인재양성 프로그램 참여, 원격수업 지원 등을 통해 KAIST의 혁신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선도하고 KAIST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습관리시스템(KLMS, KAIST Learing Management System)을 개발·운영하고, 상호작용식 수업이 가능한 Education 4.0 교실 구축 및 고품질 강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촬영서비스와 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최상의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정면판서유형 스튜디오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내외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개방형 온라인 공개강좌(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인 COURSERA와의 협약을 통해 KAIST의 우수한 강좌를 전 세계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KAIST 자체 열린 지식 채널인 KOOC(KAIST MOOC)을 개발·운영하여 국내 일반인들에게 지식기부를 실천하고 교육기회 균등에 기여하고 있다. KOOC 플랫폼과 성공적인 운영전략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의 MOOC 연합체인 STAR-MOOC을 선도하여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교육부 주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 K-MOOC에 국내 MOOC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참여하면서 현재까지도 KAIST의 우수한 강좌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KAIST-MOOCs를 통해 과학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대학의 교육기부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기업체 및 연구소와의 교육 협약을 통해 과학기술 인력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e-Learning 교육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KAIST 교수학습혁신센터는 이러한 교수-학습 혁신 방법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우리 KAIST 학생뿐 아니라 국내외 모든 학습자에게 최상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STAR-MOOC 서비스 개통식 2018.03.08.

SW교육센터

Software Education Center
2016~2021

4차 산업혁명 시대 SW 중심사회를 리드할 SW 인재양성을 목표로

세계는 이미 SW(Software) 중심사회로 접어들었고, SW가 혁신하는 과학기술은 탄생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인류의 생활 모습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ICT산업은 물론 전 산업의 혁신과 경쟁 판도가 SW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SW파워가 강한 국가가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하게 될 것이다.

SW교육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SW 중심사회를 리드하고, KAIST의 비전 '인류를 위한 지식 창출 및 인재양성'을 달성하기 위해 2016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 SW 중심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KAIST의 우수한 교수진과 인재를 바탕으로 대학교육을 SW 교육 중심으로 재편하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SW 인재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SW 경쟁력을 강화하며, SW 가치 확산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4월 21일 SW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4월 29일 KAIST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간 SW 중심대학 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며, 7월 8일 SW교육센터 조직을 설치했다. 이를 계기로 KAIST는 2016년 8월 30일 SW 중심대학 선포식을 가졌다.

SW 중심대학을 선도하는 SW교육센터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SW 전공 교과목 운영 강화
- 비전공자를 위한 SW 교과목 개발 및 확대 운영
- SW 융합전공 운영
- 클라우드 등 SW 교육 인프라 확보
- 실습 중심 SW 교육 강화 프로그램 운영
- SW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 대학·기업 합동 문제 해결형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
-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 오픈소스SW 교육 프로그램 운영
- SW 교육/실습 환경 개선 계획
- 해외 및 국내 인턴십 운영
- 청소년 대상 SW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고교생 SW경진대회 개최
- 학부과정 SW 특기생 선발제도 운영
- 입학 전(前) 학생 SW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러한 사업 수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SW 인재 육성 촉진 사업의 성과를 KAIST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2016년 SW 중심대학에 선정된 이후 전산학부 지원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신입생 중 전산학부 지원비율이 2018년 19.5%(160명)에서 2019년 22.8%(192명), 2020년에는 26.3%(210명)로 증가했다.

전국 고등학교 동아리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2017.10.28.

또한 전산학을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하는 학생도 급증했다. 많은 학생이 전산학을 선택함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교수 및 조교 인력 확보, 교육 인프라 확대 등의 선순환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차원의 인재육성 사업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다.

KAIST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으로서,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체계와 커리큘럼을 적용하여 기업이 원하는 전문인력과 융합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SW 산업을 이끌어가는 SW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SW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SW 가치 확산 활동을 통해 'KAIST SW 중심대학'을 만들어 가고 있다.

글로벌리더십센터

Global Leadership Center 2017~2021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지도자적 자질과 자신감을 가진 새로운 인재 배출

글로벌리더십센터에서는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창의적인 지도자적 자질과 자신감을 가진 인재로 양성하고자 체계적인 리더십·인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리더십 교육의 기반이 되는 개인 기초과목을 이수(학기 및 방학 활용: 리더십 훈련과 커뮤니케이션 훈련 포함)하게 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봉사정신을 함양하게 하며, 계획 수립과 실천 방법을 통해 시간 관리와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글로벌 마인드와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해외활동 등을 장려하고 있다.

학사과정 리더십 |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인 리더십을 갖춘 KAIST인을 양성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

- 학부 인성/리더십 2과목(AU) 졸업필수로 지정
- 인성/리더십 과목 주요 프로그램: 7H 리더십, 피니스 리더십, 카네기 리더십, 영리더 목요특강/GLA(Group Leadership Activity) 등

2016 봄학기 영리더 목요특강

석사과정 리더십 | 사회 각 분야의 리더를 초빙하여 석사 학생들의 식견과 사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리더십 강좌 운영

KPF(KAIST Presidential Fellowship) Honor Society | 선발된 소수 정예의 최우수 KPF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과 학습을 통하여 인성/리더십을 겸비한 미래의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해외연수/교환학생/URP 참가 지원 : UC Berkeley Summer Session(1학년 재학 중 여름방학 기간), 해외 연수프로그램(2~4학년 재학 중), URP(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2~4학년 재학 중) 등 지원
- 리더십 프로그램: 역량 강화 프로그램(리더십 교육, 경진대회 참가 등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봉사활동(지역 중학생 대상 과학 교육봉사), 교류활동(사이사이캠프: '사회에 공헌하는 이공계 학생들의 사소한 이노베이션'이라는 뜻을 가진 국내 타 대학 교류프로그램)
- 교내 네트워킹 프로그램: 동료 및 선후배 간 네트워크 구축·학술/취미 소모임 워크숍
- 멘토링 프로그램

학생봉사단 | 학내외에서 학생 봉사활동을 주관·협력·지원하는 상설자치단체로 운영

- 교내 봉사활동단체 봉사활동 지원사업
- 국내외 봉사활동(겨울방학: 동남아시아 과학 교육 봉사 여름방학 아프리카 ICT 교육봉사) 사업 지원

K-Let(KAIST Leadership Executing Team) | KAIST 글로벌리더십센터 자치단체로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리더십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쳐 봄으로써 리더십을 함양하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단체

- 인성/리더십 수업을 개발하여 강의하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 및 참여
- 학기 중 : 지역의 학교 및 청소년 단체를 방문하여 인성/리더십 수업 진행
- 방학 : 전국의 소외지역을 방문하여 인성/리더십 수업 진행

- **teamKAIST 'Save the Earth' Global Challenge** | 학생들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하여 고민하며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글로벌 탐사 프로그램. 발전재단의 teamKAIST 기부금으로 지원
  - 북극지방 생태조사, 몽골의 대기오염, 온라인 음식 배달 플랫폼의 폐기물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 탐사

- **ELK 해외연수 프로그램** | 주)ELK에서 KAIST 학생들의 행복한 대학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기부, 교내 문학적 분위기 확산과 국제화 캠퍼스 심화를 추진하기 위한 프로그램(2018년 사업 종료),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해외 유수 기업, 대학을 탐방하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프로그램

- **MGH 인턴십 프로그램** | KAIST 동문 교수의 제안과 기부를 통해 재학생들이 미국 Harvard Medical School-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에서 강의·연구에 참가할 수 있는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 글로벌리더십센터 인턴십프로그램과 발전재단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계 진행
  - 인턴 / 교육기관: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Wellman Center for Photomedicine

어학센터

어학센터

KAIST Language Center 1995~2021

과학기술 계통의 독보적인 기관으로 세계적인 연구 활동에 이바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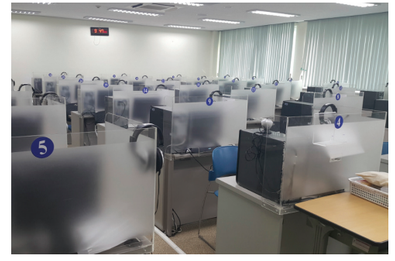
1990년대 대덕 이전 및 과기대와의 통합 운영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 성숙단계에 돌입한 KAIST는 교육·연구 업무에 있어 외국 저명 교육·연구기관과의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고되었다. 아울러 국가의 국제화·세계화 정책으로 학생들의 영어 교육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에 KAIST는 재학생들에게 실용영어와 제2외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995년 9월 교양과정부 내 어학센터를 설립했다.

현재 어학센터는 전국 50여 개 이상의 연구소, 90여 개 이상의 대학교 및 학회와 업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어학강좌 운영, 영문과 한국어 문장 교정·번역·통역, 영어능력시험센터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위해 분야별·언어별 교정인과 번역인, 그리고 어학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어학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언어교육**: 한국어·영어·제2외국어 강좌를 KAIST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수강할 수 있도록 매월 개강
- **교정**: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문법적 오류를 수정하고 문장 짜임새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다년간의 교정 경험이 있는 원어민 교수들이 담당
- **번역**: 한국어와 외국어가 가능한 전문 번역가가 1차 번역을 한 후 원어민 교정자가 최종 감수하는 방법으로 진행
- **통역**: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 통역사들이 활동, 동시통역, 순차통역, 수행통역 등 가능
- **iBT GRE, iBT TOEFL 시험센터**: 영어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KAIST 캠퍼스에서 매월 실시

어학센터는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어학 전문 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영문 교정과 번역 그리고 통역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계통에서 독보적인 기관이 되어 세계적인 연구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III

연구

RESEARCH

1. 연구조직의 변천
2. 연구사업
3. 연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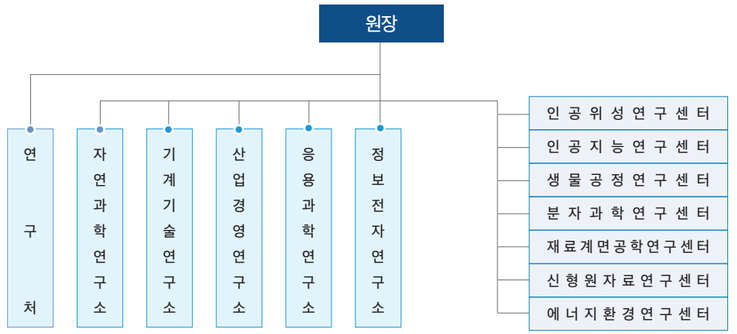
1. 연구조직의 변천

개교 이후 연구부문과 학사부문 관리를 부원장 아래 두었던 KAIST는 1982년 1월 별도의 연구조정부를 신설하여 교육과 연구기능을 원장 직속의 각 학부에 통합하고, 연구 지원은 연구조정부가 맡았다. 그러나 교육과 연구의 완전 통합 운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직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1983년 7월 학과의 전공과 유사한 연구부 내 연구실을 8개 학부로 통합하는 매트릭스 체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매트릭스 체제가 KAIST의 운영에 공헌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1986년 8월 학사부와 연구부로 기능을 분리하고, 연구부에 4개 연구부와 산하 40개 연구실을 두었다. 이어 1988년 5월에는 연구조정부를 연구본부로 개편하여 그 산하에 연구부를 두었으며, 연구본부는 연구본부소장이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학사와 연구 기능을 완전히 분리했다. 통합 당시에 비해 국내 과학기술계가 현격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한 점을 고려, 독립적으로 연구부 기능을 재정립한 것이다.

1989년 6월 KIST와 분리한 KAIST는 늘어나는 첨단복합연구과제와 대형연구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부문별 1개 연구소 설립'을 원칙으로 같은 해 8월 자연과학연구소·기계기술연구소·산업경영연구소·응용과학연구소·정보전자연구소의 5개 연구소를 설립했다. 각 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효용성을 제고시키고, 모든 연구인력을 응집하여 최대의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5개연구소 및 연구센터 체제 (1992년)



2006년 8월에는 KAIST 발전 방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KAIST 연구원(KAIST Institute, KI)'이 설립되었다. KAIST 연구원은 모든 연구 분야에서 각각 제기되는 문제들을 대상으로 '여러 학문을 넘나드는 학제적 접근법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대학 소재 연구기관으로서, 2006년 바이오융합연구소·IT융합연구소·복합시스템설계연구소·나노융합연구소, 2013년 사우디 아람코-KAIST CO2 연구센터, 2016년 로보틱스연구소·헬스사이언스연구소, 2017년 인공지능연구소·4차산업혁명지능정보센터, 2020년 전염병 대비센터를 설치하는 등 연구 범위를 다양화했다.

2018년 3월 20일 선포한 'KAIST 비전 2031'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연구 혁신이었다. 이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KAIST는 2018년 4월 국내 최초로 초세대협업 연구실을 설립했으며, 2019년부터는 글로벌 특이점 연구사업을 추진했다. 글로벌 특이점 연구사업은 세계 최고, 최초, 유일한(The Best, The First, or The Only)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거나 창출할 가장 도전적인 특이점 연구를 선도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9년 2개 연구단과 16개 연구과제 선정 지원에 이어 2020년 신규 연구단 1개를 추가 선정하고 11개 연구과제를 지원 중이다.

2020년 7월 기준 KAIST 각 산하 연구소 및 연구센터 수는 152개로 KAIST 일반연구센터 91개, KAIST 연구센터 46개, KI 연구소 6개, KI 연구센터 3개, KI 일반연구센터 6개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조직(2020년 7월 기준) – 연구실적개요집 수록내용

총괄

(단위: 개)

구분	KAIST 일반 연구센터	KAIST 연구센터	KAIST 연구원			계
			KI연구소	KI연구센터	KI일반연구센터	
연구소 / 연구센터	91	46	6	3	6	152

KAIST 일반연구센터(교학부총장 산하)

소속연구소		부서명		
기계기술연구소	1	KAIST-HIHI 산학연구센터	8	소음진동제어 연구센터
	2	고속물성데이터센터	9	연성박막초열전도체연구단
	3	극초단정밀광기술연구단	10	첨단제조지능혁신센터
	4	글로벌특이점 첨단 뇌신경 재활공학연구센터	11	페리자-카이스트 로켓연구센터
	5	기능성 길항 나노공학 창의연구단	12	해양기술연구센터
	6	기술창업혁신단	13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
	7	미래의료로봇연구단		

소속연구소		부서명	소속연구소		부서명
기계지능 및 로봇공학대기관 지원 연구단	1	고영 KAIST 인공지능 공동 연구센터	정보전자 연구소	1	ADD 미래도전기술 - XAI 가속 처리 기술 연구센터
산업경영 연구소	1	LG CNS - KAIST AI & Big Data 연구센터		2	Auto-ID Labs Korea
	2	NH투자증권-KAIST UX디자인 연구센터		3	IBM-KAIST 바이오컴퓨팅연구센터
	3	신성-카이스트인공지능자동화시스템연구센터		4	KAIST 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
	4	신한-카이스트 AI 금융 연구센터		5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5	지식혁신연구센터		6	KAIST 설명가능 인공지능연구센터
	6	한국타이어-카이스트 디지털 미래혁신 연구센터		7	LG Display 산학협력센터
응용과학 연구소	1	3D 프린팅 비파괴검사 연구단		8	SoCium연구센터
	2	다차원 나노조립제어 창의연구단		9	VTT-AI 센터
	3	생체촉매 활성 및 아밀로이드 응집제어 광감응시스템 연구단		10	뇌과학기술융합공동연구개발센터
	4	스마트시티연구센터		11	디지털나노구동연구센터
	5	에너지환경연구센터		12	삼성디스플레이연구센터
	6	차세대이차전지인력양성센터		13	성남-KAIST 차세대 ICT 연구센터
	7	초미세화학공정시스템연구센터		14	스마트 과학관 전시기술연구단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1	과학기술사회정책연구센터		15	스마트 에너지 인공지능 연구센터
	2	델타 연구센터		16	시맨틱웹첨단연구센터
자연과학 연구소	1	DNA복제및유전체불안정성연구단		17	실리콘포토닉스연구센터
	2	Hippo세포분열분화연구단		18	의료영상공학연구센터
	3	KAIST Advanced Institute for Science-X		19	인공지능 공정성 연구센터
	4	LED연구소		20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IT인력양성 연구센터
	5	RNA 품질 관리를 통한 건강 수명 증진 연구단		21	인공지능연구센터
	6	격자결함 제어연구단		22	첨단영상산업기술연구센터
	7	나노텍토닉스연구단		23	초소형 군집위성 핵심기술 연구센터
	8	뇌 체성 돌연변이 연구단		24	카이스트-삼성전자 인공지능인식특화센터
	9	도날드킴 케미컬 바이올로지 센터		25	한전-KAST AI 영상인식 센터
	10	세포피포화연구단	테크노경영 연구소	1	IoT 기반 초연결사회 연구센터
	11	시간역행 반사연구단		2	SK 사회적기업가센터
	12	양자정보연구센터		3	공공혁신 · E-Governance 연구센터
	13	융합교육연구센터		4	공정거래연구센터
	14	정밀 바이오-나노메디신 연구센터		5	글로벌SCM연구센터
	15	카이스트복잡계연구센터		6	글로벌공공조달연구센터
	16	파이토크롬 모바일 신호전달 연구단		7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
	17	폴리올레핀신소재연구센터		8	글로벌 아시아경영연구센터
				9	금융공학연구센터
				10	디지털혁신연구센터
				11	미래경영연구소
				12	밝은 인터넷 연구센터
				13	빅데이터 및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경영 연구센터
				14	사회기술혁신센터
				15	실리콘밸리 이노베이션 플랫폼 연구센터
				16	정보미디어연구센터
				17	카이스트바이오헬스케어혁신정책센터
				18	카이스트지역혁신센터
				19	혁신및기업가정신연구센터
				20	혁신전략정책연구센터

KAIST 연구센터(연구부총장 산하)

연번	부서명	연번	부서명
1	KAIST 명상과학연구소	24	분산공유형지오센트리퓨지실험센터
2	KAIST 재난학 연구소	25	생물공정연구센터
3	KAIST-KIST 공동연구센터	26	생물정보연구센터
4	KAST-MSR공동연구센터	27	세포 정체성 연구센터
5	KAIST-삼성전자 산학협력센터	28	세포벤치연구센터
6	LED 연구센터	29	스마트수중터널시스템연구센터
7	MARS 인공지능 통합 연구센터	30	신경과학 - 인공지능 융합 연구센터
8	SK hynix KAIST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연구센터	31	신형원자로연구센터
9	개방형 에너지 클라우드 플랫 연구단	32	연소기술연구센터
10	공동구연구센터	33	웨어러블 플랫폼소재 기술센터
11	그리드미들웨어연구센터	34	응집상 양자 결맞음 연구센터
12	기계지능 및 로봇공학 다기관 지원연구단	35	의과학연구센터
13	녹색교통시스템연구센터	36	인간-로봇상호작용핵심연구센터
14	뇌과학연구센터	37	인공위성연구소
15	멀티스케일 카이랄 구조체 연구센터	38	인류세 연구센터
16	무선전력전송연구센터	39	인체부착형 빛 치료 헬스케어 공학센터
17	무인안전 로봇연구센터	40	자율운전 소형 원자로 연구센터
18	문화기술연구소	41	줄기세포분화발생연구센터
19	미래 국방 인공지능 특화연구센터	42	첨단정보기술연구센터
20	민간무인기안전운항연구단	43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
21	반도체설계교육센터	44	코오롱-카이스트 라이프스타일이노베이션센터
22	반도체시스템설계응용연구센터	45	확률해석 및 응용연구센터
23	방사선및핵의공학연구센터	46	휴머노이드로봇연구센터

KI연구소(일반연구센터)

연번	연구소명	연구소장	일반연구센터
1	바이오융합연구소	김선창 (생명과학과)	
2	IT융합연구소소	조규성 (원자력및양자공학과)	• 증강현실 연구센터 • LG-카이스트 6G연구센터 • 밀리미터파 레이더 통신융합연구센터
3	로보틱스연구소	심현철 (전기및전자공학부)	
4	나노융합연구소	정희태 (생명화학공학과)	• 디스플레이 미래소재 연구센터
5	헬스사이언스연구소	정용 (바이오및뇌공학과)	
6	인공지능연구소	오혜연 (전산학부)	• 차세대 기계학습연구센터 • 지능형 디지털동반자 연구센터

KI연구센터

연번	연구소명	센터장
1	사우디 아람코-카이스트 CO2 연구센터	이재형 (생명화학공학과)
2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센터	이상엽 (생명화학공학과)
3	전염병대비센터	신의철 (의과학대학원)

2. 연구사업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설립된 만큼 KAIST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해 왔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KAIST는 대학이자 연구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로 연구사업 재원에도 일반 대학과 다른 특징이 있다. 보통 대학의 연구는 정부나 민간기업이 지원하는 외부수탁연구사업와 교내연구비처럼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부 자체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KAIST는 내부 자체사업 재원 역시 정부출연연구기관처럼 정부 출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설립 초기 1970년대에는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이 아직 미비한 시절이었으나, 당시 한국과학원은 교원 모두에게 기본연구비를 제공하여 타 대학과 월등히 차이 나는 연구 환경을 마련했다. 교수기본연구사업으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기본연구비는 임용 초기 외부 연구재원 확보가 어려운 신임교원들에게는 연구비 마중물이 되고, 중견 교원들에게는 특정 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외부 과제에 비해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새로운 연구 주제를 탐색하는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KAIST의 외부수탁연구사업은 대체로 정부 지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기업 지원의 산업체 수탁연구로 나뉘는데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부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나뉘지만, 한국연구재단이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연구전문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외 각종 민간 재단이나 해외 기관이 지원하는 국제연구사업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980년대 초 기술촉진법에 근거해 우리나라 최초로 추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필두로 정부 각 부처의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KAIST는 탁월한 교수진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독보적으로 많은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1990년대 과학기술부의 선도연구센터사업, 1990년대 후반 시작된 교육부의 Brain Korea21 사업(BK21), 2000년대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WCU), 글로벌프론티어사업, 기초과학연구단사업 등 굵직한 연구사업에서 KAIST 교수진은 높은 선정률로 사업을 수주하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해왔다.

한편 KAIST는 대학원생과 학부생 연구 지원을 위한 자체 연구사업도 도입했는데, 학부생연구프로그램(URP)의 경우 다른 대학들도 벤치마킹할 만큼 학부 단계부터 연구 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았고, 석박사모험연구는 대학원생이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책임자로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KAIST에 도적적·창의적 연구문화를 조성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KAIST의 주요 연구 사업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선도연구센터사업 | 1990~

KAIST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초연구 분야 집단연구지원사업으로 1990년도 도입된 선도연구센터사업에 독보적인 선정률로 참여해 왔다.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 연구집단 발굴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핵심연구 분야 육성 및 국가 기초연구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은 이학분야(SRC), 공학분야(ERC), 기초의과학분야(MRC), 융합분야(CRC), 지역특화분야(RLR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 첫해 1990년도에는 인공지능연구센터·인공위성연구센터·생물공정연구센터가 ERC에 선정되었고, 다음 해에는 재료계면공학연구센터·신형원자로연구센터가 ERC에, 분자과학연구센터가 SRC에 선정되는 등 2020년 현재까지 ERC에 23개, SRC에 8개, CRC에 2개 총 33개의 센터가 선정되었고, 2013~2020년 총 8년간 지원된 총연구비 규모는 약 949억 원에 달한다.

두뇌한국21 | Brain Korea 21 1999~

BK21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박사후 연구원 및 계약교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이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조 5,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세계수준의 우수 대학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시행, 총 74개 대학 568개 사업팀을 선정했다. 2013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7년에 걸쳐 'BK21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3단계 사업이 진행되었다. BK21 사업에서는 주로 대학원생 장학금이나 신진연구인력 지원비, 또는 여러 가지 국제행사, 사업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과학기술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통해 연구력 강화나 연구인력 확보, 우수대학원의 육성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AIST는 1단계 BK21 사업(1999~2006년)에 22개 분야(팀)가, 2단계 BK21 사업(2006년 9월~2013년 2월)에 18개 분야(팀)가, 3단계 BK21 사업(2013년 9월~2020년 8월)에 19개 분야(팀)가 참여했다. 그 결과 2012년 10월 과학기술기초·과학기술응용·핵심과학기술응용 사업 분야에서 우수 사업단(팀) 및 우수 참여 인력 포상을 받았으며, 2016년 6월 인문사회디자인영상·과학기술응용 사업 분야에서 중간평가 우수 사업단(팀) 포상을, 인문사회디자인영상·융복합·과학기술응용·과학기술융복합·인문사회디자인영상·과학기술응용·과학기술기초·과학기술 사업 분야에서 14명이 참여인력 포상을 받았다.

3단계 BK21 플러스 사업 후속으로 2020년 9월부터 7년간 진행되는 4단계 BK21사업에는 16개 신청 교육연구단 중 15개 교육연구단이 최종 선정되었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 World Class University 2008~2013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은 노벨상 수상자 등 연구 역량이 탁월한 해외학자를 국내 대학에 유치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력 강화, 미래 국가 발전 핵심 분야 연구 촉진 및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시행된 사업이다. 2008년 총 32개 대학 130개 사업단이 선정되었다.

지원 분야는 창의적 지식과 혁신적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분야로, 전공·학과 개설지원 과제(유형1), 해외학자 초빙지원 과제(유형2), 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 과제(유형3)로 구분해 지원되었다.

KAIST는 2008년 12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총 11개 사업단, 약 778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에 참여했는데 다음과 같이 유형1의 4개 사업단, 유형2의 3개 사업단, 유형3의 4개 사업단으로 운영되었다.

유형	과제명	사업단장
1	•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학 기술 • 바이오 나노 융합을 통한 혁신적 질병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 해양 인프라시스템 • 웹 사이언스 기술 선도를 위한 첨단연구 기반 창의적 인재 양성	강정구 신중훈 한순흥 맹성현
2	• 저비용, 유연성 광전자 표지소자와 이를 위한 핵심재료 및 공정연구 • 나노구조 기반 고성능 바이오 센서 소자 개발 • 도파민성 뇌질환 표적치료를 위한 멀티스케일 뉴로인포메틱스 기술	전덕영 정희태 이도헌
3	• 자가조립 성질을 가지는 생체 분자물질의 구조와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 미래형 고속로 설계 및 안전 해석 • 나노자성계 스핀 동역학 연구 • 인간중심 디자인혁신 프로그램 : 도널드 노만 박사 초빙	김만원 정용훈 신성철 이건표

WCU 참여 결과, KAIST는 연구 역량이 높은 해외석학 확보를 통해 교육·연구풍토를 혁신하고, 연구실 구축, 첨단 핵심기술자 초빙을 통한 기술개발 및 연구 기반 마련 등 첨단 연구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 학문 영역 간 융·복합 분야로서, 국가 발전과 학문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전공 분야를 마련하고, 국외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융합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2010~

2010년부터 시행된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은 미래를 선도하는 5대 핵심융합기술 분야(IT, BT, NT, CT, ET)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력 확보를 목적으로 10개 연구단에 매년 100억원(총 9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처음 시행된 2010년도에 차세대바이오매스 연구단(초대단장 양지원 교수, 후임 장용근 교수)이 선정되었고 2011년도에는 스마트IT융합시스템 연구단(단장 경종민 교수)과 지능형바이오 시스템설계및합성 연구단(단장 김선창 교수)이 선정되어 전체 10개 운영연구단 중 KAIST에서 3개 연구단이 선정되었다. 아울러 KAIST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410여 개의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세부연구과제를 수행했고, 이들 과제의 총연구비는 1,028억 원에 달한다.

기초과학연구단 사업 | 2012~

기초과학연구원(IBS)은 과학지식 증진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초과학 연구거점을 구축하여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안정적 연구지원을 바탕으로 차세대 연구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되었다. 2011년 제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초과학연구원 현판식 2013.09.27.

기초과학연구원 IBS KAIST캠퍼스 건립 기공식 2020.11.12.

에 따라 설립된 독립법인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과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기초과학 분야 세계 10대 연구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IBS는 대형 장기집단 연구를 위해 기초과학연구단으로 운영되는데, 본부 직영 연구단, KAIST를 비롯해 GIST·DGIST·UNIST·POSTECH이 연합하여 구성한 캠퍼스 연구단, 캠퍼스 연구단 외 각 대학 및 출연 외부 연구단의 세 유형이 있다.

KAIST 연합 캠퍼스 연구단은 2012년부터 KAIST 및 대덕 연구단지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4개 연구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IBS는 2018년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Pioneer Research Center(PRC) 연구단을 출범시켜 3개의 연구그룹을 공모했는데 초대 연구책임자(Chief Investigator, CI) 3인 모두 KAIST 교수가 선정되었다

유형	연구단 / 그룹	단장 / CI
연구단	•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연구단과	유룡
	•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김은준
	•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장석복
	•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Yannis Semertzidis
	• 혈관 연구단	고규영
PRC	• 수리 및 계산과학연구단 이산수학 그룹	엄상일
	• 수리 및 계산과학연구단 데이터사이언스 그룹	차미영
	• 바이오분자 및 세포구조연구단 단백질 커뮤니케이션 그룹	김호민

KAIST 캠퍼스 연구단의 논문자료 연구성과는 2012년 15건에서 2019년 1,019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누적 건수는 5,561건에 달했다. KAIST 캠퍼스 연구단의 논문자료 특허 출원 성과는 2012년 국내 2건에서 2019년 국내 46건, 해외 51건으로 크게 늘었다.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 Undergraduate Research Participation Program 2006~

2006년부터 시작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RP)은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하는 KAIST의 학부생들에게 실질적인 실험 및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연구비 지원 및 학점을 연계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수 및 대학원생을 위주로 조성된 KAIST 연구 분위기에 학부생이 스스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Short-Term 프로그램(6개월)은 연 2회, Long-Term 프로그램(1년)은 연 1회 실시하며, 개발연구과제(단독·팀) 및 그룹세미나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연간 8억 원 내외다. 수행 학기 연구종료 후 발표회를 개최하여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우수과제에 대해 포상하고 있으며, 우수과제로 선정된 후 계속적으로 연구 진행을 원하는 과제에는 별도의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추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 개별연구과제(단독·팀)과 그룹세미나를 포함해 105건이었던 URP 수행 과제 수는 2020년 131건을 포함해 누적 1,988건에 이르렀다.

연도별 URP 과제 현황(2020년 가을학기 기준)

구분	개별연구과제		그룹 세미나	총계
	단독	팀		
2006년	53	40	12	105
2007년	65	38	4	107
2008년	98	45	4	147
2009년	98	45	4	147
2010년	105	44		149
2011년	117	35	1	153
2012년	96	34	2	132
2013년	104	29	1	134
2014년	104	18	8	130
2015년	109	16	7	132
2016년	111	16	5	132
2017년	113	16	2	131
2018년	113	13	1	127
2019년	122	8	1	131
2020년	120	11		131(진행중)
총 계	1,528	408	52	1,988

학부생연구참여 URP 연구성과발표회 2006.09.08.

석박사모험연구프로그램 | 2012~

석박사모험연구프로그램은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보다 창의적이고 영향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험연구사업으로, 대학원생이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책임자로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처 사업과 단과대학 사업의 2트랙으로 진행되는데, 연구처에서는 학제/학과 간 문제해결형 융합연구를 지원하고, 단과대학에서는 Prototype 연구, 아이디어의 구체화 연구 등 각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연구를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연간 4억 원 내외다.

석박사모험연구사업은 인류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신학문·신산업 창출을 위한 창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연구, 국내 사회이슈(아파트 층간소음, 미세먼지 등) 해결을 위한 연구를 선정하고 있으며, 과제 선정과정에서 도전성·창의성·미래지향성·사회경제적 임팩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를 통해 학제 간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KAIST에 도전적·창의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도별 석박사모험연구 신규 과제 현황

연도	건수	주요내용
2012	11건	베타세포 전환기술개발, 온라인소셜네트워크, 3D 그래핀 나노구조체 기반한 슈퍼캐퍼시티 개발 등
2013	8건	뮤지엄 가이드 개발연구, 웨어러블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융합연구, 3차원 액정 lithography 등
2014	10건	전자책(e-book) 사용자 경험향상을 위한 시선 추적 시스템 개발, 초소형 바이오 센서개발, 자왜력 현미경 개발 등
2015	34건	감염성 질환 치료법, 약물내성 억제, 스트리트뷰 이미지 활용 증강현실 등
2016	41건	기능적 자기공명 분광법을 이용한 정서처리 뇌회로의 신경화학적 신호변화측정 및 정서상태 평가기술 개발, Ultra-fast non-volatile logic device 등
2017	40건	재난지역 탐사 및 정찰을 위한 무선조종 애니보그 개발, 3차원 원자단위 나노입자 분석 개발, 대뇌 시각피질에 위치한 방향성 지도 발달 모델 수립 및 검증 등
2018	39건	물 위에서의 인장실험을 통한 콜라겐 하이드로겔의 기계적 물성에 대한 연구, 튜불린 나노튜브를 이용한 새로운 암치료 전략 <타깃물질을 약물전달체 재료로> 등
2019	32건	기능성 고분자 박막을 이용한 신개념 뇌 아교세포 분리 방법 개발, 딥러닝과 메타데이터와 비디오를 활용한 이스포츠 하이라이트 영상 자동 생성화 등

3. 연구성과

연구논문

설립 당시 정부 예산 출연 방법 변경에 따라 연구 실험기기 구입은 1973년 3월이 되어서야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논문연구비 등을 모두 동원하여 우선 국내에서 실험장치와 시약을 구입했으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간단한 실험장치를 직접 가공·제작하기도 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수 개개인은 '고급과학기술 인재의 양성, 기초 및 응용연구와 타 기관의 연구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따라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육 및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자타가 인정할 만큼 높은 수준의 연구업적을 성취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수준에 비해 연구논문 발표실적이 현저히 높았다.

1989년까지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게재된 교수 논문의 국내 2,315편, 국외 2,583평 등 총 4,898편이었다. 교수 1인당 국내외 논문 발표 편수는 이학계 2.78편, 공학계 1.11편, 이공계 1.52편으로, 각각 0.079편, 0.040편, 0.055편인 전국대학 평균보다 월등히 많았다.

1980년대 말 세계의 유명대학이 그 나라의 총 논문 수에 기여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미국의 버클리 등 5개 대학이 각각 1%, 일본 동경대학 6.1%, 대만대학 14% 등이었다. 이에 비해 KAIST는 우리나라 총 논문 수에 기여하는 비율이 무려 29.8%였다.

그 배경에는 먼저 우수한 교수를 유치하여 비교적 높은 급여와 주택 제공 등을 지원하여 교수들이 생활 걱정 없이 연구와 교육에 몰두할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 병역특례와 학자금을 지급하여 장래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하여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었던 점이 작용했다. 또 외국차관의 도입으로 비교적 근대적인 실험 장비를 갖추어 외국수준의 연구를 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 초기에는 반발이 심했지만 교수 승진 시와 박사학위 취득 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외국학술지에 논문 발표를 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연구논문을 발표하도록 유도한 점이 있었다.

개원 당시부터 박사학위 수여의 조건으로 국제적 수준의 외국 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의무화한 대학은 KAIST뿐이었다. 따라서 국내 발간 학술지에서 발표하는 교수·연구원·학생들의 논문은 아무리 그 내용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세계의 학자들이 읽지 않고 대부분 사장되어 버렸고, 이 때문에 연구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초과학이 주류를 이루는 노벨상에 접근하기도 어려워지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1990년 이후 2000년까지 국제 학술지(SCI 대상 저널)에 발표된 KAIST 연구자들의 논문은 지난 총 1만 1,852편으로, 동일 기간 동일 조건 내 국내 총 논문의 15.9%를 차지했으며, 1991년 2.17편에 비해 1996년도부터는 교수 1인당 4편대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2000년 사이 KAIST 논문이 1편 이상 게재된 저널은 총 1,294종, KAIST가 발표한 논문이 100편 이상 게재된 저널은 16종(국내 저널 3종 포함)이었다.

KAIST가 해외와 협력하여 논문을 발표한 현황은 10년간(1991~2000) 외국인이 1인 이상 참여하여 공저한 논문이 전체 11.9%인 1,407편, 주 저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532편으로 전체의 4.5%였다. 총 50개국의 연구자들과 국제협력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808편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본(242편), 중국(62편), 영국(49편), 독일(42편), 러시아(41편) 등의 순이었다.

KAIST 2010~2019년간 전임교원 SCI 논문 통계 (연구자기준)

연도	SCI 논문수	전임재직 교원수	IF합계	교원1인당 발표논문수	교원1인당 평균 IF 합계
2010	2,056	587	6,784.37	3.5	11.56
2011	2,153	588	7,649.18	3.66	13.01
2012	2,169	597	8,192.21	3.63	13.72
2013	2,339	617	8,839.52	3.79	14.33
2014	2,472	623	10,887.76	3.97	17.48
2015	2,645	622	12,171.07	4.25	19.57
2016	2,739	628	13,042.17	4.36	20.77
2017	2,629	628	13,310.27	4.19	21.19
2018	2,741	631	16,463.01	4.34	26.09
2019	2,644	641	16,229.47	4.12	25.32

*(연도말 12월 31일자 전임재직 교원 기준)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는 ESI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 세계 10년간 SCI 논문을 조사하여 주제별 상위 1% 피인용 논문을 격월로 발표하고 있다. KAIST는 2020년 10월 기준(기간 2010~2020년 8월) 총 390편이 주제별 세계 상위 1% 피인용 논문에 포함되었다.

KAIST 최근 10년간(2010.1~2020.8) ESI 주제별 상위 1% 피인용 논문 수

No.	연구분야	SCI논문수	피인용수	논문당 피인용수	상위1% 논문수
1	CHEMISTRY	4,608	125,750	27.29	113
2	MATERIALS SCIENCE	4,603	137,234	29.81	103
3	ENGINEERING	6,700	62,006	9.25	40
4	PHYSICS	3,274	43,776	13.37	34
5	BIOLOGY & BIOCHEMISTRY	1,511	34,241	22.66	29
6	MOLECULAR BIOLOGY & GENETICS	602	20,332	33.77	15
7	COMPUTER SCIENCE	2,093	17,725	8.47	13
8	CLINICAL MEDICINE	826	12,835	15.54	13
9	SOCIAL SCIENCES, GENERAL	419	4,481	10.69	11
10	NEUROSCIENCE & BEHAVIOR	450	8,680	19.29	6
11	PHARMACOLOGY & TOXICOLOGY	166	4,183	25.2	3
전체	ALL FIELDS	27,558	493,279	17.9	390

국가 간의 글로벌 협력 연구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최근 10년간(2010~2020)의 KAIST 해외 협력 SCI 논문 수도 증가했다. 총 77개국의 연구자들과 국제협력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4,619편, 중국(1,209편), 일본(919편), 독일(817편), 영국(713편), 프랑스(594편) 등의 국가들과 활발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0~2020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논문발표실적 상위 국가 통계

No	국가/지역	논문수	% of 총 28,568건
1	미국	4,619	16.168%
2	중국	1,209	4.232%
3	일본	919	3.217%
4	독일	817	2.86%
5	영국	713	2.496%
6	프랑스	594	2.079%
7	인도	525	1.838%
8	스위스	464	1.624%
9	덴마크	417	1.46%
10	이탈리아	410	1.435%

수탁 연구

1972년부터 1990년까지 연구사업의 연도별 계약실적은 4,210건 총 30억 원에 이르렀으며, 1990년 들어와 정부주도연구는 58%, 수탁연구가 135%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KAIST의 연구수행 실적은 과제 건수 기준으로 연평균 6.76%의 성장을 보였으며, 연구비 기준으로는 연평균 21.49%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1991년 3,048만 9,000원이던 과제당 평균 연구비가 2000년에는 9,097만 원으로 증가하여 수행 과제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했다. 1991년 금액 기준으로 48.97%에 해당하던 일반수탁 연구사업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낮아져 2000년에는 19.63%를 나타냈으며, 상대적으로 정부주도연구사업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KAIST 전임교원 연구비 통계

(단위: 천 원)

연도	전임 교원수	전임교원 과제수	전임교원 총연구비	교원 1인당 연구비	
				교내연구비	교외연구비
2009	553	1,378	192,528,716	41,998.0	307,413.4
2010	586	1,443	192,375,729	26,039.9	302,246.3
2011	588	1,608	224,903,086	32,740.1	353,628.4
2012	604	1,631	237,981,811	31,752.1	362,692.4
2013	615	1,749	234,575,290	28,321.5	353,648.7
2014	615	1,790	251,673,221	39,064.5	370,492.8
2015	622	1,819	252,442,688	41,774.7	364,673.6
2016	623	1,846	260,182,999	38,028.4	380,470.4
2017	627	2,026	299,330,143	22,383.9	456,739.8
2018	636	2,026	315,395,784	35,155.8	460,749.5
2019	634	2,280	378,868,799	43,452.7	558,896.7

1973년 4건의 일반수탁사업 과제에 연구비 약 4,200만으로 시작된 KAIST의 연구사업 성과는 1982년 처음 정부주도연구사업 4건을 추가하여 총 91개 과제에 연구비 10억 원대를 넘어섰으며, 1990년에는 총 연구비 100억 원대(과제 수 504건)를 넘어섰다. 1996년에는 일반수탁사업과 정부주도연구사업을 합해 처음으로 과제 수가 1,000건을 넘었으며, 2003년에는 총 연구비 약 1,151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억 원대 연구비 시대를 열었다. 이어 2009년에는 연구비 총액 약 2,416억 원(과제 수 1,717건)으로 처음 2,000억 원대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총 연구비 약 3,287억 원(과제 수 2,223건)으로 3,000억 원대에 진입했다.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매년 4월 1일자 재직교원 기준)에 따르면 KAIST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2009년 3억 4,941만 1,000원에서 2019년 6억 234만 9,000원으로, 1인당 평균 연구비가 2억 5,293만 8,000원으로 72%의 증가했다. 2019년 국내 교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7,6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연구비 상위대학 10개가 발표되는데, KAIST는 전체 규모 순위로는 서울대 등 종합대학에 밀려 3~4위를 기록하지만, 상대 규모(1인당 연구비)에서는 포스텍과 함께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KAIST 기관 전체 일반수탁사업 과제는 724건에 연구비 약 1,000억 원, 정부주도연구사업 과제 1,821건에 연구비 약 3,142억 원을 기록하며 총연구비 4,0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이로써 1971년 설립 이후 2019년까지 KAIST가 수탁한 연구사업 과제는 총 4만 1,103건, 총 연구비는 4조 6,928억 원에 달한다.

재원별, 연도별 연구실적 통계

(단위: 건, 천 원)

연도	일반수탁 연구사업		정부주도 연구사업		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2010	496	38,185,476	1,298	212,835,661	1,794	251,021,137
2011	454	36,258,454	1,365	225,042,389	1,819	261,300,843
2012	424	36,756,457	1,385	231,716,009	1,809	268,472,466
2013	461	44,144,454	1,472	217,013,156	1,933	261,157,610
2014	448	45,980,422	1,519	230,365,129	1,967	276,345,551
2015	424	45,059,567	1,580	233,453,054	2,004	278,512,622
2016	468	51,737,839	1,568	245,403,392	2,036	297,141,231
2017	594	71,140,243	1,629	257,550,731	2,223	328,690,975
2018	689	86,879,141	1,575	259,555,158	2,264	346,434,299
2019	724	100,984,480	1,821	314,262,041	2,545	415,246,521

※전체자료는 자료집 참조

특허 및 기술이전

KAIST는 1985년에 처음으로 연구성과를 실제 제품생산, 원가절감 등 생산과정에 적용해 취득하는 기술료 계약을 실시한 이후 2000년까지 총 86건의 기술이전, 약 56억 1,700만 원의 기술료 계약 실적, 약 24억 9,400만 원의 계약료 징수 실적을 기록했다. 이후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간 744건의 기술이전과 약 517억 5,000만 원의 기술료 계약, 약 421억 6,000만 원의 기술료 징수 실적을 추가로 기록했다.

특허의 경우 1976년에 처음 국내 특허 등록(1974년 출원)을 시작으로, 1990년 21건 출원, 19건 등록에 이르기까지 총 142건 출원, 72건 등록 실적을 기록했다. 약 10년 후인 2001년에는 236건 출원, 154건 등록을 기록하고, 이후 20년 후인 2019년에는 1,011건 출원에 687건을 등록했다.

국외 특허는 1983년 처음 출원과 1986년 첫 등록을 마쳤으며, 1990년까지 총 53건 출원, 12건 등록을 기록했다. 2001년에 163건 출원에 76건 등록으로 늘어난 특허 건수는 2019년 430건 출원에 197건 등록을 기록했다.

KAIST는 2007년 1월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 보유 1위'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조사 대상 기준일인 2005년 말 KAIST의 국내 특허등록 건수는 1,285건, 해외 특허등록 건수는 423건이었다. 이어 2011년 103건의 해외 특허를 출원해 해외 특허를 출원한 세계 52개 대학 중 5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특허등록 수는 연구 성과 상용화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며, 2015년 9월 로이터

통신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100곳' 중 KAIST를 10위에 올리는 기반이 되었다.

2019년 5월에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국내 기관의 특허 분석 결과 미국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국내 대학으로 KAIST를 선정했다. KAIST의 미국 내 출원 특허 건수는 2,297건으로 전체 1만 2,941건 중 17.8%에 이르렀다. 또한,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와 국립발명학술원이 공동 조사한 결과 2019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한 한국 대학은 KAIST(1위, 86건)였다. 아울러 또 2019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지식재산 전문가 연례행사(IPBC) 아시아 2019'에서 KAIST는 대학 R&D 분야 '아시아 최고 지식재산 리더'로 선정되어 지식재산권 경영에 관한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았다.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통계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지식재산권(국내)		지식재산권(국외)		기술이전계약	
	출원건 수	등록건 수	출원건 수	등록건 수	계약건 수	계약금액
2010	1,047	450	212	83	40	3,023
2011	1,059	746	114	44	47	3,874
2012	1,139	850	242	95	48	3,336
2013	938	894	244	91	46	2,735
2014	947	1,009	230	106	40	1,994
2015	1,042	691	321	108	61	2,088
2016	1,009	637	327	121	61	5,641
2017	1,073	722	360	156	45	3,239
2018	1,070	772	350	161	63	5,312
2019	1,011	687	430	197	58	10,032

※ 전체자료는 자료집 참조

이어 2020년 7월에는 지식재산권 경영에 대한 정량적 성과를 인정받아 '특허 품질경영 우수기관' 및 '공공특허 기술이전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KAIST는 2019년 한 해 동안 58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총 101억 8,300만 원의 기술이전료 수입을 달성하여 국내 대학 최초로 연간 기술이전료 수입 100억 원을 달성했다.

주요 훈·포장 및 포상

단기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해온 KAIST의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정부 훈·포장 및 주요 과학상을 휩쓸어 왔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1968년 제정한 대한민국과학기술상을 2003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업적을 쌓은 과학기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한다. 세계적인 연구개발업적으로 국가 발전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자연과학·공학·농수산·의약학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2004년 윤덕용(신소재공학과) 교수가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이후 2005년

이재영(신소재공학과)·유룡(화학과) 교수, 2012년 신성철(물리학과) 교수, 2015년 이용희(물리학과) 교수, 2017년 이상엽(생명화학공학과)·황규영(전산학부) 교수, 2019년 장석복(화학과) 교수가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다.

한국과학상은 자연과학 분야의 주요 원리를 규명하여 세계적 수준의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과학자를 발굴·포상하여 국내 기초과학 연구 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북돋우기 위하여 수여한다. 수학·물리학·화학·생명과학 분야별로 1명씩 선정하며 대통령 상장 및 상이 수여된다.

1989년 심상철(화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1994년 김성각(화학과) 교수, 2000년 장기주(물리학과) 교수, 2010년 이용희(물리학과) 교수, 2011년 최기운(물리학과) 교수, 2013년 장석복(화학과) 교수, 2016년 임대식(생명과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한국공학상은 공학 분야에서 세계 정상 수준의 연구개발성과를 이룩한 과학기술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자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포상 분야는 제1군(전기·전자·컴퓨터·정보통신 등), 제2군(기계·금속·세라믹·항공·조선·산업공학 등), 제3군(화공·식품·고분자·섬유·생물공학·공업화학 등), 제4군(에너지·건축·토목·환경 등)으로 분류하여 군별로 각 1명씩 선정한다.

1994년 조장희(전기및전자공학부)·최창근(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1996년 장호남(생명화학공학과) 교수, 2000년 이재영(신소재공학과)·김성철(생명화학공학과) 교수, 2002년 남수우(신소재공학과)·김상돈(생명화학공학과) 교수, 2004년 곽병만(기계공학과)·우성일(생명화학공학과) 교수, 2006년 이종원(기계공학과) 교수, 2008년 나정웅(전기및전자공학부)·최병규(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2010년 강석중(신소재공학과) 교수, 2012년 황규영(전산학부)·양동렬(기계공학과) 교수, 2014년 이정용(EEWS 대학원) 교수, 2016년 문건우(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가 수상했다.

과학기술유공자는 2015년 12월 22일 제정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80호)'에 따라 지정되는 국가유공자로서,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과학기술인이다.

2017년 이태규(화학과)·윤덕용(신소재공학과)·조순탁(물리학과)·최순달(전기및전자공학과)·최형섭(화학과) 교수가, 2018년 심상철(화학과) 교수가, 2019년 이상수(물리학과)·김충기(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가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되었다.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의 시대적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 앙양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하고자 2001년부터 신설한 훈장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종류는 모두 5등급으로 나뉘며, 최고 등급인 1등급의 명칭이 창조장이다.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으로서 직무에 정진하여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종류는 모두 5등급으로 나뉘며 최고 등급인 1등급의 명칭이 청조근정훈장이다.

2006년 조의환(화학과) 교수, 2007년 신성철(물리학과) 교수, 2009년 조형석(기계공학과) 교수, 2010년 류근철(초빙특훈교수) 박사, 2011년 남수우(재료공학과) 교수, 2014년 최순달(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 2015년 양동열(기계공학과) 교수, 2016년 오준호(기계공학과) 교수가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수훈했으며, 2009년 홍창선(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청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특훈교수(2009년)와 총장자문위 위원(2008년)을 역임한 김명자 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전 환경부 장관 및 17대 국회의원)은 2004년 청조근정훈장, 2015년 창조장 수훈에 이어 2020년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되었다.

Ⅳ

협력

COOPERATION

1. 국제협력

2. 산학협력

1. 국제협력

국제협력의 배경과 역사

KAIST는 1971년 미국 USAID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따라서 설립 및 초기 운영 자체부터 국제협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원 당시 교수진 대다수가 해외에서 활발히 연구하던 과학자들이었기 때문에 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소들과의 협력이 비교적 용이했다. 설립 후 한국과학원의 국제협력 업무는 원장 직속의 주미연락조정실에서 주로 담당하다가 1979년 주미연락조정실이 폐지되면서 원장 산하의 기획개발실에서 맡게 되었고, 1983년 KAIST 조직 내에 처음으로 국제협력과가 편제되어 국제협력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화를 앞당기는 포석이 되었다.

1984년 8월 22일 일본 이화학연구소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KAIST는 국제협력의 폭을 넓히며 세계를 향한 행보에 더욱 속도를 냈다. 1984년 9월 UN대학 37번째 분교로 가입한 이후 KAIST는 이를 계기로 UN과 한국과의 창구기관으로서 다른 회원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구원 상호교환, 훈련생 연수 및 파견, 공동연구 사업 등 국제적 학술교류를 활발히 추진했다.

2005년에는 'KAIST 글로벌라이제이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주요하게 추진한 것은 우수 신임교수 유치 및 세계 석학급 외국인 교수 유치, 교육·연구성과에 따른 파격적인 차등 인센티브제 도입, 국제적 수준의 시설과 연구 인프라 확충, 인용지수(IF)가 높은 세계 TOP 10 저널(Nature, Science, Cell 등) 게재 실적 확대, 학생 전인교육 강화를 위한 리더십센터 설치 등이다.

국제여름학교 오리엔테이션 1993.07.05.

또한, 캠퍼스 국제화를 위한 노력으로 2008년 외국인 학생 지원을 위한 조직인 OASIS(Office of Advising &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를 설치하고, 이후 2013년에 외국인 교원 정착 지원을 포함하여 ISSS(International Scholar and Student Services)로 조직을 확대했다. 2010년 7월 9일에는 국제화 도약을 위한 국제교류센터(International Center)를 준공했고, 국제협력팀과 국제교원및학생지원팀이 입주하여 외국인 학생과 외국인 교원을 위한 학사·생활·행정·문화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자 및 출입국 관련 업무처리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 11월 8일, 학술문화관 4층에 220㎡(약 67평)의 규모로 국제협력처 글로벌라운지를 오픈했다. 글로벌라운지는 KAIST 구성원들이 국적·종교·종족 등에 관계없이 유기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쌓고 내·외국인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위한 장이 되었다.

2010년에 들어 KAIST는 단기 훈련이나 개별 교수진·학생 교류를 넘어 해외 대학에 KAIST 모델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먼저 2008년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에서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양국 정부 협약에 따라 2010년 9월 KAIST는 칼리파과학기술연구대학(KUSTAR)과의 교육·연구 협력 및 고급 연구개발 인력양성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KAIST는 'KUSTAR-KAIST 원자력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교육 및 연구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했으며, 2011년 3월 13일 KUSTAR와 공동연구 MOU를 체결했다. 또한 2019년에는 칼리파대학(Khalif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U로 개명)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공동연구를 위한 KAIST-KU 공동연구센터를 개소했다.

한편 KAIST는 2018년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외 원조 차관으로 추진하는 케냐과학기술원 건립 컨설팅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약 1,000억 원 규모의 캠퍼스 건설 및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설계 사업을 맡게 되었다. 이에 앞서 KAIST는 수출입은행이 발주한 2014~2015년 케냐과학기술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케냐과학기술원은 '아프리카의 실리콘 사바나'로 불리는 콘자 기술혁신도시(Konza Technopolis)에 설립 예정으로, 2019년 2월 사업 발주처인 케냐 교육부와 콘자개발청, 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여 착수식(kick-off ceremony)을 거행했다. 그동안 중동이나 중국에 교육·연구 관련 프로그램을 일부 수출한 적은 있지만 KAIST의 교육·연구 모델을 100% 그대로 수출하는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국제교류센터(International Center) 개관식 2010.0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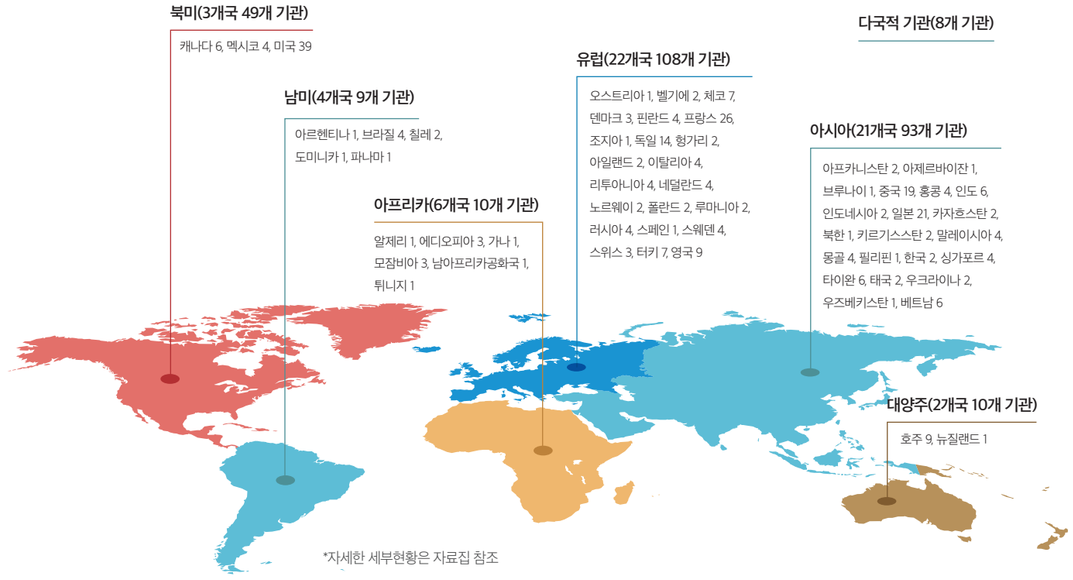
지난 20년 동안 KAIST는 특정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참여하면서 과학기술 중심의 세계 우수대학 간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세계 과학기술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을 재조명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세계연구중심대학총장포럼(IPFGRU)과 총장자문위원회의(PAC)를 개최하여 국내외 산·학·연의 정상급 전문가들을 초빙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자문을 구하여 KAIST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KAIST는 개교 50년 만에 '원조받는 대학'에서 '원조하는 대학'으로 변모했고, 대한민국의 KAIST를 넘어 세계의 KAIST가 되었으며, 그 도전과 개척의 역사에 국제협력의 역할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해외기관과의 협력 협정

기본협력협정은 일반협력협정이라고도 하며 KAIST와 해당 기관과의 일반적인 협력을 규정하는 것으로, 학생 및 교수 교환 추진, 복수·공동학위 추진, 공동연구 추진 등의 향후 협력의 근거가 된다. 이하 부속협력협정으로 학생교환협정, 복수·공동학위협정, 특정협력협정 등이 있다. 그 중 특정협력협정은 장학금·공동연구·특별프로그램 등 기타 특별한 협력이 있을 경우를 규정한다. 협정의 기간은 협력내용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으로 정해지며, 연속성이 있는 경우 협정을 갱신하여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현재 KAIST가 협력협정을 맺고 있는 대륙별·국가별 해외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세부현황은 자료집 참조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KAIST는 현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국제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

ASPIRE(Asian Science and Technology Pioneering Institutes of Research and Education) League(아시아 주요 5개 과학기술대학 협의체)

- 아시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구축된 KAIST·홍콩과기대·난양공대·칭화대·동경공대 간의 컨소시움
- 매년 멤버대학 간 공동연구(Research Grant) 및 컨퍼런스 진행
- UGRA(Undergraduate Research Academy) 기획 등 학부생들의 연구 참여를 독려하고 글로벌 연구 리더십 확보 추구

AEARU(Association of East Asian Research Universities,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

-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의 18개 연구중심대학들 간 연례회의 및 협력사업 추진

APRU(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환태평양대학협회)

- UC버클리·스탠포드·시드니대·홍콩대·북경대·도쿄대·NUS·KAIST·서울대 등 환태평양 지역 50여 개 대학 연합체
- 총장·부총장·처장 레벨 등 다양한 교류협력 행사 추진

한·중·일 캠퍼스아시아(Campus Asia) 컨소시움 구성

- KAIST·동경공대·칭화대 간 공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
- 봄/가을 정규학기 기반 학점취득 학생교환 프로그램
- 방학 중 단기 학생교류 프로그램(여름/겨울학교)
- 방문연구학생 프로그램(연중)

국제학생 교류 프로그램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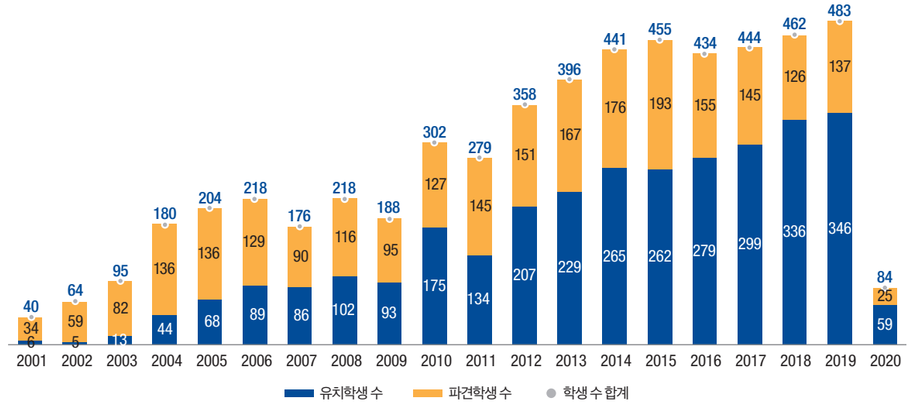
KAIST는 뮌헨공대, 덴마크공대, 싱가폴국립대, 홍콩과기대, Georgia Tech. 등 해외 유명 대학과의 학생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환학생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국제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있다.

- KAIST 국제여름학교(KISS, KAIST International Summer School): 매년 100명 규모의 협력대학 외국인 학생 참여(4주 프로그램), Education 4.0 강의를 포함한 교과과정 및 연구중심 프로그램 운영, 템플스테이, 전통문화유적지 방문, 태권도 체험 등 한국문화 경험 및 교류활동 등

- Leeds-KAIST Leadership Program: 영국 Univ. of Leeds 및 KAIST 학생팀 구성, Societal Problem, Entrepreneurial Issue 집중토론/현장견학 및 해결방안 제시 학습
- 연구인턴십 파견/유치 운영: Ecole Polytechnique 파견, University of Waterloo 유치
- 방문연구학생 프로그램(Visiting Student Researcher Program) 운영

2019년 국제 학생 교류는 32개국 104개 기관과 346명의 학생 유치, 137명의 학생 파견 등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20년 21개국 41개 기관과 59명의 학생 유치 25명의 학생 파견 규모를 보이다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봄부터 중도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가을 프로그램을 취소하게 되었다.

국제 학생 교류 현황



학과 차원 국제협력/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모든 학과에서 해외 석학 연구 자문 및 세미나 초청, 복수학위/학생교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교류 대학과의 세미나·워크숍·심포지엄을 공동 혹은 단독 개최하고 있다.

- **수리과학** : KAIST-HKUST-NUS Joint Workshop 등
- **의과학** : KAIST Genomics Symposium, Academia Sinica-KAIST Joint Symposium 등

- **기계공학** : 카이스트-동경대-상해교통대학 해양과학기술 국제공동 심포지엄, DTU-KAIST 풍력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국제 워크숍, KAIST-Kyushu Univ. Joint Workshop 등
- **항공우주** : KAIST-Kyushu Univ. Joint Symposium, KAIST-HKUST-RMIT Joint Workshop 등
- **전기및전자** : KAIST EE Liaison Program(파키스탄·중국·인도네시아·에콰도르·베트남·에티오피아) 등
- **바이오및뇌공학** : NTU-KAIST Joint Workshop, NUS-KAIST Joint Workshop 등
- **산업디자인** : KAIST-Kyushu대학 워크숍, 중국 칭화대 연구교류 워크숍,
- **산업및시스템** : 핀란드 Tampere University of Technology Joint Workshop 등
- **생명화학** : KAIST-칭화대 Joint Workshop, International Symposium on Chemical Engineering
- **신소재** : KAIST-Northwestern Univ. Joint Workshop, KAIST-Technion Workshop 등
- **원자력및양자** : KAIST-Cambridge Univ. Workshop

THE 2019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 발표 현장에서 축사하는 신성철 총장 2019.04.04.

이밖에 미국 보잉(항공우주), Intel(전기및전자), 프랑스 INRIA(수리과학·전산) 등 해외 산업 또는 연구기관과 원활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타 국제협력교류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 **기계공학** : 유럽연구소와의 공동학위 수립 협력사업(독일·이탈리아·영국)
- **전기및전자공학부·전산학부** : 해외 대학 학부생 대상 KAIST 국제 캠프 운영
- **산업및시스템** : iPodia 국제공동강의(USC, 북경대, RWTH Aachen Univ., Technion 등)

외국인 학생 및 교원 지원 프로그램

외국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	외국인 교원 지원 프로그램
•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봄/가을학기) • 외국인 신입생 핸드북 제작 • 비자 및 출입국 업무 대행 서비스 제공 • 학교 공식 행사 및 회의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 외국인 학생을 위한 International Kitchen 운영 • 다양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국가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국제화 인증 동아리 지원 • 버디 프로그램 /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간 교류 활성화 추진 • 외국인 학생 및 가족 상담 서비스 제공 • International Food Festival 및 Sports Festival 개최 • 재학생 국가별 소개 및 문화교류 행사(KAIST ONE) 개최 • 외국인학생회(KISA) 활동 지원	• 외국인 신임교수 오리엔테이션 개최(개별) • 전임직 외국인 신임교수 공항 영접 서비스(최초 1회) • 외국인 신임교수 핸드북 제작 • 비자 및 출입국 업무 대행 서비스 제공 • 학교 공식 행사 및 회의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 Discover Korea(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교원 및 가족의 한국어 교육 지원 • 국제화진흥추진단(KICEP) 구성 및 운영 • 버디프로그램을 통한 교원 및 연구원 간 교류 활성화 추진 • 외국인 교원 및 가족 상담 서비스 제공 • 외국인 교원 및 가족 간담회 행사 개최

2. 산학협력

기술가치창출원

Institute of Technology Value Creation
1994~2021

기술이전·산학협력을 통한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 대학

KAIST는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해왔다.

기업은 대학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고, 대학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때문에 대학의 기술 가치창출은 지식 기반 사회에서 기업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된다. 이를 위해 KAIST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4년 12월 기존 기술혁신센터(TIC)와 기술창업지원센터(TBI)를 통합운영하는 KAIST-TIC/TBI센터을 설립하고, 1997년 9월에는 신기술창업지원단(HTVC)으로 확대 발족했으며, 2006년 3월 산학협력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0년 9월 산학협력단 '비전 2025'를 수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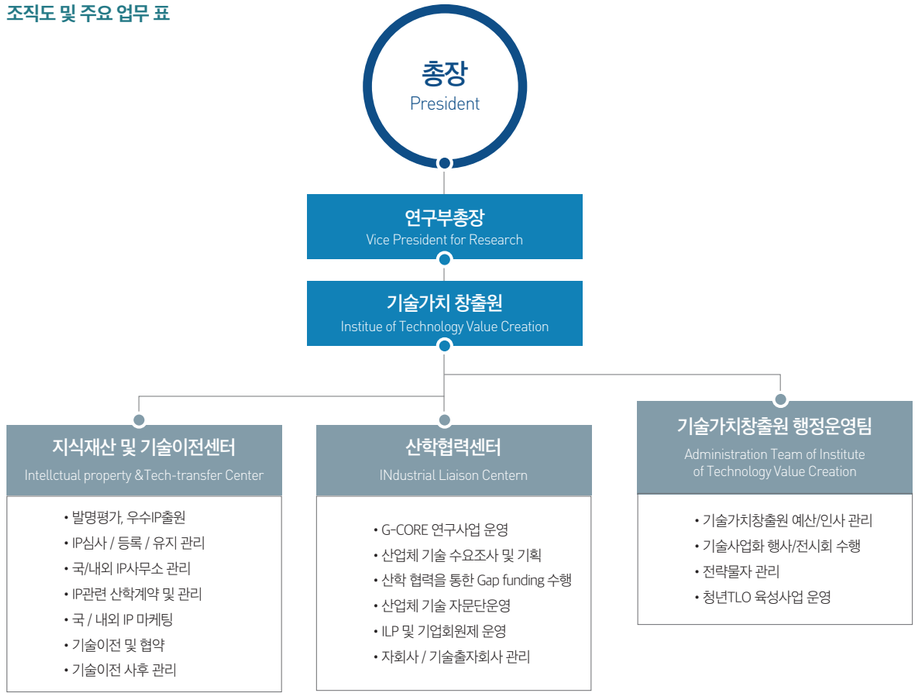
2006년과 2011년 대학선도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데 이어 2011년 12월에 산학협력단 단일연도 최대수익을 달성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술이전과 산학협력 실적을 이뤄내었다.

2017년 4월에는 글로벌산학협력연구센터(G-CORE)를 설립하여 글로벌우수인재와 기업이 산업체 수요 중심의 R&D를 수행하고 지식재산, 기술이전,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구현하고, 같은 해 11월 20일 기술사업화 유공자로 선정되어 KAIST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청년지식재산인상 국가지식재산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2019년 11월에는 공공특허 기술이전 우수기관 특허청장상에 이어 IPBC Asia, Asia IP Elite 및 Team of the year, Asia IP Elite상을 수상했다. 2019년 12월 20일 국내대학 최초로 기술료 수입 100억 원을 달성하고, 2020년 7월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공공특허 기술이전 우수기관 특허청장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 11월에는 한국 산업진흥원으로부터 공공 부분 국가기술이전 유공자 포상을 받는 등 기술사업화 부분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었다.

KAIST 지난 50년간의 교육 연구 중심의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해 왔다. 향후 50년을 준비하며 한 단계 도약하고, KAIST의 우수한 연구 결과를 산업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기술가치창출을 위해 2020년 4월 산학협력단을 기술가치창출원으로 변경했다. 기술가치창출원 내에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 산학협력센터, 기술가치창출원 행정운영팀 등의 3개의 전문 조직을 두고, 국제적 고품격 지식 재산을 개발하고 있으며, KAIST 기술로 기업 지원 및 신사업 창출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직도 및 주요 업무 표



2018 K-Global 기술컨퍼런스 2018.02.22.

KAIST 창업원

Institute for Startup KAIST 2014~2021

Stop Thinking, Start Doing- Startup KAIST

기존의 KAIST 창업지원은 KAIST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을 산업체 또는 창업희망자에게 이전하거나 창업 초기 단계의 신생기업을 보육하는 등 기술 중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따라 창업 마인드를 육성하고 캠퍼스 창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입문 수준의 창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창업네트워크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KAIST 인재들이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연구소 취업만을 선호하기보다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창업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4년 4월 1일 KAIST 창업원(Institute for Startup KAIST)을 설립했다.

Startup KAIST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이라는 국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KAIST가 선도하는 창업 활성화 운동이기도 하다. KAIST창업원은 이 운동을 통해 한국 토양에 맞는 기술창업 생태계의 성공적인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핵심 임무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미션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가정신 문화(Entrepreneurship Culture) 조성
-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기업 성장에 따른 모든 주기를 지원하는 에코시스템(Growth Ecosystem) 구축
- 글로벌 시장 잠재력이 큰 기업(Globally-sustained Startups) 발굴 및 지속력 강화

2014년 4월 7일, 'Stop Thinking, Start Doing'라는 슬로건과 함께 Startup KAIST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Startup KAIST는 캠퍼스 내에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또한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KAIST 구성원 및 예비창업자가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가적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K-School, 창업원운영팀, 창업지원실, 판교센터, 아이디어팩토리, 창업보육센터, 지역협력센터, 기업가정신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원 설립 이래 2020년 가을까지 총 169개의 프로그램에 2만 1,855명이 참여했다.

KAIST 창업원은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모델 조성을 목표로 꾸준히 정진하여 많은 결실을 거두었다. 최근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 창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곧 기업가정신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창업원이 지원한 스타트업 중 일부는,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유의미한 발전을 이루었다.

2019년에도 창업자들에게 기술사업화·네트워킹·K-School과의 협동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개가 넘는 신생 스타트업이 창업원의 도움을 받아 설립되었다.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고 성공사례의 숫자가 일정한 임계량에 도달하게 되면 창업원의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KAIST 출신 창업기업은 2017년 말 기준 자산총액 31조 9,000억 원, 총매출액 약 18조 6,000억 원에 육박하며, 4만 5,000여 개의 일자리를 배출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대표적인 동문창업 기업으로는 네이버·넥슨(NEXON) 등이 있으며 전체 기업 중 70개 기업이 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다.

KAIST 학생들은 총 105개사의 신규 창업기업을 배출했으며, 교원창업도 총 32개에 이른다.

학생창업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학사과정	5	4	7	5	3	7	31
석사과정	6	4	3	5	8	6	32
박사과정	4	10	7	5	10	6	42
전체현황	15	18	17	15	21	19	105

* 교내 창업지원 제도 활용 및 자체 파악된 학생창업자에 한하며, 별도 지원 없이 개별 창업한 경우 본 통계에서 누락됨(창업 당시 재학 기준)

교원창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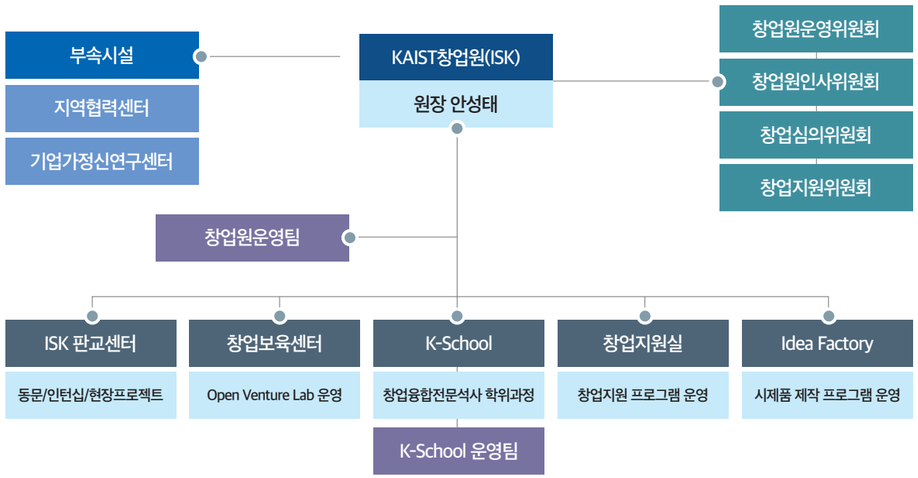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교원창업	2	8	2	9	7	4	32

* 교원창업 심의를 거쳐 창업한 교원에 한함

KAIST 창업원의 조직 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창업원 교육

조직 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

부서명	주요 업무	부서명	주요 업무
K-School	• 창업융합전문석사과정 운영 • 창업대학원 및 기업가정신 부전공프로그램 운영 • CUop프로그램(산학협력인턴십, 융합캡스톤디자인) 운영	창업 보육센터	•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지속성장하는 스타기업으로 육성 • 입주공간 제공 및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일반 국민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오픈벤처랩) 운영
창업 지원실	• 학생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 • 창업 컨설팅, 네트워킹, 펀딩 지원 •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창업원 운영팀	• 교원창업 지원 • 창업원 조직, 인사, 예산, 시설관리 등 • 대내외 협력방안 수립
판교센터	• 판교 입주기업 인턴십 및 현장 프로젝트 지원 • 학생창업 멘토 지원을 위한 동문기업 및 벤처기업 유치 • 판교지역 스타트업 네트워킹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협력센터	• 기술사업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전 지역협력사업 추진 • IR영상센터 운영
아이디어 팩토리	•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창업 관심자를 위한 Maker's Lab, DITO 프로그램 운영	기업가정신 연구센터	• 기업가정신, 기술경영, 벤처 및 중소·중견 기업 관련 연구 • 기업가정신 및 기술경영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 기업가정신 및 벤처 활성화 지원

주요 연혁

- 2014.04.01. KAIST 기업가정신진흥원 설치
- 2015.06.09. KAIST 창업원 설치(KAIST기업가정신진흥원 명칭 변경)
- 2015.12.14. 판교센터 설치
- 2016.03.17. K-School 설치(2016년 가을학기부터 창업융합전문석사과정 운영)
- 2017.08.28. K-School 창업대학원부전공프로그램 운영(석사)
- 2018.08.01. 아이디어팩토리 설치
- 2020.04.01. KAIST 창업원 산하로 창업보육센터 조직개편

대표적인 세부 운영 프로그램 및 창원지원 접점센터, 시설은 다음과 같다.

창업문화 확산프로그램

• Entrepreneurship Lunch Talk

학생들이 스타트업에 꾸준히 도전하고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창업가의 실제적인 창업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시행착오를 해소하고자 한다.

그동안 총 57회, 5,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업가정신 및 창업문화 확산의 대표 브랜드 정착, 초빙 연사와 사후 프로그램 기획 등 시너지 효과,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기업과 우수인력 간의 리크루팅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창업동아리

학내 학생이 주도하고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내 창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모임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창업동아리를 선정하여 자체 기획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창업 관련 세미나·워크숍·해커톤 개최, 학생 간 창업네트워크 조성 및 대외 네트워크 조성 활동, 학내 외국인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창업 및 실전 교육프로그램

• 창업융합전문석사과정

K-School에서 운영하는 창업융합전문석사과정은 기존의 연구중심 교육이 아닌 실습을 통한 문제해결형 교육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업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전문석사과정이다. 2021학년도 봄학기 기준 KAIST의 21개 학과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K-School은 이 과정에서 KAIST의 특화된 공학교육에 기업가정신 접목을 통해 과학기술기반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창업 인재를 양성하고, 문제 해결형 교과목 운영, 기업가정신 및 스타트업 관련 이론과 실제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도전정신과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 CUop Program

CUop Program은 미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실무문제 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 실무와 이론을 조화시킨 프로그램이다. 기업과 학생이 공동으로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문제 정의 및 해결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고한다.

1단계 Coop 프로그램(산학협력 인턴십)에서 참가 학생은 방학 기간(8주) 동안 기업이 제시한 과제에 대하여 기업 내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정의한다. 2단계 Engineering-Clinic 프로그램(융합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중심 정규수업)은 교내의 지도교수와 학생(팀)이 정규학기 기간(16주) 동안 Coop 프로그램에서 정의된 과제를 해결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게 된다.

• E * 5

E * 5는 창업가의 필요역량, 즉 Excited·Encouraged·Enthusiastic·Educated·Experienced을 의미한다.

'E * 5 LabStartup'는 연구실 기반의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팀 지원 및 예산 1억 원을 배정하여 사업화를 위한 시뮬레이션과 자금을 지원했다. 'E*5 KAIST'는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제도로, 단계별 미션 수행을 통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도록 한다.

E*5 학생창업 오디션 수상자

사업화 및 창업지원프로그램

• End-Run(사업화 도약과제)

이 제도는 'Startup-End-Run' 단계에서 글로벌 혁신기술이 상용화 기술로 이어지도록 지원하여, 우수 기술이 기술이전 및 창업으로 연계되는 생태통로 역할을 한다. 'M-End-Run' 단계에서는 기관 간의 실질적인 연구 교류를 통해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사업화 유망기술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하여 의료 선진화에 구현한다.

아이디어 검증 분야와 시제품 개발 분야로 구분하여 과제를 선정·지원하며, KAIST 단독연구 및 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사업화 유망기술을 공동으로 발굴한다. 또 ICT 및 의료기반 End-Run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기술사업화 강화를 위해 기관 맞춤형 End-Run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4년부터 총 176개 과제에 146억 원을 투자했다.

• 오픈벤처랩

오픈벤처랩은 KAIST가 보유한 우수한 R&D 역량과 창업 및 기술지원 인프라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했다. 예비창업자와 KAIST가 보유한 국제적 수준의 연구성과(IP 등)을 매칭하여 글로벌 하이텍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KAIST 인프라(전문기술인력·공간·설비 등)를 예비창업자들에게 개방하여 창업 전(前) 단계에 교육, 기술 코칭 및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창업동아리 간담회 2013.10.17.

창업지원 접점센터 및 시설

• 지역협력센터

KAIST 창업원 지역협력센터는 1단계(2010~2013년)로 기술경영전문대학원(I&TM) 설립 운영사업을 통해 지역 산·학·연의 혁신역량 강화(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어 2단계(2014~2018년)로 글로벌성장사다리 구축운영사업, Global-up 사업을 추진, 지역 인재양성(창업가·기업임직원) 및 기업의 지속성장(시장검증, 투자연계 등)을 지원했으며,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역량 강화 및 해외 사업화도 지원했다. 마지막 3단계(2018~)에서는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사업, 생생해커톤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스타트업·유망기업의 IR 지원을 통해 투자 중심 기업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했다.

IR영상센터는 KAIST를 중심으로 한 기술사업화 성공모델 구축 및 기반 조성, 대전광역시 및 대덕특구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술사업화 허브 구축, KAIST의 우수 콘텐츠를 연계한 비학위 교육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설립 목적이 있다. 이 목표 아래 KAIST의 우수한 기술·인력·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기업들의 인재양성, 사업 성장지원, 글로벌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지속성장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 판교센터

이 센터에서는 대학과 기업 간 현장 연계로 KAIST 동문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교육·강연·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AIST Startup팅'은 스타트업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KAIST 인재 매칭 및 기술 트렌드 공유를 위한 Casual Meetup이며, 'Tech Meetup/Startup People at Pangyo'는 과학기술 산업 전반에서 집중 조명되고 있는 핵심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하여 스타트업 종사자, 학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강의 및 패널토론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KAIST 비즈니스 커뮤니티 정기 세미나'는 과학기술회(KAIST CEO그룹)와 KAIST-VC모임(KAIST VC 네트워크) 정기 세미나 지원을 통해 KAIST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창업보육센터(TBIC, Technology Business Incubation Center)

창업보육센터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된 연구성과 등 기술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고 기술집약적 신생 벤처 및 중소기업을 입주시켜 기술·경영·정보·시설·네트워킹 구축 등 제반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및 보육·육성함으로써 국가산업기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1990년대 KAIST는 당시 연구성과를 실용화하고 그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스탠포드의 실리콘밸리와 MIT의 테크놀로지스퀘어, 케임브리지의 사이언스파크 등 선진국의 기술혁신·창업지원센터가 대학 주변에 위치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KAIST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2년 초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당시 과학기술처 승인으로 기술혁신센터(TIC)와 기술창업보육센터(TBI) 설립을 추진했으며,

신성철 총장 판교센터 방문 2017.05.30.

아이디어팩토리 제품전시회 2017.04.25.

스타트업 KAIST 설명회

1994년 12월 기술혁신센터 및 기술창업보육센터(KAIST TIC/TBI)로 통합되어 국내 대학 최초로 개소식을 갖고 출범했다.

1994년 쎄트리연구소·다림비전·인터시스·마리텔레콤·건아기전 등 벤처기업 입주가 시작되었고,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997년 신기술창업지원단(HTVC; High Tech Venture Center)으로 확대 개편했다. 신기술창업지원단은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체제로 구축되어 신기술창업종합지원사업, 입주기업보육지원사업, 기술경쟁력평가사업, 연구성과지원사업, 기술이전 및 협력지원사업, KAIST브랜드육성지원사업 등을 수행했다.

2005년 창업보육사업의 부처 간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되어 부처별로 운영되던 창업보육센터 사업이 중소기업청으로 통합됨에 따라 과학기술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 운영되었다. 2006년 신기술창업지원단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명칭 및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 ICU와 KAIST의 통합에 따라 벤처육성 집적화를 위해 문지캠퍼스로 이전했다.

2007년 아시아창업보육협회(AABI) 최우수 창업보육센터 수상, 2007년과 2013년 국무총리 단체 표창 수상 등 벤처·창업 육성에 따른 국가산업발전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0년 산학협력단 명칭 및 조직개편에 따라 창업보육센터가 KAIST 창업원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1994년 창업보육센터 설립 이후 600여 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했으며, 2020년 현재 코스닥 12개, 코넥스 3개 기업이 상장되었다.

• 아이디어팩토리

KAIST 창업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3D Printer, Laser Cutter 등을 이용하여 비즈니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프로토타입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할 수 있는 교육 및 기술적 멘토링 제공을 통해 메이커 문화 확산 및 전략적 메이커를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약 690㎡ 규모의 창업지원 시설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프로토타이핑 노하우 공유, 유튜브 채널 <Ideafactory KAIST> 운영 등 프로토타이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스타트업 빌리지

창업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Startup Village 창업플랫폼의 일환으로, 예비창업 학생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학생창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창업융합전문석사 재학생, 학생창업팀, 창업동아리 학생들에게 24시간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V

학생활동

CAMPUS ACTIVITIES

1. 학생자치조직

2. 학생 축제

3. 문화행사

1. 학생자치조직

대학원 총학생회

KAIST Graduate Association 1971~2021

연구하고 창조하는 기풍 조성, 국가적 사명감 고취, 정직과 봉사의 인성 개발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자치단체인 대학원 총학생회는 1971년 설립하여 1973년 제1회 신입생을 선발한 한국과학원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대학원 총학생회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하고 창조하는 과학원의 기풍 조성

2 자치활동을 통한 협동심과 국가적 사명감 고취

3 정직과 봉사를 생활신조로 하는 인성 개발

대학원 총학생회의 핵심 목표는 대학원생의 권리 보호 및 향상으로,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한 KAIST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조사는 교내는 물론 교외에도 대학원생의 실태를 파악 하고 대학원생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널리 쓰이고 있다. 또 2014년 10월 6일에는 대학원생의 권리와 의무를 구성원들이 함께 인지하고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언식을 개최했다.

2020년 5월 18일에는 다음과 같은 '교수와 학생의 신의 존중 헌장' 선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전일제 대학원생의 휴가를 공식 선포했다.

> 학교와 교수, 학생은 학생이 훌륭한 연구자, 교육자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신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
> 1. 교수는 학생을 성심껏 지도해야 할 제자로서 그리고 인격적 존재로서 대하며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2. 학생은 교수를 존중하며 교수의 지도에 따라 학업과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다.
> 3.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교수는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학업·연구 장려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 교수는 학생의 전인격적 성장을 위하여 연구과제 참여 시간과 휴가를 학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결정하되, 학생의 정당한 의견을 반드시 존중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 교수는 학생과 협의하여,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연구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학생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한다.
- 학생은 조교 및 연구과제 참여 등의 의무를 책임감있게 이행하며, 연구 윤리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연구실 내 구성원 상호 간 협력하고 배려하도록 노력한다.

4.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교수와 학생은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해결을 요구하고, 학교는 교수와 학생 간 신의와 존중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학교와 교수 그리고 학생은 상기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학교와 교수를 대표하여' 총장과 '학생을 대표하여'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헌장에 서명한다.

신의 존중 헌장은 대학원생의 인건비·휴가·졸업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한 문서로, 전일제 대학원생의 휴가를 대학 측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내 최초다. 학교와 교수를 대표해 총장이, 학생을 대표해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헌장에 서명했다.

대학원생은 근로자와 학생의 역할을 동시에 갖지만 양쪽의 권리는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신의 존중 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 이다. 연구실 내에서 신의 존중 헌장이 이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학생정책처 및 생활처, 옴부즈퍼슨, 감사실을 통한 제반절차가 마련돼있다.

그 밖의 주요 사업으로는 테마강좌와 문화버스 등의 대학원생 문화증진사업, 전문연구요원 입·퇴소 버스 지원 등의 대학원생 복지증진사업, 대학원 총학생회 소식지 및 타 대학과의 공동 이공계 소식지 발간 등을 들 수 있다. 산하기구로는 기혼자자치회·동아리연합회·인권센터, 협력기구로는 생활관자치회·협동조합·입주업체모니터링위원회 등이 있으며, 이들 기구를 통해 다양한 대학원생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학부 총학생회

KAIST Undergraduate Association
1984~2021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학생 스스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학부 총학생회는 1984년 12월 31일에 설립되었으며, 1986년 2월 27일 첫 입학식 후 설립된 KIT의 학생들과 함께 한 학생자치단체다. 학부 총학생회는 4,000여 명에 달하는 학사 과정 학생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대표 조직으로서, 학문과 문화 등 그들의 삶 영역에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학생 스스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

학부 총학생회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의결기구·집행기구·자치기구·전문기구·특별기구 등의 세부 단체로 나뉘어진다.

의결기구에서는 학부 총학생회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학생 전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중대한 안건의 경우에는 학생총투표와 학생총회 소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집행기구는 의결기구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총학생회장단을 필두로 최고 집행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와 상설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책국·복지국·사무국·기획국 등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부생이 필요로

장영신학생회관 N13-1

하는 여러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설위원회는 학부생 공간 관리, 축제 개최 등의 특화된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기구는 본회의 상시적 대의 수렴과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기층 단위로 의결기구의 구성원이 되며, 자체적으로 집행 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 학생회, 새내기 학생회로 구성되어있다.

전문기구와 특별기구는 본회의 특별한 업무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회계 감사, 번역 등 학부 총학생회 내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교내 방송, 봉사, 응원과 같이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기도한다.

제1차 정기전학대회 2018.12.09.

동아리연합회

지·덕·체를 겸비한 예비과학자로서의 인격배양과 대학문화 창달

KAIST는 학업과 수업 등의 정규 교과과정 외에, 각종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을 통한 인격도야와 협동정신 등을 함양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보장·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학사과정 재학생들에게는 1개 이상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각종 학·예술, 봉사 및 체육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지·덕·체를 겸비한 예비 과학자로서의 인격배양과 대학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은 미래 정보화 사회의 지도자적 과학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자주적이며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특히 창의적인 연구문화 창달을 위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학술 분야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학사과정에는 총 12개 분과 78개 동아리에 2,211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석·박사과정에는 총 4개 분과 14개 동아리에 274여 명의 학생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있다.

자세한 동아리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학사과정 동아리
(2020년 가을학기 기준)

생활문화분과(9개 255명)

동아리명	회원수	내용
궁극의 맛	20	요리 및 음식점 평론
맥	13	바둑
샹그릴라	25	애니메이션 감상
여로	32	여행
예쁜영화	34	영화 감상
칼디	40	커피
판놀음	30	보드게임
OPTeamus	36	E-SPORTS
THE MIXER	25	칵테일 연구

학사과정 동아리
(2020년 가을학기 기준)

연행예술분과(6개 194명)

동아리명	회원수	내용
만신장이	17	재즈댄스 및 댄스컬 공연
이박터	22	연극활동
일루젼	25	힙합댄스 및 스트릿댄스
Lunatic	83	스트릿 댄스
MindFreak	30	마술
Number	17	뮤지컬

전시창작분과(7개 212명)

동아리명	회원수	내용
공발바닥	30	핸드메이드(수공예)
그리미주아	40	순수미술
문학의 뜨락	23	문학 창작 및 합평
별바라기	28	천체 관측
빛따라	41	사진
열정부	33	만화창작 및 디지털 / 일러스트레이션
은막	17	독립영화 제작

밴드음악분과(8개 131명)

동아리명	회원수	내용
강적	16	하드락 밴드
동틀무렵	19	모던락 밴드
인피니트	15	헤비메탈 밴드
창작동화	16	재즈, 창작곡 밴드
CarpeDiem	20	Pop band
Praiser	15	CCM 밴드
STURGEON	15	Emo/Core/Punk Band
TD	15	펑크락 밴드

보컬음악분과(6개 176명)

동아리명	회원수	내용
구토스	24	흑인음악(힙합, 랩, 알앤비)
바오밥	21	아카펠라
여섯줄	34	어쿠스틱 음악
HUG	15	버스킬 및 실용음악
KAIST CHORUS	48	합창 및 아카펠라
MUSE	34	새션&코러스 공연

연주음악분과(7개 167명)

동아리명	회원수	내용
떠이어니레	23	국악 관현악
소리모음	11	풍물
아스트리아스	17	클래식 기타 연주
FingS	25	핑거스타일 기타
FUZE	16	파티플래닝과 디제잉
LP	26	작곡
PIAST	49	피아노 연주, 피아노 공연

사회분과(4개 128명)

동아리명	회원수	내용
디딤돌	39	교육 봉사, 장애인 보조
EWB-KAIST	25	적정 기술 개발 및 지원
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	40	한국 문화 체험 / 학생 교류
SEED KAIST	24	다문화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봉사

종교분과(4개 101명)

동아리명	회원수	내용
사나래	18	가톨릭(천주교) 학생회
네비게이토	10	크리스천 리더십
CCC	34	대학생 기독교 선교
IVF	39	성경 연구, 공동체 활동

구기체육분과(10개 383명)

동아리명	회원수	내용
루키	31	야구
슬램덩크	17	여자 농구
아퀼라	41	풋살
투	30	농구
허리케인	42	축구
Doolly	35	5 on 5 정통 농구
EDGE	39	탁구
K-Bird	53	배드민턴
KISC	47	축구, 풋살, 배드민턴, Fitness
STROKE	48	테니스

생활체육분과(5개 95명)

동아리명	회원수	내용
가오리	10	수영 및 핀수영
검우회	12	대한검도 훈련 및 대회 참가
올랄라	34	스포츠 클라이밍
활화산	21	태권도
TEAM LINE	18	피트니스 및 바디빌딩

이공학술분과(8개 297명)

동아리명	회원수	내용
숲	31	생물탐구
질주	28	자작 자동차 제작
하제	35	게임 연구 및 제작
GoN	32	정보보안 및 해킹
KAIST 수학문제연구회	37	수학분야 연구
KAIST Puple	50	퍼즐 연구 및 공유
MR	47	로봇 연구 및 제작
RUN	37	알고리즘 문제해결

석·박사과정 동아리
(2020년 가을학기 기준)

인문학술분과(4개 72명)

동아리명	회원수	내용
Freethinkers KAIST	10	무신론 및 자유사상
ICISTS	35	ICISTS 주최
KFAC	16	금융 학술 동아리
MSK	11	경영 전략 / 컨설팅

종교분과(5개 59명)

동아리명	회원수	내용
KAIST 교회	10	신앙성숙 및 학내복음화
RACS	10	크리스찬 과학자 연구모임
K.T.M	10	선교 공동체
MSA	13	무슬림학생회
KIC	16	기독교

체육분과(5개 150명)

동아리명	회원수	내용
KAIST Riding Club	19	자전거 라이딩 및 체력증진
KAISER	15	농구
KAISTENN	31	테니스
KAIST G-Bird	35	대학원 배드민턴
K-RUSH	50	마라톤

음악분과(2개 23명)

동아리명	회원수	내용
언더매니아	10	음악감상회
AdliB	13	음악 상호교류 및 공연

사회분과(2개 42명)

동아리명	회원수	내용
쩍	15	사회과학서적 독서 및 토론
KAIST Chinese Association	27	중국어 교육

방송국

Voice of KAIST 1986~2021

KAIST의 언론 매체, KAIST의 목소리

1986년 4월 15일 과기대 개교 후 봄학기 중에 학교의 필요에 의해 방송국 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집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목표 아래, 반(半) 동아리 반(半) 학교기관의 성격으로 개국했다.

| KAIST 언론 매체로서의 연구 및 활동 | 건전한 여론 조성 및 이의 효율화 | 학생들의 정서 순화 및 교류 기회 제공 |

1986~1995년까지 제작/기술/아나운서/보도 체제를 유지하다가 1996년 제작/기술/아나운서 체제로, 2001년 제작기술/아나운서 체제로 조직을 변경했다. 이어 2001년부터 2013년 까지 제작/기술/아나운서 체제로 운영하다가 2013년부터 보도 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현재 제작/기술/아나운서/보도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1986년 개국 당시부터 2013년까지 총 28회 VOK 정규방송제를, 1987년부터 현재까지 VOK 신입생 환영 방송제 29회째를 각각 개최했다. 또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음악 영상 감상회를 개최하다가 이를 변경하여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영상 구성을 개최했다. 아울러 1988년부터 현재까지 태울가요제를 30회째 개최하고 있다.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음성 콘텐츠 중심이던 콘텐츠·송출방식을 사용했으며, 1986년부터 방송용 음원으로 LP판을 사용하고 현재까지 방송용 음원 디지털화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0년 2월 최초 영상 제작을 시작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음성/영상 콘텐츠를 병행하고있다.

현재 방송국은 SONY HVR-Z5N 등 Tape Cam(DVCAM)용 장비 6대, SONY HXR-NX5N 등 SDCam(NXCAM)용 장비 2대, SONYUTX-B03 등 PINMic 송신기 4대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VOK 정규 뉴스 제작, VOK 정규 다큐멘터리 제작, VOK 정규 영상 제작, 태울가 요제 기획 및 진행, KAIST- POSTECH 학생대제전 중계, 신입생 환영 방송제 기획 및 진행, 특공대·모의방송제진행(내부행사) 등 다양한 학생활동과 각종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KAIST 신문사

THE KAIST TIMES ·THE KAIST HERALD
1987~2021

KAIST 설립 정신 선양, 학술 및 문화활동 촉진, 국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KAIST 신문사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정신을 선양하고, 학술 및 문화활동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선도하기 위해 1987년 11월에 설립되었다. 1988년 2월 1일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1991년 12월 4일자 37호 신문까지 '과기대학보(타블로이드 배판, 가로쓰기, 월간 발행)'를 발행했다. 그 후 1989년 7월 KAIST와 KIT가 통합되면서 그동안 KAIST에서 격주간으로 발행되어오던 '과기원 소식'과 통합했다. 이에 따라 1992년 1월부터 제호를 '과기원신문(THE KAIST TIMES)'으로 바꾸고 월간 발행에서 격주 발행으로 전환했다.

2002년 3월 6일자로 발행된 208호부터 제호를 '카이스트'로 변경했고, 2010년 9월 7일 자로 발행된 337호부터 제호를 'KAIST 신문'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6면 신문을 격주(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한 기자 활동에 제약이 있어 8면 발행)로 발행하고 있다.

창간 4주년 기념호인 과기원신문 제38호(1992년 2월 1일자)부터는 신문 크기를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꾸었으며, 전자출판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자들이 직접 면을 편집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좀 더 알차고 다양한 소식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그 후 계속적인 지면 혁신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자 노력했으며, 창간 10주년 기념호인 과기원신문 제144호 (1998년 2월)에서 시도한 전면적인 디자인 개편과 면 재배치를 통해 젊고 세련되며 역동감 넘치는 지면을 구성했다. 또 1999년 9월부터 홈페이지 기자를 모집하여 과기원 신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도 학교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한편 1997년은 한국과학기술원이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KAIST TOP 10 사업의 원년'으로 선포한 해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우수교원 유치,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 등 캠퍼스 국제화가 추진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1997년 2월 26일 영어판 신문인 'THE KAIST HERALD'를 창간했다.

신문사 조직은 발행인(원장) 아래에 한글판과 영어판 신문에 각 1인의 주간과 1인의 편집간사를 두고 있다. 또 KAIST 신문에는 편집장과 부편집장을 포함한 데스크와 편집국에는 취재부·학술부·문화부, 미디어국에는 사진부·일러스트부·NMC(New Media Center)를 두어 글 기자와 미디어 기자가 함께 활동 중에 있다. 20여 명의 학생기자가 활동 중이며, 영어판 신문에는 편집장 이하 10명의 학생기자가 활동하고 있다.

카이스트 신문과 'THE KAIST HERALD'의 기자는 학부생 기자, 원생 기자로 구성되어 원 구성원들의 여론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다. 수습기자는 공개채용 후 정규 학기 한 학기의 수습 기간을 거치며, 원생기자의 경우 공개채용이 아니라 과거 신문사의 임원진을 맡은 적이 있던 기자 중 대학원생이고, 현재 재직 중인 기자와 동시대에 일하지 않았던 선배기자들이 추천을 통해 임명되고 있다.

신문은 격주 발행을 원칙으로 연간 14회 발행하고 있으며, 'THE KAIST HERALD'는 1997년 2월 창간을 시작으로 방학 중을 제외하고 월간(연 8회) 발행하고 있다. 신문사에서는 1994년에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하여 '세계를 향한 대학, 미래를 여는 연구'라는 수상

작을 냈으며, 1995년 전국 대학신문 주간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전국 대학신문 콘테스트에서 기획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1996년 1회를 시작으로 2020년 26회째에 이르는 카이스트문학상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여 이공계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쉬운 문학 분야를 가까이 접근시켜 과학기술원 학생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일상적인 글쓰기 문화를 일궈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문사는 2014년 제1회 송건호대학사진상에서 생활사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KAIST 신문은 2012년 2월부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페이스북 페이지 카드뉴스, 이메일 뉴스레터 등 종이 신문의 위기, 대학 언론의 위기에 대응해 다양한 경로로 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신문에 KAIST 발전재단 광고 이미지를 실어 학교 발전기금 모금 홍보를 돕고 있고, 건전한 원외 사기업들의 광고 이미지를 신문에 실어 광고료 납부를 통해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수입 처리하고 있다.

2. 학생축제

태울석림제

매년 5월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축제다. 이 기간에만 열리는 특설 무대에서는 매일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고 각 학과와 동아리에서 준비한 길거리 간식 노점과 주점들이 등장한다. 곳곳에서 전시회와 이벤트까지 열려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한 캠퍼스 최대의 행사이다.

이 축제는 학부생들의 축제인 '태울대동제'와 대학원생들의 축제인 '석림대동제'가 합쳐져 만들어진 축제로 KAIST의 모든 학우들이 즐기는 축제이다. 홀수년도에는 태울석림제, 짝수년도에는 석림태울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날 밤에 장영신 학생회관 에서 진행되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며, 여러가지 콘셉트로 진행되는 전야제에서 게임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은 준비된 먹거리와 마실거리를 즐길 수 있다.

본 행사는 크게 낮 부스와 밤에 진행되는 무대로 나눠지는데, 낮 부스에서는 상상효과와 각 동아리들이 준비한 부스들이 운영되며 음식을 파는 부스들과 각종 체험부스 및 이벤트 부스들이 스포츠컴플렉스 앞길부터 창의관 앞까지 설치·운영된다.

무대는 본관 앞 잔디광장에 설치되며, 동아리나 개인들의 무대를 시작으로 가수들의 축하 무대까지 화려한 공연들이 펼쳐진다. 또한 밤 무대가 진행되는 동안 무대 주변에서는 여러 동아리들이 주점을 운영한다.

KAIST-POSTECH 학생대제전

'사이언스 워(Science War)'란 명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카포전은, 2002년부터 KAIST와 POSTECH이 양교 학생들의 활발한 교류를 목적으로 1년마다 치르는 정기교류전이다. 카포전은 매년 9월 중순 개최되며 대회 명칭은 어느 학교에서 열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KAIST-POSTECH 학생대제전'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제1회 대회는 2002년 9월 13일 KAIST에서 처음 열렸으며, 두 대학 학생 700여 명이 참가했다.

국내 최고의 이공계 두뇌들이 참가하는 행사에 걸맞게 해킹대회, 과학퀴즈, 인공지능 프로그래밍대회와 같은 과학경기, 스타크래프트, 야구·농구·축구 등 운동경기, 달걀을 설치한 물로켓을 날려 달걀의 파손 여부로 승부를 결정하는 'Egg Rocket', 그리고 양초를 이용한 모형에너지 경주인 '양초자동차속도전'을 진행하는 번외경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이외 부대행사로는 양교 동아리별 교류의 시간과 댄스배틀, 맥주파티, 많은 학생이 참여 가능한 래비린스(인터넷 미궁게임의 일종), 초청공연 등도 마련된다.

KAIST와 POSTECH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과학경기를 펼침으로써 두 대학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한편, 어렵고 까다롭다는 편견을 가진 이공계 학문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제8회 카포전은 신종플루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취소된 바 있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19' 사태로 취소가 결정되었던 18회 카포전은 '2020 사이버 이공계 학생교류전'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진행되었다. 카포전 정식 종목은 AI, 해킹, 과학퀴즈(3개의 과학경기)와 축구, 농구, 야구 e스포츠(4개의 운동경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2020년 카포전의 경우 AI, 해킹, 과학 퀴즈, 사이버 경기 1(리그 오브 레전드), 사이버 경기 2(카트라이더)로 총 다섯 가지 종목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딸기파티

딸기파티는 1995년 학교 주변 딸기 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돼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KAIST만의 전통적인 행사다. 매년 4월 벚꽃이 가장 아름다울 시기에 학과·동아리·동문회· 연구실 등 각 단체별로 캠퍼스 곳곳에 모여 앉아 딸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농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KAIST만의 문화행사다.

국제 음식 축제

KAIST 외국인 학생회의 주최로 매년 5월 개최되는 국제 음식 축제는 외국인 재학생들이 각국의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는 자리를 통해 한국인 학생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프랑스·캐나다·싱가포르·라틴아메리카·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에티오피아 등 약 20여 개국 외국인 학생들이 만든 60여 종류의 음식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행사다.

KAIST Art & Music Festival

2012년 10월에 제1회 행사를 개최한 이래로 수준 높은 인디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한 KAIST의 음악·예술 축제다. 중앙 잔디밭, 노천극장 등에 마련된 무대에서 음악 공연이 펼 쳐지고 벼룩시장·푸드마켓·도예체험 등 풍성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KAIST 구성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다.

학생문화제

2015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동아리 문화제와 가을 체육대회를 합쳐 만들어졌다. 가을축제 라고도 불리며 콘셉트에 맞게 꾸며진 분위기 속에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축제다. 동아리들이 무대와 부스를 통해 1년 동안 준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학우들에게 보여 주고, 학우들은 다양한 부스를 체험하고 무대를 즐기면서 서로 교류하는 행사다.

3. 문화행사

CULTURAL EVENTS 1986~2021

재학생·교직원 및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다

문화행사는 KAIST 재학생의 교양을 함양하고 건전한 대학문화를 선도하며, 캠퍼스 생활을 명랑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방학 기간을 제외한 매 금요일 7시 30분(평균 2회/달)에 개최하고 있다. 주요 연주내용은 독주회·실내악·오케스트라·국악·교양강좌·무용·연극·영화·대중가요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교직원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무료입장을 통해 문호를 개방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문화예술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86년 4월 영화상영으로 시작되었던 KAIST 문화행사는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각기 10여 회씩, 매년 20여 회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6월 현재 총 655회의 공연실적을 갖게 되었다.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2020년 11월 13일에는 '문화생활은 계속된다! 몸은 멀리 감동은 가까이!'라는 슬로건 아래 KAIST 대강당에서 온라인생중계 방식, 무 관객 공연과 현장 입장관객 소수 인원 입장방식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그동안 주최한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 **음악 및 종합공연:**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 백건우 피아니스트의 리사이틀, 웨이브 힐 트 리오, 한동일 피아노, 프란츠할라즈 기타, 예음클럽, KBS 금관 5중주, 데이비드 김 바이올린,서울바로크합주단,캐스틴아이젠바흐트기타
- **연극공연:** 품바, 관객모독, 돈내지 맙시다, 세일즈맨의 죽음, 칠수와 만수, 어머니, 뮤지컬 넌센스, 불 좀 꺼주세요, 바쁘다 바빠, 들꽃 피는 도시, 러브레터, 용띠 위에 개띠
- **국악공연:** 중앙국악관현악단, 김덕수 사물놀이, 들꽃소리, 민소완 판소리, 새울림 국악실내 악단, 신명 풍무악, 안숙선 판소리, 김준호·손심심 국악공연
- **오페라 분야:** 프리마 오페라단, 충청 오페라단, 대전 오페라단, 김자경 오페라단
- **대중가요:** 해바라기·박상민·김정민·이광조·노이즈·권인하·윤도현·윤희정·이은미·김경호·자우림
- **성악:** 박인수·신영조·엄정행·신동호·넬리리·오현명
- **민속 음악극:** 한국음악극연구소의 우리들의 사랑, 민족음악연구회의 하나되는 땅
- **무용 분야:** 국립발레단, 툇마루무용단, 한국현대무용단, 새암무용단, 춤다솜 무용단, 정옥조 현대무용단, 신애숙 발레, 백연옥 발레, 이화여대 무용과, 도정님 발레, 김현숙 춤, 김경회의 춤, 조승미발레단 등
- **합창부문:** 대우합창단,서울시립합창단, 대전시립합창단
- **New Music 분야:** 몰이모리, Next Wave Concert, ZENDIN, Free Jazz Concert
- **교양강좌:** 노동은 교수 음악해설회, 김동길 교수 초청강연, 조지포터 초청강연
- **영화상영:** 시네마천국, 파앤드 어웨이, 마스크, 미션, 델타포스, 아웃 오브 아프리카
- **오케스트라:** KBS 교향악단, 스탠포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 대전시립 교향악단, 충남 교향악단, SBS Pops Orchestra

한편 대부분의 문화행사 공연이 이뤄지는 대강당은 1986년 한국과학기술대학 개교 당시에 건설된 연면적 1,532평의 건물로 대공연장 객석 수는 1층 600석, 2층 399석 등 총 999석 규모이다. 102.5평의 무대(주무대 65.7평, 보조무대 36.8평)에 Set Batten 2개, 컴퓨터로 제어되는 최첨단 조명장치, 32CH Mixer 및 AMP출력 4kw 방식의 음향설비, LCD 프로젝트와 돌비 스테레오 시스템, 275 Full Size의 스타인웨이 피아노 등의 부대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문화행사의 공연 참가 신청은 봄학기(3~6월) 공연의 경우 1월 말 신청을 마감하여 2월 초에 홍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경에 확정하며, 가을학기(9~12월) 공연은 7월 말에 신청을 마감하여 8월 초 심의를 거쳐 8월 말 경에 공연일정이 확정된다.

1997년부터 시작된 'KAIST 온 가족 송년음악회'는 학부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등의 학생단체와 협동하여 개최하는 명실상부한 KAIST 온 가족에 의한 그리고 온 가족을 위한 연례행사로 자리 잡아가면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소중한 문화적 전통이 되어가고 있다.

KAIST 신년음악회 대전시립교향악단 2020.01.10.

VI

협의기구

CONSULTATIVE COMMITTEE

1. 교수협의회

2. 노동조합

1. 교수협의회

KAIST Faculty Council 1991-2021

KAIST 발전과 교수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다

KAIST 통합 과정에서, 1988년 10월 서울캠퍼스 교수 93명이 참석하여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와 1989년 1월 창립총회를 열어 발족한 '한국과학기술대학 교수협의회'가 동시에 해체되었다. 그리고 300여 명의 교수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로 통합 출범했다. 이후 KAIST 교수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집약하여 반영함으로써 KAIST 발전과 교수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1991년 KAIST 교수협의회가 공식 설립되었다.

교수협의회는 설립 직후부터 학내·외 현안 문제 조사 및 해결을 위한 활동, 학내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방안 제시 등에 주력했다. 인터넷 게시판을 개설하여 교수들의 실명 토론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체 교수회의 개최, 교수협의회보 발간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 당시 '원장' 임기 만료 전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위원 추천에 참여함으로써 KAIST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통합 교수협의회 설립 직후인 1991년 <교수 연구비 중 오버헤드 비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교수들의 퇴직금 문제와 관련된 복지 향상을 위해 사학연금 가입 문제를 심층 검토하여 사학연금가입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회원 98%의 가입 희망을 근거로 사학연금 가입 시 세부 조건 등을 비교 검토, 대학 측에 이를 건의하여 1998년 1월 1일자로 사학연금에 정식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교수협의회는 1996년 교수평의회 필요성을 제기하고 교수평의회 구성을 위한 노력을 집중했으며, 그 결과 1997년 12월 교수평의회 구성안이 KAIST 이사회를 통과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서울 분원 활용에 관한 대학 측의 입장 검토> 및 <이사회 교수 참여 및 교수평의회에 관한 설문조사>, <각 대학 대학평의회 특성 비교>, <대학평의회 규정 심의> 등의 활동을 펼쳤다. 1997년에는 서울 분원 활용과 관련하여 회원들이 서명한 교수 탄원서를 과기처에 제출하여 교수협의회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특허법원 대전 유치를 위한 설치 건의문을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등 각계 요로에 발송했다.

이어 1998년에는 국책 과제 오버헤드 징수율 삭감을 과기부에 제안하고, 교수 상여금 감봉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펼쳤으며, 교수협의회보 지상(紙上) 토론을 통해 '영어 강의'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에도 나섰다. 나아가 석·박사 과정 학생 기성회비 납부 여론을 조사했으며, <시스템 공학연구소 정문 설치 건에 대한 현황 보고>, <KAIST 명칭에 대한 지상 토론> 등의 활동을 펼쳤다.

1999년에는 '새내기 세미나'에 대한 지상 토론 및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KAIST의 교육부 이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관련하여 광고비 모금 독려 및 설문조사 실시, 교육부 이관 반대성명서 일간지 게재 등의 활동을 통해 KAIST의 교육부 이관 저지에 큰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2000년 들어와서는 교수 처우 개선을 위한 오버헤드 인센티브 지급 문제, 급여 저하 문제, 장기근속 호봉 추진안 등을 마련하여, 실직적으로 저하되는 교수들의 처우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2000년 말 정부의 경영 혁신 정책에 따라 발생한 노조 파업 문제와 관련하여 교수협의회 전체 회의 개최, 수차례의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KAIST 운영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2006년에는 러플린 총장의 직무수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전체 교수(409명)의 53%(218명)가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이 중 90%에 해당하는 196명이 연임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월 8일에는 KAIST를 총체적 난국으로 빠지게 한 책임을 물어 서남표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KI빌딩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당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 취하와 함께 독선적 학교 운영, 구성원 간 분열 조장, KAIST 위상 추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남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교내 행진 시위를 벌였다. 나아가 2012년 7월 18일에는 서남표 총장의 해임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KAIST의 진정한 혁신과 발전을 위해 고뇌한 이사회의(계약해지 안 상정)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서 총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2013년 8월 20일에는 '100% 영어강의와 국제화는 다른 개념'이라는 인식하에 전면영어강의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영어강의 제도에 대한 교수회의의 입장을 담은 교수협의회보를 발간했다.

교수협의회 회장이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을 면담하고 총장 선출 방법 및 이사회 구성 방법 개선을 요청한 것은 2013년 9월 13일이었다. 복잡한 총장 선출 절차를 개선하고 평교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사회 구성 방법 개선(이사의 1/4 교수평의회 추천, 1/4 동창회 추천)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같은 해 12월 5일 총장 선출 및 이사 선임에 대한 현재 상황 및 개선안을 이사장에게 서면 전달했다.

2015년 3월 3일 교수협의회 회장이 총장을 면담하고, 총장 선임 절차 개선, 산학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과제 오버헤드 조정, 특허 관련 지원제도, 학생인건비 풀링제, 과제 수행 전반에 필요한 행정지원 강화, 교수 처우 등에 관해 건의했다. 또 2016년 10월에는 차기 총장 리더십 설문조사를 실시, 참여율 38%(231명/560명)를 기록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 10월 5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총장 후보 선출 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같은 해 11월 3일 제16대 신임 총장 추천 후보 2인을 선정했으며, 교수협의회 추천 총장 후보로 전기및전자공학부 경종민 교수(1순위)와 이용훈 교수(2순위)를 KAIST 이사회에 추천했다.

2016년 11월 11일 교수협의회는 전임직 교수 49%(310명/628명)가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2018년 12월 13일에는 신성철 총장 사건과 관련, "성급한 직무 정지 요구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23일에는 국방부의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감축 계획안 전면철회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KAIST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4대 과기원 교수연합회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가 사회적 문제 해결과 함께 국방과학기술 고도화를 통한 군의 현대화·선진화·고급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며 "전문연구요원 정원 축소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개교 50년을 앞둔 2020년 8월에는 <KAIST 100년을 생각하는 총장>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7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재정 확보 역량과 장기적 비전 및 통찰력을 갖춘 총장이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환경 및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교원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전문연구요원제도 유지, 행정절차 간소화, 상호존중 학내문화 등을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총장 후보 합동소견발표 및 토론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총장 후보 선출 투표(투표율 79%, 451명/571명)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0월 제17대 신임 총장 추천 후보 2인을 선정했으며, 교수협의회 추천 총장 후보로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정호 교수(1순위)와 기계공학과 임용택 교수(2순위)를 KAIST 이사회에 추천했다.

현재 교수협의회는 전체 교수의 대의기구로서 교수들의 수렴된 의견을 대표하며, 총장 선임 시 교수협의회 대표 1인이 총장추천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교수들의 의견을 대표한다.

2020년 10월 20일 현재 상조회 회원 547명, 교수협의회 회원 573명의 전임직 교원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협의회와 함께 설립된 교수상조회는 KAIST 교수들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서 공제해 적립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회장은 교수협의회 재정 관리, 수입·지출 계획 작성, 집행 및 감독 전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각 영역 간 중재, 학교 측과의 협의 이슈 도출 및 준비 주관을 담당한다. 이 같은 제반 활동은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회장단 아래 교수협의회 분과와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무** : 재정 관리, 수입·지출 계획 작성, 집행 및 감독, 자산 관리, 교수상조회 관리
- **홈페이지** : 홈페이지 구축·운영·업그레이드
- **기록** : 회의록 작성, 대외문서 기록 관리, 소식지·기말보고서 편집
- **대외** : 대외(교내외) 배포 문서 작성·송부 주관, 대외(교육과학부·언론·이사회) 관련 정보 관리(수집 및 홍보), 소식지·기말보고서 편집
- **인사** : 교수인사(신임·재임용·영년직) 관련 법규 및 KAIST와 국내외 타 대학 운영 상황 파악, 국내외 타 대학 인사 시스템 상황 조사, 회원 애로 사항 파악·정리
- **법규** : 학교와 이사회·평의원회·교수협의회교수상조회·총장추천위원회 법규 검토 및 제안, 교수협의회 법 개정 필요사항 파악 및 개정 작업 추진 주관, 시행 규정·행정의 적절성 및 합리성에 관한 교수진의 의견 개진
- **학생** : 학생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파악, 분석 및 질의, 제안·대안 제시
- **재정/사업** : 학교의 중요 추진 사업 방향 이해, 교수진의 건설적 의견 개진, 학교 재정 상황 이해, KAIST 장기발전을 위한 교수진의 건설적 의견 개진
- **회원** : 회원 지원(명예회원 포함), 회원 확장, 회원 교류 및 친목 도모, 회원 복지(정년 후 복지 포함)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 회원 간 의견 교류 활성화 및 공통 의견 도출, 중요 사안에 대한 설문 구성 및 결과 분석
- **간사** : 교수협의회 운영 전반 지원

2020년 4월 KAIST 평의원회 출범 등의 학내 변화에 따라 교수협의회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교수협의회 성격 및 위상의 재정립, 교수 복지 및 권익 제고, 교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도출 등)이 요구되고 있다.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들이든 교수협의회 일을 보고 있는 교수들이든 모두 KAIST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각자 자신의 자리와 위치에서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공통된 점이다. 교수협의회에서는 학교 발전을 위해 총장 및 보직교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사항은 협조하도록 할 것이다.

2. 노동조합

KAIST Labor Union 1987~2021

노동조합의 역사는 조합원 개개인의 권익 신장을 넘어 전체 노동자와의 연대를 향한 끝없는 도전의 길이었다

KAIST 노동조합은 노동자 대투쟁의 불길이 타올랐던 1987년 12월 9일 서울 홍릉에서 정부출연연구소 노동조합으로는 두 번째로 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렸다. 그 후 1990년 대전 대덕연구단지로의 이전과 함께 한국과학기술대학과의 통합으로, 조합원의 수가 420여 명에 달하는 조직으로 우뚝 섰다. 이러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대덕연구단지 안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조합 활동의 선봉에 섰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4년 4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소산별 노동조합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창립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 후 노동조합은 1992년 노동조합의 일상활동과 정책대안 등을 조합원들과 공유하고자 노동조합소식지 <들꽃>을 창간했으며, 노동조합의 현안 사항, 노동조합 활동, 국내 노동계의 주요 쟁점 사항 등을 면밀하게 다룸으로써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 <들꽃> 소식지는 149호까지 발행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실록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KAIST 노동조합이 순탄한 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다. 정부의 노동 감시정책에 따라 수시로 행해지는 과기원 측의 조직와해 작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경영 자율침해에 맞서서 크고 작은 힘겨운 투쟁을 전개했다. 그중에서 1999년 10월

노동조합 현판식 1989.07.07.

경에 정부의 경영합리화방침에 따른 KAIST 시설관리 부분 민영화 반대 투쟁으로 진행된 249일간의 총파업이 가장 치열했던 투쟁이었다. 그러나 이 투쟁은 2001년 1월 30일에 시설관리업무 민영화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총파업을 접었으며, 그 결과 제7대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두 명의 해고자를 낳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굳건한 의지로 과거의 아픔을 이겨냈고,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넘어 연대의 틀을 공고히 하고 단결력과 조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조직형태인 산별노조로 변경했다. 그리하여 2011년 대산별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했으며, 이후 2014년 실질적인 과학기술계 대정부 교섭 및 투쟁을 위해 2014년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으로 조직을 이관하여 현재의 한국과학기술원지부가 되었다.

현재는 새롭게 요구되는 노동조합의 역할 수행과 강한 조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를 설정해 놓고 이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다. 2017년부터 박근혜 정권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부당개입으로 인해 후퇴된 단체협약의 원상복구 및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활동의 폭넓은 보장을 위해 17개 출연 기관이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19년 1월 30일에 '2019 공동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특성화 대학의 특징을 담지 못한 공동단체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특성화 대학(KAIST·DGIST·UNIST) 공동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19년 11월 13일에는 '2019 지부 공동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특성화 대학 지부의 서로 다른 단체협약을 통일하고 상향 평준화된 단체협약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노동조합은 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해 조합원 간담회, 순회방문 등 조합원과 대화의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와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다. 각종 설문 조사 및 선거를 온라인 체계로 구축하는 등 조합원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각종 사업에 조합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상급단체에서 주관하는 여러 회의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상급단체와 정보교류 및 연대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 지역주민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노동조합은 단순히 조합원의 권익 신장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모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고자 한다.

1987년 창립한 KAIST 노동조합은 2020년 창립 33주년을 맞이했으며, 조합원 330명이 넘는 조직이 되었다.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노동자의 대변인으로, 기관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노동조합 창립 기념식 2017.12.08.

노동조합 입금교섭 2015.12.18.

VII

후원기구

SPONSORING
ORGANIZATION

1. 총동문회

2. KAIST 발전재단

1. 총동문회

KAIST Alumni Association
1975~2021

졸업생 상호 간의 친목과 개개인의 발전을 바탕으로 모교 발전에 기여하다

KAIST 총동문회는 1975년 9월에 설립되어 1회 졸업생이 배출된 이래 2020년 현재 25대 동문회에 이르고 있다. 졸업생 상호 간의 친목과 개개인의 발전은 물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며 지금까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동문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대 동문회 당시 석사 1회 졸업생들이 모여 동문회를 조직하고, 주소록 발간, 동문 모교 방문 행사와 졸업기념 사업을 시작했으며, 3대 동문회 때 동문회 임원조직을 정비하고 동문회 소식지를 창간했다. 4대 동문회부터는 회원명부 전산화, 동문 회원증 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과 논문복사대행 사업을 시작했으며, 교수기금 중 일부를 기증받아 동문회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5대 동문회 때부터 동문의 모교 시설물 사용을 시작하고, 7대 동문회 때 과별 동문회 활성화와 함께 동문회 기금 조성 운동을 전개했으며, 소식지의 분기별 발간, 기념품 판매사업 시작, 회원 및 회비관리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을 이루었다.

동문창업관 외부

이어 8대 동문회에서 법인화를 위한 기금을 증액 모금(법인화 당시 재단 명칭 석림재단)과 함께 동문회 사무실 사무자동화, 병역특례 존속을 위한 활동과 업무 편익 도모 등을 추진했으며, 9대 동문회 때 석림학술장학재단을 설립했다. 11대 동문회가 활동한 1995년 제1회 석사 졸업 20주년 기념 모교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13대 동문회 때 제1회 총동문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14대 동문회인 2000년 소식지 <e-New Letter>를 발간하고 2001년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며, 동문창업관 건립, 학사·석사·박사 과정 동문회 통합 운영, 개원 30주년 기념사업(미래홀 건립기금 모금)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15대 동문회부터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대행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16대 동문회 때 지부를 개설하고 지역동문회 활성화에 나섰다. 18대 동문회 때 학사과정 입학 20주년 기념 모교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미국 동문회 활동 활성화(발전재단 미국사무소 협력)에 주력했다.

이어 20대 동문회 때 제1회 멘토링콘서트, 제1회 KAIST 총동문회장배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재구축했으며, 4대 핵심사업(커뮤니티구축사업/지식기여공유사업/기부·기금조성사업/조직강화)을 추진했다. 21대 동문회부터는 제1회 KAIST 임원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석림학술장학재단을 동문학술장학재단으로 개칭하여 연간 1억 원 장학금 기부금 유치 및 운영을 개시했다. 22대 동문회 때인 2014년에는 제1회 KAIST 가족자녀 캠프와 제1회 카이스트인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제1회 학위수여식 포토존을 2015년 2월에 운영했으며, 2015년 4월 제1회 석사 졸업 40주년 홈커밍데이 및 Honor KAIST 행사 개최, 2015년 7월 제1회 동문인턴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했다.

23대 동문회에 이르러서는 2016년 석사 2회 졸업 40주년 홈커밍데이 및 Honor KAIST 행사 개최, 제1회 KAIST 동문 멘토 & 엔젤클럽 개최, 2017년 석사 3회 졸업 40주년 홈커밍데이 및 Honor KAIST 행사 개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24대 동문회 때

총동문회 신년교례회 2020.01.18.

석사 4회 홈커밍데이 2018.05.26.

인 2018년 제1회 KAIST 총동문회 기술창업포럼 개최, 2019년 석사 5회 졸업 40주년 홈커밍데이 및 Honor KAIST 행사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른다.

총동문회의 주요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동문교류사업 | 모교와 동문, 동문 간의 화합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
(신년교례회 개최, 친선골프대회 개최, 졸업기별 홈커밍 개최)

지식기부 사업

- 멘토링 콘서트 : KAIST 재학생의 진로 선택 또는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을 통해서 선배와 후배의 원활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세션별 멘토, 멘티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진로 선택에 대한 실질적인 궁금증 해결 및 선후배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KAIST MenGel (Mentor & Angel) Club : 재학생 및 동문 창업 관련 멘토링 실시, 향후 투자자 연계 활동 구축 및 선배의 창업 경험을 후배 또는 동문들에게 전수하는 기회 제공(보유 기술 소개에 따른 사업성 검토 및 투자, 창업 지원 멘토링)
- KAIST 동문 기술 포럼 : 동문 및 재학생 기술보유자 및 동문 벤처캐피탈 조인트 모임으로 보유기술 know-how 공유 및 교류 기회 제공 (보유 기술 소개에 따른 사업성 검토 및 투자, 창업 지원 정보 제공)

기금·기부사업

- 동문학술장학재단 : 석림학술장학재단을 KAIST동문학술장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후배들에게 장학금 지급으로 모교와 후배를 지원하는 모금 사업(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급)
- 후배사랑동문기금 : 재학생 및 동문 후배들의 도전정신 고취 및 동문 유니콘 벤처 육성('창업어워드 KAIST' 수상자에게 CES 무상 참관 지원) 네트워크 및 조직 강화사업
- 동문 인명록 발행 사업 : 동문 DB 업데이트를 하여 동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동문 지회(지부) 조직 강화(동문 인명록 발간)
- 총동문회 동문 소식지 : 모교 소식 공유, 동문의 소통 공간 마련과 네트워크 강화(오프라인 소식지 계간 발행)
- 홈페이지 제작·운영 : 동문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교류의 장 제공(동문·동문기업 찾기, 동문 행사 홍보, 모교 소식 공유, 동문 소모임 관리, 동문 DB 관리 등)

동문지원 사업

- 동문자녀 과학 캠프 : 동문자녀의 과학적 사고력 신장과 다양하고 체계적인 과학체험 학습의 기회 제공(진로 멘토링 및 과학 캠프 개최)
- 동문지원 서비스 : 졸업생 도서관 이용 지원, 증명서 발행 대행, 근조기 제공, 경조화환 서비스, 동문회 상조 서비스 등

2. KAIST 발전재단

KAIST Foundation 2000~2021

행복한 기부 아름다운 동행

KAIST 발전재단은 KAIST 발전 재원을 보다 능동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0년 7월 27일 '한국과학기술원 발전기금 재단'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독립법인으로서 KAIST 발전기금 1조 원 조성과 기금· 투자·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자원 확립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KAIST는 정관 제4조 (사업) 제5호에 의해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원 발전기금' 설립을 위해 2000년 3월 30일 KAIST 제131회 정기 이사회에서 설립 및 재산출연을 의결했다. 이어 2000년 5월 10일 재단법인 설립 창립총회 개최를 갖고 최덕인 제1대 이사장이 취임했으며, 7월 5일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허가를 받은 후 7월 27일자로 재단 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9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2001년 4월 12일 KAIST로부터 발전기금 조성 업무 위탁을 받고 5월 16일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 지정을 받았으며, 6월 9일 제2대 홍창선 이사장이 취임했다. 같은 해 7월 19일 정문술 회장의 300억 원 기부로 재단 활성화에 큰 전환점을 맞기도 했다.

2002년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2004년 8월 18일 제3대 신성철 이사장이 취임했으며, 2005년 3월 11일 제1회 발전기금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2004년 12월 8일 제4대 로버트 러플린 이사장이, 2006년 8월 16일 제5대 서남표 이사장이 각각 취임했으며, 12월 7일 사업팀을 사무국으로 변경했다.

2007년 6월 19일 미국재단(KAIST U.S. Foundation)을 설립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19일 박병준 회장이 1,000만 달러를 기부했다. 2007년 12월 4일에는 재단 명칭을 '재단법인 KAIST 발전재단'으로 변경하고, 2008년 7월 30일 기부자보고서 1호를 발간했다.

2008년 8월 14일 류근철 박사가 578억 원 출연 약정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발전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2009년 8월 12일에는 김병호 회장이 300억 원 출연 약정을 했으며, 같은 해 9월 22일 '행복한 기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다. 2010년 6월 15일과 7월 14일 조천식 회장이 100억 원, 오이원 여사가 100억 원을 각각 기부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2월 8일 재단 사무국 내에 기금조성팀과 기금행정팀을 설치했다.

2011년 9월 19일 김삼열 여사가 50억 원을, 2012년 9월 14일 이수영 회장이 700만 달러의 부동산을, 11월 12일 조천식 회장이 추가로 60억 원을 각각 기부했다. 2013년 1월 28일 제6대 이수영 이사장 취임하고 6월에 본관에 기부자기념홀을 설치했다. 이후에도 2014년 1월 10일 정문술 회장이 215억 원을 재기부하고, 8월 13일 최태원 회장이 100억 원을 기부했다.

KAIST 발전재단은 2015년 4월 18일 아너카이스트 캠페인을 시행한 데 이어 7월에 발전재단 뉴스레터를 창간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새내기만 캠페인을, 2016년 3월에 'TEAM KAIST' 캠페인을 각각 시행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11월 16일 조정자 여사가 75억 원의 부동산을 유증하고, 2016년 3월 24일 제7대 이사장에 취임한 이수영 회장이 11월 21일 10억 원의 부동산을 유증했다.

2017년 8월 하루과일 캠페인, 2018년 10월 26일 발전후원의 밤 행사, 2019년 4월 백일의 아침 캠페인을 시행하는 가운데, 2017년 9월 29일 손창근 회장이 50억 원의 부동산을, 2020년 1월 18일 장병규 동문이 100억 원을, 2월 12일 손창근 회장이 85억 원의

김병호 회장님 약정식 2009.08.12.

조천식 회장님 발전기금 약정식 2010.06.18.

오이원 여사님 약정식 2010.07.14.

이수영 회장님 약정식 2012.09.14.

부동산을 기부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23일 이수영 회장은 평생을 모은 부동산을 출연해 '이수영 과학교육재단'을 설립, 그 수익금으로 KAIST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10월 현재 개교 5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 캠페인을 시행 중인 KAIST 발전기금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을 펼치고 있다.

- **KAIST 발전재단 조성 및 관리:** 발전기금 모금, 기부 부동산 관리 및 운영
- **고유목적사업:** KAIST의 교육·연구 활동 지원,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학술활동 및 국제교류 지원, 연구 성과의 보급 및 연구결과의 사업화 지원, 교직원 및 학생의 후생복지 사업 지원, 도서·연구기자재 및 시설 확충, 교육·연구 및 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단소유 부동산 공유,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 **수익사업:** 부동산 임대업, 벤처기업 투자 등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

세계 최고를 향해 비상하고 있는 KAIST는 경제개발을 뒷받침하는 한국 산업에 필요한 고급 이공계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개교 50주년을 맞으며 기존 대학의 질서와 관행을 뛰어넘어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차원의 교육과 연구를 시도하여 대한민국 과학 발전과 교육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세계 최고 대학을 지향하는 KAIST의 개혁 노력이 알려지면서 이에 공감하는 독지가의 기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VIII

캠퍼스 및 시설 변천

CAMPUS AND
FACILITIES TRANSITION

1. 대덕 본원

2. 서울캠퍼스

3. 문지캠퍼스

4. 도곡캠퍼스

5. KAIST 캠퍼스 50년, 그리고 그 이후

1. 대덕 본원

KAIST에는 본원 캠퍼스 및 설립 당시 구축된 서울캠퍼스, 그리고 2009년 ICU와 통합으로 포함된 문지캠퍼스로 구성되어 있다. 총규모는 부지면적 155만 3,259 ㎡ (46만 9,859평) 건물 연면적 75만 7,768 ㎡ (22만 9,224평)을 보유하고 있다. 캠퍼스별 규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에 위치한 본원캠퍼스가 부지면적 116만 3,894 ㎡ (35만 2,077평)이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서울캠퍼스가 부지면적 11만 359 ㎡ (3만 3,383평)이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에 위치한 문지캠퍼스가 부지면적 27만 9,006 ㎡ (8만 4,399평)이다.

KAIST 정문

대덕(본원)캠퍼스 건설과 이전

교육시설 확충의 필요를 절감한 한국과학원은 1978년 대덕연구단지 내 대덕분원 설립을 계획했다. 1980년대 고도사회에 대처할 고급두뇌 양성, 연구개발을 주도할 전문연구인력 및 교수 요원의 확보 시급성, 서울캠퍼스의 시설 한계로 인한 고급인력 배출 능력 한계 극복을 위해 대덕분원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대안이었다.

계획 시행 중 1980년 1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과학원(KAIS)이 통합되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으로 변경되면서 대대적인 조직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81~1982년, 과학영재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대덕분원에 과학영재 교육 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일부 계획이 수정되어 추진되었다. KAIST는 대덕분원 설립을 위해 1980년부터 대덕군청과 협약을 체결, 부지 매입을 시작했고, 토목설계를 완료하고 건설부로부터 캠퍼스 조성을 위한 부지개발계획 인가를 받았다.

과기처에서는 1978년부터 KAIST에서 추진 중인 대덕분원 설립과 더불어 1983년 노동부 에서 추진하여 설립 중이던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책 결정을 내렸다. 이를 기반으로, 과기처는 1986년 전국 과학고 졸업생의 대학 진로 등을 고려, 고급과학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1983년부터 노동부에서 설립 중이던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KAIST의 상관관계 정립과 대덕연구단지 활성화 등을 고려, 한국산업기술대를 한국과학기술대학로 변경하고, 노동부에서 과기처로 주관 부처를 이관하며, KAIST를 대덕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수립해 청와대 및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1984년 4월에 개최된 제1회 기술진흥심의회에서 대덕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해 KAIST 대덕연구단지 이전을 확정했고, '대덕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KAIST에 요청했다. 이에 KAIST에서는 1985년 10월 'KAIST 대덕 확충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대덕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3년부터 과기대에서 학사지역 건립을시작하여 1984년부터 서울캠퍼스이전사업을 시작했으며, 과기대 건설사업은 1990년 3월에, 서울캠퍼스 이전사업은 1992년에 각각 완료 했다. 이때 서울캠퍼스 이전사업은 본원 캠퍼스 석·박사 지역에 대한 건설 사업이었다.

2020년 현재 본원 캠퍼스는 과기대에서 구축한 건물을 학사 지역, 서울캠퍼스 이전 사업 으로 구축한 건물인 석·박사 지역, 1992년 이후에 구축한 TIC 지역으로 구분된다. 캠퍼스 내 랜드마크 성격의 건물인 KI빌딩·김병호IT빌딩·정문술빌딩·류근철스포츠컴플렉스·학술문화관 등의 건물은 2000년 이후에 건설되었다.

과기대에서 추진한 건설사업은 부지 37만 506m²(11만 2,078평)을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했고, 건축공사 9만 6,472m²(2만 9,183평, 현 학사 지역) 건설 완료를 포함해 총 사업비 468억 7,000만 원이 소요되었다. 대상 건물은 행정분관(과기대 대학본부), 도서분관 (도서관), 1, 2, 3호관, 실습동, 카이마루, 강당, 체육관(2009년 1월 철거), 기숙사(가~마 동)등이었다.

계획사업으로는 5호관 5,534m²(1,674평), 6호관 6,612m²(2,000평)을 건설하는 안으로 건축설계를 완료했다. 학교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5, 6호관 건설사업은 KAIST 건설본부로 이관되어 1990년 이전 직후 응용·기계·자연·전기전산학부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했다. 과기대에서 추진한 건설사업은 1990년 4월에 준공한 독신료가 마지막 이었다.

KAIST 대덕 이전 사업 건설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는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한 토지개발 공사와 부지 매입 위탁업무를 협의, 1985년 3월에 협약을 체결했다. KAIST 대덕캠퍼스 이전 계획은 1985년 11월 계획 수립 당시 부지 165만 2,983m²(50만 평), 건물 연면적 28만 992m²(8만 5,000평) 건설로 계획했다.

대덕 이전 추진을 위한 계획 시 일부 교원의 반대 의견 등으로 계획 수립이 지연되었고, 마스터플랜 작성 시에도 학과별 공간 배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1985년 4월에 착수하여 1986년 7월에 이전을 완료하고, 이후 교육·연구지 원·기숙사로 구분해 건축설계용역을 시행했다. 1987년 1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같은 해 3월에 건축공사 기공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연구분야의경우 1988년 대덕 이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보류되어, 당시 추진 중이던 유전공학(현 생명공학연구원), 시스템공학(현 과학기술정보연구원)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재료·기계·화공 분야 건설사업은 일부 건축설계 완료 후 사업을 중단했다.

건축공사는 1987년 1월에 1차 공사를 시작으로 총 12차에 걸쳐서 분리 발주하여 시행했다. 건축공사는 1988년 8월 도서관 및 기숙사를 첫 번째로 완료했다. 1990년 3월에 대덕 이전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본원 캠퍼스 시대가 시작되었다. 과기대에서 건설하기로 계획된 교육시설은 1990년 건설 완료 및 건설 중인 학부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1992년에 기계, 전기전자, 자연대 응용 등 일부 증축사업을 완료했으며, 조경, 주차장, 자전거 도로망 구성 등을 완료함으로써 대덕캠퍼스 이전 사업을 마무리했다.

한국과학기술대학과 통합, 대덕캠퍼스 이전 1989. 07.

TIC 지역 건설사업

1992년에는 TIC 지역에 대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스터플랜을 별도로 수립했다. 사업 목적은 교수·학생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와 기업체가 합동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 현장에 직결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중간시험 단계의 장을 만드는 데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기술의 생산화·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건설을 추진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와 기업체 간 기능 및 역할 분담은 학교는 부지 및 연구인력, 주요 기반시설, 연구 성과의 제공이었으며, 기업체는 건설공사비 및 연구기자재, 센터 운영비를 부담하는 원칙이었다. 이후 초창기에는 기업에서 운영비를 부담했으나, 2020년 현재는 학교에서 모든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건설계획은 4개 연구동 2만 17m²(6,055평) 및 연구지원동 3,636m²(1,100평) 5개 동으로, 연면적 2만 3,653m²(7,155평), 지하 1층, 지상 4, 5층 규모였다. 추진 일정은 1992년 기업체와 협의 및 자금 확보, 부지 매입, 1993~1994년 건설공사 완료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에너지환경동을 시작으로 현대전자에서 지원한 칩스동, LG전자에서 지원한 LG홀 준공 이후 당초 계획된 개별 기업체에서 추진한 건설사업은 1997년 IMF로 중단되었다. 2000년 대에 정부 지원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창업관(유레카관)을 준공하고 이민화 동문 (메디슨 회장)과 함께 뜻을 모은 동문들의 기부로 동문창업관을 준공함에 따라 당초 TIC 지역 개발사업 마스터플랜과는 다소 차이가 생겼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의 TIC 지역 건설이 완성되었다.

학과 건물로는 1999년 11월에 의과학센터 건물을 마지막으로 준공했다. 1995년 3월의 과학 학제전공을 설치하고 같은 해 6월 의과학연구센터를 설치한 후 건물 확보 노력을 기울여,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1997년 사업에 착수, 1999년에 준공했다.

대단위 추가 건설사업 추진과 성과

2000년에 국내외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면서 유레카관(창업보육센터)과 동문창업관이 2001년~2002년 사이에 건설되어 100여 개 벤처기업이 입주했다. 창업보육센터는 이후 2009년 3월에 ICU와 통합되면서 ICU 학생 및 교수 이전에 따른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 문지캠퍼스로 이전했다. 강의 공간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3년 1월 창의학습관을 건립했으며, 2005년에는 부설기관인 나노펩센터 건물을 건립했다.

2006년 서남표 총장이 취임하면서 본원 캠퍼스에 대단위 건설사업이 추진되었다. 캠퍼스 건설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기대 설립, KAIST 대전 이전 사업 이후에 가장 규모가 크게 추진된 건설사업이었다. 2010년 2월에는 기존 과기대에서 건설한 체육관을 류근철스포츠컴플렉스로 재건축했으며, KI빌딩·메디컬센터·인터내셔널센터를 각각 준공했다. 이후 ICU 통합에 따라 문지캠퍼스의 교육 연구시설 이전 공간 확보를 위해 김병호 IT빌딩이 2013년 1월에 건설되었으며, 자연대학의 부족한 교육연구시설 확보를 위해 2013년 2월 기초과학동을 준공했다. 동시에 ICU 통합 등에 따른 급격한 학생 증가로 인해 부족한 기숙사를 확충했으며, 외국인 교수 증가에 대비해 초빙교수 석학 유치를 위한 교내 아파트 건설도 추진했다.

2005년 나노펩센터 건물

대덕 본원 부지 현황

구분	면적		비고
	㎡	평	
원 내지역	1,139,270.3	344,628	학사, 석·박사, TIC지역 포함
원 외지역	12,312.1	3,725	궁동기숙사, 도룡동아파트 등
계	1,262,391.3	348,353	

대덕 본원 원외 지역 부지 현황

구분	면적		비고
	㎡	평	
궁동 392-3	5,135.9	1,554	궁동 기숙사 대지
도룡동 383-2	7,176.2	2,171	도룡동 교수아파트 대지
계	12,312.1	3,725	

대덕 본원 원내지역 건물 현황

구분			연면적	
			㎡	평
교육연구시설	학사지역	인문사회과학부동(1호관)	7,820.967	2,366
		기초실험연구동(2호관)	12,506.030	3,783
		산업디자인학과동(3호관)	8,678.280	2,625
		실습동	3,440.930	1,041
		인공위성연구센터	3,891.050	1,177
		정문술빌딩	9,051.330	2,738
		김병호IT융합센터	25,480.610	7,708
		양분순빌딩(정문술2관)	6,176.890	1,869
		소 계	77,046.087	23,306
	석·박사지역	자연과학동	31,647.630	9,573
		기계공학동	31,500.810	9,529
		응용공학동	30,322.140	9,172
		산업경영학동	11,508.430	3,481
		정보전자공학동	30,395.990	9,195
		교육지원동	7,060.230	2,136
		의과학연구센터	5,036.420	1,524
		BUPE연구단(별관)	198.000	60
		동물실험동	1,794.640	543
		창의학습관	10,476.430	3,169
		풍동실험실 창고	178.020	54
		나노종합기술원	26,271.790	7,947
		궁리실험관	5,153.800	1,559
		자동차기술대학원 실험동	2,218.730	671
		무진동실험실	84.000	25
		지오센트리퓨지 실험동	3,328.210	1,007
		KI빌딩	21,810.390	6,598
		카이스트클리닉	4,234.000	1,281
		대전질환모델동물센터	4,241.000	1,283
		미래융합소자동	4,218.080	1,276
		기초과학동	13,257.860	4,010
		중앙분석센터	3,633.960	1,099
		의과학연구동(약국)	44.730	14
		소 계	248,615.290	75,206
	TIC지역	에너지환경연구센터	3,415.070	1,033
		고성능집적시스템연구센터	4,666.290	1,412
		LG이노베이션홀	5,140.580	1,555
		동문창업관	4,952.910	1,498
		fMRI센터	478.140	145
		유레카관	5,958.718	1,803
		자동차실험용 차고	66.000	20
		소 계	259,452.235	7,465
	계		350,339.085	105,977
주거시설	학사지역	기숙사 가동(사랑관)	5,460.900	1,652
		기숙사 나동(소망관)	5,192.220	1,571
		기숙사 다동(성실관)	3,839.320	1,161
		기숙사 라동(진리관)	3,794.170	1,148
		기숙사 마동(신뢰관)	4,476.470	1,354
		기숙사 바동(지혜관)	3,801.110	1,150
		교직원숙소	728.890	220
		여학생기숙사(아름관)	7,563.008	2,288
		해외석학초빙교수숙소(계룡관)	350.058	106
		소 계	35,206.146	10,650
	석·박사지역	동측기숙사(세종관) 석사동	7,152.520	2,164
		동측기숙사(세종관) 박사동	9,959.260	3,013
		동측기숙사(세종관) 체력단련동	308.280	93
		서측기숙사(갈릴레이관)	12,472.830	3,773
		기혼자기숙사(인터네셔널빌리지)	6,071.950	1,837
		나눔관	3,166.560	958
		희망다솜관	19,095.540	5,776
		외국인교수아파트	16,566.670	5,011
		미르나래관	12,359.940	3,739
		나들여울관	11,508.413	3,481
		소 계	98,661.963	29,845
	계		133,868.109	40,495

구분			연면적	
			㎡	평
지원시설	학사지역	행정분관	2,505.300	758
		교양분관	6,840.000	2,069
		학생회관 및 식당	3,941.400	1,192
		제2학생회관	2,127.050	643
		대강당	5,063.590	1,532
		교수회관	1,125.210	340
		수위실	39.240	12
		연결복도	1,878.920	568
		TIC영선실	63.000	19
		창고	18.860	6
		자전거수리점	66.000	20
		테니스코트창고	24.000	7
		차고	261.900	79
		태울관	4,171.190	1,262
		폐기물 분리작업장	193.400	59
		스포츠컴플렉스	14,678.400	4,440
		테니스장 샤워실동	80.870	24
		장영신학생회관	3,850.190	1,165
		소 계	46,928.520	14,196
	석·박사지역	본관	5,895.980	1,784
		학술문화관(도서관)	10,341.910	3,128
		서측 학생회관	8,762.070	2,651
		교직원회관	5,028.390	1,521
		파워플랜트-1(중앙기계실)	2,909.929	880
		파워플랜트-2(서측기계실)	484.600	147
		학생스타디움(노천극장)	464.290	140
		운동장	298.360	90
		중앙창고	461.160	140
		인포메이션센터(만남의장소)	84.880	26
		정문 수위실	52.300	16
		온실(조경사무실)	222.480	67
		폐기물저장고	149.400	45
		영선창고	441.900	134
		폐기물비품보관창고	156.000	47
		폐수처리시설콘트롤룸	33.600	10
		고압가스저장소	33.950	10
		154KV 변전소	986.790	299
		인터내셔널센터	3,166.960	958
		폐수처리장	83.080	25
		학술문화관(문화관)	8,245.780	2,494
		소 계	48,303.809	14,612
	TIC지역	TIC 수위실	48.780	15
		계	95,281.109	28,822
합계			579,488.303	175,294

대덕 본원 원외 지역 건물 현황

구분			연면적	
			㎡	평
주거 시설	원외 지역	궁동기숙사	5,622.140	1,701
		도룡동교수아파트	7,819.100	2,365
합계			13,441.240	4,066

2. 서울캠퍼스

KAIST의 뿌리가 된 홍릉캠퍼스

서울캠퍼스는 1970년 설립추진단이 운영되어 1971년 2월 한국과학원 개교 이후 본격적인 건설 업무가 추진되었다. 당시 서울연구개발단지 추진사업의 일부분으로 한국과학원 서울캠퍼스가 건립되었다. 이 사업에 포함되는 기관은 한국과학원·국방과학연구소(ADD)·한국 개발연구원(KDI)였다. 1968년부터 서울연구개발단지로 정부에서 확보한 부지에 건설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별도의 부지 확보는 할 필요가 없었다.

한국과학원이 위치한 곳은 임업시험장 부지로, 건설 당시 소나무가 주로 식재되어 있었다. 서울연구개발단지에 최초로 입주한 KIST의 건설공사 기공식은 1966년 10월에 있었으며, 1968년에 입주를 완료했다. 이때부터 서울연구개발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1970년 7월에 한국과학원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전부터 학교 건립을 위한 추진단이 구성되어, 1971년 2월 개교 이후 1971년 4월까지 캠퍼스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자체에서 수립하여 대통령 및 정부 부처에 보고했다. 당시 마스터플랜은 건축적 의미의 마스터플랜이 아닌 사업계획서 형태로 작성되었다.

서울캠퍼스는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했으며, 부지 면적은 11만 360㎡(3만 3,384평), 건축 연면적은 62만 8,205㎡(19만

32평)이었다. 건축공사는 1972년 착공하여 대부분의 건물이 1973년 9월에 준공되었다.

한국과학원 최초의 준공 건물은 1973년 6월에 준공한 3호관이다. 준공 당시 건물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845평(2,793m²)이었다. 이 건물은 1978년에 지상 5, 6층을 증축하여 2020년 현재 건물 연면적은 4,188m²(1,267평)이다. 개교 당시에 건립한 서울캠퍼스 대부분의 건물들은 1982년 일부 건물이 증축되었다.

해외에서 초빙된 교원 숙소 건물이 두 번째 준공된 건물이다. 1973년 9월 개강을 위해 1972년 6월부터 교원이 선발되었고 교원이 근무할 건물과 제공해야할 숙소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1973년 6~9월에 1호관·2호관·내빈관 등 부속건물이 대부분 준공되었다.

교원 숙소는 1974년 아파트 D, E, F동이 준공되었다. 6호관은 1975년 3월에 준공되었고, 7호관은 1977년 6월에 준공되었다. 1978년에 3호관 5, 6층 및 6호관 5, 6층을 증축했으며, 이어 9호관을 1980년 8월에, 10호관을 1982년 4월에 준공했다.

이때부터 서울캠퍼스 확장을 위해 부지에 대한 용도 제한 완화와 점유한 국유지를 소유하고자 관련 기관과 협의했으나 용도 변경 및 부지 확보가 어려워 추가적인 건물 확보가 상당히 곤란했다. 또 당시 정부에서 연구기관의 부족한 부지 확보 및 연구소 통합을 위해 1973년부터 대덕연구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었다.

서울캠퍼스는 1971년 개교, 1973년 9월 개강 이후 10년 만인 1981년에 9호관 건설 사업을 추진 완료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향후 추가적인 건축 행위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서울캠퍼스 확장을 위해 지역지구 내 용도변경을 통한 부지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1981년 3월 31일 동대문 구청에 주거지역 내 풍치지구 해제 및 교육 연구지구 지정 요청을 하고, 인접한 부지 중 국유지 확보를 위해 부처와 협의했지만, 2020년 현재도 미해결 상태로 매년 국유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82년 9월 9호관 건물을 준공했다. 9호관 건설은 서울 시내 공공기관 건축 행위 시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건물 심의를 취득해야만 가능했다. 이후 1983년 10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 공공기관 청사 건축에 대한 규제로 건물 신축이 어려워졌다.

1982년 11월에 대통령 지시로 KIT가 대덕연구단지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KAIST에서도 1984년부터 대덕 이전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1985년에 급격히 추진했으며, 1985년부터 1990년 3월까지 대전 현 캠퍼스를 마련, 서울캠퍼스 대부분을 이전했다. 이후 서울 캠퍼스는 건설계획이 없이 현상 유지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서울캠퍼스

1970년대 한국과학원 전경(현 서울 캠퍼스)

서울분원 시대

1990년 대덕캠퍼스 건설 완료로 교육연구시설이 이전한 이후에 서울분원으로 불리었으며, 1996년에 테크노경영대학과 부설기관인 고등과학원이 신설되어 2020년 현재까지 서울 캠퍼스로 사용 중이다. 1997년 KDI 부설 대학원대학교가 입주하면서 후생동 증축 및 일부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 KDI 부설 대학원대학교는 2014년까지 사용하고 세종시로 이전했다.

1997년 서울캠퍼스는 후생관 증축 및 기숙사, 교수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소요 재원은 SK그룹에서 기부하는 형태로, 현재 서울캠퍼스 강당은 슈펙스홀로 명명되어 있다.

서울테크노경영대학 및 고등과학원이 사용하면서 1호관과 아파트 F, G동이 1996년 리모델링되었고, 1998년 KDI 부설 대학원대학교가 입주하면서 8호관, 9호관, 아파트 A, B, C동이 리모델링 건설되었다. 1999년에 SK로부터 기부를 받아 후생관을 건설하고, 그동안 리모델링에서 제외된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했으며, 당시 리모델링 건물이 3호관, 6호관, 아파트 D, E동이었다.

서울캠퍼스는 대덕캠퍼스 확충 이전 후 경영대학·고등과학원이 입주했으나, 건축 공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이에 인접한 KDI에서 1997년 부설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였고 서울캠퍼스 9호관에 1998년 입주했다. 이 대학원대학교는 2010년 공공기관

1996년 서울캠퍼스 전경

이전계획에 따라 2014년 세종시로 이전했으며, 이후 경영대학에서 부분적으로 보수 공사를 하여 사용했다. 2020년 현재까지 건축 후 전혀 수선을 않은 건물은 7호관으로서 건설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대학원대학교 이전 후 공간을 경영대학과 고등과학원에서 사용 중이나 2019년에 신설한 AI대학원 과정에서도 서울에 교육 및 연구공간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AI대학원이 9호관에 입주하여 사용 중이며, AI대학원과 경영대학 공간 확충을 위해 서울캠퍼스 7호관에 대한 재건축 계획을 수립중이다.

서울캠퍼스 부지 현황

구분	면적		비고
	㎡	평	
서울캠퍼스	110,359	33,383	임야 10,479평 포함

서울캠퍼스 건물 현황

구분		연면적	
		㎡	평
교육연구시설	1호관	9,984.83	3,020
	2호관	17,283.86	5,228
	7호관	3,903.48	1,181
	8호관	3,604.25	1,090
	9호관	6,287.00	1,902
	소계	41,063.42	12,421
주거시설	소정사	4,191.95	1,268
	파정사	4,239.13	1,282
	해정사	2,226.00	673
	아파트 ABC동	2,973.95	900
	아파트 DE동	1,940.94	587
	아파트 FG동	2,179.96	659
	소계	17,751.93	5,369
지원시설	후생복지관	2,605.14	788
	내빈관	259.97	79
	아파트 보일러실	642.95	194
	수위실1	25.98	8
	수위실2	16.50	5
	경비실1	6.98	2
	경비실2	6.98	2
	소계	3,564.5	1,078
합계		62,379.85	18,870

3. 문지캠퍼스

ICU ETRI 캠퍼스

문지캠퍼스는 1998년 설립된 ICU에서 건립한 캠퍼스로, 2009년 3월 KAIST와 ICU 합병으로 KAIST 캠퍼스가 되었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는 1998년 개교 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부설로 설립을 추진했기 때문에 ETRI에서 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출연받아 개교했다.

1998년 ICU ETRI 캠퍼스 당시 현황은 부지면적 1만 6,500 ㎡ (4,991평), 건물 3개 동(6 연구동, 지원동, 후생관), 건물 연면적 1만 1,839 ㎡ (3,581평)였으며, 1997년 9월 무상으로 인수한 후 1999년 3월 반환했다. 1997년 9월 부지 및 건물은 ETRI에서 분리하여 취득, 인프라는 ETRI에서 지원받는 형식이었다.

문지캠퍼스

ICU 화암캠퍼스 이전

개교 이후 ETRI에서 출연받은 건물 공간이 부족하여 학교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전을 계획하고 서두르기로 했다. 이때 마침 SKT가 대덕연구단지 내 화암동에 위치한 SKT 연구소를 분당에 신축한 연구소로 이전하려 하고 있었다. ICU에서는 SKT와 협의하여 매입 금액을 저렴하게 하고, 발전기금으로 110억 원을 기부받는 것으로 협상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했다. SKT는 매각 대금의 일부를 ICU 설립 기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커다란 재정부담 없이 교사와 교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1999년 화암동 캠퍼스 현황은 부지면적 10만 3,891.3㎡(3만 1,427평), 건물 3개 동 연면적 1만 3,354.51㎡(5,855평)였으며, 1999년 7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인접한 이디엔지니어링으로부터 부지 6,708.4㎡ 건물 연면적 4,188.13㎡을 매입하였으며, 기숙사 확보를 위하여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화암기숙사 부지 1만 2,636.1㎡을 2000년에 매입하여 건물 연면적 9,144.28㎡를 2002년 2월에 준공했다. 이 당시에 건설한 기숙사가 화암동 기숙사이다.

이후 화암캠퍼스는 기숙사를 제외하고 교육연구시설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2007년부터 2008년에 각각 매각했다.

ICU 문지캠퍼스 건설

ICU는 2001년으로 접어들면서 대학원 과정만을 운영하고 있던 대학원대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부과정 설립을 추진했다. 당시 대학원대학교에 학부과정 설립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여 또 다른 대학교를 설립, 대학원대학교를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학부과정 설립을 추진하면서 화암동캠퍼스가 장기적으로 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교사 및 교지 확보가 시급히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01년 10월 삼성계열 8개 회사 연구소가 입주한 삼성종합기술원이 사용 중이던 대덕연구단지 내 문지캠퍼스를 삼성종합기술원으로부터 350 억 원에 부지면적 26만 4,311.3 ㎡ 건물 연면적 2만 3,966.51 ㎡ 을 매입하여 2001년 11월 부터 2002년 2월까지 내부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를 거쳐 2002년 3월 개교했다. 이런 가운데 2002년 1월부터 연면적 5만 9,839.84 ㎡ 의 본관 건설을 재개하고,기숙사(연면적 9,144.28 ㎡) 건립도 추진하여 2004년 1월에 건설을 완료하고 화암동 캠퍼스의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를 폐교하고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로 통합했다.

본관 건물은 매입 시 기존 구조체가 약 80% 정도 진행된 상태를 고려하여 당초 설계자 및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유휴공간 등을 고려, 설계를 변경하고, 지하주차장을 축소하는 대신 이 공간에 학생 동아리방, 매점, 스낵코너를 설치했다. 매점 및 스낵코너 자리는 이후 도서관 장서 보관실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존 본관 건물의 특징은 주차공간을 지하에 확보하고 지상에는 정원·연못 등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며, 지상에 조성 예정이었던 연못은 용수공급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조경공간으로 변경하여 시공했다.

KAIST 문지캠퍼스

2009년 3월 KAIST는 ICU와 통합에 따른 학생 교육을 위해 본원에 ICU 소속 교수 및 학생 연구공간을 확보하고자 본원 캠퍼스 TIC 지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 기업 100여 개 업체를 문지캠퍼스로 이전하고 문지캠퍼스 경영학과를 동문창업관에 이전했다. 전기및전자공학과, 전산학과는 유레카관 및 2호관으로 이전하고, 부족한 교육연구공간 확보를 위하여 당시 ICU에서 확보된 기금을 활용, 2013년에 IT빌딩 건설을 완료하여 문지캠퍼스 교수 및 학생 이전을 완료했다.

문지캠퍼스 내 교수 및 학생이 본원으로 이전 후 유휴공간을 활용, 본원에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신규 연구센터 등이 문지캠퍼스로 입주했다. 국가적인 대규모 연구사업에 필요한 사업단으로 선정된 연구단의 경우 분원에 입주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문지캠퍼스에 입주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했으며, 대표적으로 국제과학비지니스사업단, IBS KAIST캠퍼스 사업단 등이 있다.

2019년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전체 학과가 문지캠퍼스로 입주하여 문지캠퍼스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자연대학 신임교원 연구공간을 문지캠퍼스에 구축했다. 신규 건물로는 2009년 OLVE사업단 연구에 필요한 자동차 개조 건물을 건축했으며, 2018~2020년에 중대형공동구실증센터 및 로켓연소 시험을 위한 소규모 연구용 건축물을 건축했다.

조천식 녹색교통대학원 이전 기념식 2019.05.28.

문지·도곡캠퍼스 부지 현황

구분	면적		비고
	㎡	평	
문지캠퍼스	264,311.30	79,954	
화암동기숙사	12,636.10	3,822	
도곡캠퍼스	2,059.10	623	
계	279,006.5	84,399	

문지캠퍼스 건물 현황

구분		연면적	
		㎡	평
교육연구시설	대학본관	59,964.19	18,139
	진리관	10,881.90	3,292
	창조관	6,334.70	1,916
	연구1동	2,032.57	615
	연구2동	1,165.82	353
	연구3동	1,976.62	598
	온라인전기자동차시험동	480.00	145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110.97	34
	공동구센터 실험동	2,100.00	635
	추진기관실험동	138.46	42
	공동구센터 지원동	553.76	168
	소계	85,738.99	25,937
주거시설	기숙사	10,591.85	3,204
지원시설	식당	1,968.36	595
	플랜트동	2,628.08	795
	수위실	102.90	31
	가스봄베창고	24.00	7
	경비초소	9.00	3
	테니스장화장실	10.00	3
	소계	4,742.34	1,435
합계		101.073.18	30,576

화암동 기숙사 건물 현황

구분		연면적	
		㎡	평
주거시설	1동	750.390	227
	2동	751.000	227
	3동	1,195.240	362
	4동-A, B	2,383.092	721
	5동-A, B	2,383.090	721
	식당동	1,681.470	509
소 계		9,144.282	2,767

4. 도곡캠퍼스

도곡동 서울교육장은 2003년 동원산업이 식품연구소 건물로 사용하던 건물을 ICU에서 동원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건물이다. ICU에서 디지털미디어연구소 설립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매입했다. ICU에서는 디지털미디어연구소 및 소프트 웨어 전공 교육연구용 건물로 사용했으며, KAIST와 통합 이후에는 비학위과정을 위해 교육용 건물로 사용중이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으며, 대지면적 2,059.1m²(600평),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012.02m²(1,500평)규모다.

도곡캠퍼스 건물 현황

구분		연면적	
		㎡	평
교육연구시설	도곡캠퍼스	5,012.02	1,516

5. KAIST 캠퍼스 50년, 그리고 그 이후

KAIST 개교 50년 동안, 1980년 KIST와 통합 및 1989년 분리, 1989년 KIT와 통합, 2009년 ICU와 통합 등 여러 번에 걸친 기관 통합 및 분리, 부설 연구소인 한국과학정보기술연구원·생명과학연구원 분리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KAIST 역사의 일부분인 물리적인 규모 확장의 결과물인 KAIST 캠퍼스는 50년의 역사 속에서 최초 서울캠퍼스 규모에 비하면 10배 이상확장되었다.

이후 수도권에 인구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건설행위 제한 등의 정부 정책으로 서울캠퍼스 확장이 불가한 점 등이 고려되어 대덕으로 확충 이전하게 됨으로써 본 격적인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규모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 이

후 대단위 건물 신축사업이 본원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면서 2020년 현재 캠퍼스는 2000년 이전 캠퍼스 규모의 약 90% 정도가 증가 되었다.

현재 본원 캠퍼스는 추가적인 대단위 건물을 건설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한 실정이다. 2020년 시점에서 신규로 추진 중인 건설사업으로는 본원 내에 메타융합관 건축공사가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추진 중인 임대형 캠퍼스인 세종시 공동캠퍼스 의과학대학원 이전을 세종시와 협의 중에 있다. 또 분당시가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인근에 기부한 부지 약 33만 579m²(10만 평)에 교육시설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본원 캠퍼스 건축물 수명이 도래하는 2040년대에는 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이 건설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